

M15-12/1989. 12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1985~2001) 12

平野마을의 社會經濟構造

論山郡 彩雲面 野花2里 事例

吳 乃 元(責任研究員)
鄭 起 煥(責任研究員)
許 璋(研究員)
閔 尚 基(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비

면

머 리 말

당 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사회의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1985년부터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연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가구와 인구, 경제활동,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공간구조, 의식·가치관 등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사례 연구사업이다.

이 보고서는 사례연구마을의 경제·사회·정치·문화 및 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마을별보고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을을 사회의 한 단위로 설정하고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마을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이 제시하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1945년 이후 자료와 1985년도 이후 본 연구진이 조사한 기초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3년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이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종국적으로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애쓴 분들이 많으나 특히, 이 연구사업에 처음부터 적극 협조해 주신 논산군 채운면 야화2리 마을 주민들과 논산군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연구를 추진해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료의 분석·정리·보관 및 발간에 협조해 준 전산실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198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영 진

목 차

제 1 장 연혁 및 자연환경

1 . 연 혁	2
2 . 자연 환경	3

제 2 장 인구 및 가족구조

1 . 가 구	8
2 . 인 구	14
3 . 가족구조	19

제 3 장 경제활동구조

1 . 경지소유 및 이용	27
2 . 작목구성	36
3 . 노동력 구조와 이용	40
4 . 겸업화와 농외 활동	49
5 . 가계구조	52

제 4 장 사회구조

1 . 사회집단	67
2 . 사회망과 지도력 구조	95
3 . 종교 및 문화활동	100
4 . 문화생활 및 에너지 이용	107

제 5 장 공간구조

1 . 주민생활권	112
2 . 마을공간구조	115

표 목 차

제 2 장

표 2 - 1	가구의 변화	10
표 2 - 2	현거주가구의 연대별 전입현황	11
표 2 - 3	가구구성	12
표 2 - 4	가구성격의 변화	12
표 2 - 5	성격변화가구의 개황	13
표 2 - 6	연령별 인구구성	15
표 2 - 7	주요인구지표	16
표 2 - 8	인구증감의 내용	17
표 2 - 9	전입목적, 1985 ~ 88	18
표 2 - 10	전출목적별 전출지, 1985 ~ 88	18
표 2 - 11	전출입자의 연령분포	19
표 2 - 12	가구원수별 가구	20
표 2 - 13	가족형태	21
표 2 - 14	경영주 연령별 가족형태, 1988	22
표 2 - 15	가족분산현황	23
표 2 - 16	출타목적	23
표 2 - 17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24
표 2 - 18	출타지역	24
표 2 - 19	가구원의 출타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1988	25

제 3 장

표 3 - 1	농지소유규모계층의 변화	28
표 3 - 2	농지소유구조	29

표 3-3	농지소유증가가구의 개황	29
표 3-4	농지소유감소가구의 개황	30
표 3-5	평균경지면적의 변화	31
표 3-6	경작규모계층의 변화(I)	31
표 3-7	경작규모계층의 변화(III)	32
표 3-8	경작규모 변동농가의 변화내용	33
표 3-9	임차면적의 변화	33
표 3-10	지주의 거주지별 임대면적	34
표 3-11	임대차에 의한 농가구분	34
표 3-12	임차농의 임차면적 규모	34
표 3-13	부재지주의 농지취득 경위, 1988	35
표 3-14	임차료 지불형태	36
표 3-15	농지 임차료 지불액, 1988	36
표 3-16	경종작목별 식부면적	39
표 3-17	가축사육두수	40
표 3-18	마을주민의 경제활동	41
표 3-19	영농종사자수	42
표 3-20	영농종사자 증감원인	42
표 3-21	영농종사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43
표 3-22	경작규모별 영농종사자수, 1988	43
표 3-23	고용노동과 품앗이	44
표 3-24	연간 50일 이상 고용농가의 개황, 1988	45
표 3-25	50일 이상 피고용가구의 개황, 1988	46
표 3-26	농업노임	47
표 3-27	농기계 보급대수	48
표 3-28	수도작 기계작업율	49
표 3-29	비농업가구와 겸업농가수	50
표 3-30	겸업농의 농외활동 내용, 1988	50
표 3-31	비농업가구의 내용, 1988	51
표 3-32	비농업종사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1988	52

표 3-33	농업 고정자산 투자액	54
표 3-34	농업의 투자	54
표 3-35	내구소비재 구입	55
표 3-36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 1988	56
표 3-37	의료보험 여부	57
표 3-38	의료비 지출	57
표 3-39	상병과 의료비 부담내역, 1988	58
표 3-40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및 이전수지	59
표 3-41	취학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60
표 3-42	취업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60
표 3-43	이전수지, 1988	60
표 3-44	호당부채	62
표 3-45	부채규모별 가구수	62
표 3-46	고액부채가구의 개황, 1988	63
표 3-47	호당 평균 저축액	64
표 3-48	순부채, 저축규모별 가구수, 1988	64

제 4 장

표 4-1	야화 2리 자생적 협동조합운동에 참가했던 귀향지도자들의 주요경력	69
표 4-2	사회집단의 조직과 변천, 1945~85	74
표 4-3	쌀계의 조직현황, 1986	82
표 4-4	쌀계의 번호별 계쌀 부담내역	84
표 4-5	위친계의 조직현황, 1986	85
표 4-6	혼사계의 조직현황	88
표 4-7	친목계의 조직현황	90
표 4-8	소시오메트리에 나타난 여론 지도자의 경제 사회적 특성	97
표 4-9	가정 수호신을 믿는 가구수의 분포	101
표 4-10	종교별 가구수와 신앙생활	101
표 4-11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108
표 4-12	난방 및 취사연료	110

제 5 장

표 5 - 1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112
표 5 - 2	주민 생활중심지의 주요시설	114
표 5 - 3	통혼권의 변화, 1945 ~ 85	114
표 5 - 4	주택의 향배, 1987	116
표 5 - 5	마을내 건축물의 증감	117
표 5 - 6	주택의 기능별 공간구분	123
표 5 - 7	난방 및 취사연료 사용현황	124
표 5 - 8	방수별 주택수	124
표 5 - 9	마을공동시설	130
표 5 - 10	마을도로 확장사업 내역	134

그림 목 차

제 1 장

그림 1 - 1	야화 2리의 위치도	4
그림 1 - 2	중심지 - 마을간의 도로망 (개념도)	5
그림 1 - 3	농지기반	6

제 2 장

그림 2 - 1	가구수의 변화	9
그림 2 - 2	인구구조의 변화	15
그림 2 - 3	부분이촌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26

제 4 장

그림 4 - 1	마을기구표	79
그림 4 - 2	사회망	96
그림 4 - 3	사회망 I	96
그림 4 - 4	사회망 II	97
그림 4 - 5	지도력 구조	99

제 5 장

그림 5 - 1	통혼거리별 혼인건수	115
그림 5 - 2	주택배치도, 1987	118
그림 5 - 3	주택배치도, 1953	119
그림 5 - 4	주택배치도, 1970	120
그림 5 - 5	3 칸집의 기본형	121
그림 5 - 6	3 칸결집	121

그림 5-7	A형주택	125
그림 5-8	B형주택	125
그림 5-9	C형주택	126
그림 5-10	D형주택	126
그림 5-11	새마을회관	128
그림 5-12	새마을창고 및 구판장	129
그림 5-13	마을도로망, 1987	131
그림 5-14	마을도로망, 1970	132
그림 5-15	마을도로와 농로와의 연계성	133
그림 5-16	간이상수도망, 1987	135
그림 5-17	하수도망, 1987	136
그림 5-18	농경지의 분포와 경지구조	138
그림 5-19	토지이용 현황	139
그림 5-20	종교문화 공간	142

제 1 장

연혁 및 자연환경

조사마을인 野花2리는 충남 논산군의 평야지대에 위치한 행정리로서 1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위치적으로는 대전에서 38 km 권으로 중간지대에 속하나, 읍으로서는 도시의 세가 비교적 큰 논산읍에서 국도를 거쳐 5 km 떨어진 곳으로 도시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근교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마을이 속한 彩雲面은 전형적인 평야지대로서 1) 일제말엽부터 경지정리가 시작되는 등 답작을 중심으로 농업기술도 일찍 보급된 선발 개발지역이다.

야화2리는 지주-소작 관계가 극심한 소작인 마을이었으며 일찍부터 외지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가구의 전출입도 비교적 많은 편으로 외부사회에 개방적이며 그만큼 변화의 수용, 적응 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특성을 보면 농업에 있어 근교농업적 성격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자가 노동력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딸기재배가 있으며, 수도작의 기계화가 '86년 이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장이' 일을 중심으로 한 겸업농이 많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주민의 노령화, 교육수준의 향상, 소비패턴의 도시화, 부채 증가 등 농촌의 일반적 변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1) 채운면의 경지율은 78.4%, 답율은 88.6%이다.

1. 연 혁

야화리의 우리말 지명은 들꽃매이며 야화는 들꽃매에 대한 한자식 표기명이다.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花를 뜻하는 지명을 사용했다는 설도 있고, 채운면을 관통하는 방축천과 논산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장화리가 옛날에는 금포장곶이므로 곶(串)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마을주민 중 마을주위에 4~5대의 조상의 묘소를 모시고 있는 성씨가 너댓 된다는 것으로 미루어 120~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마을의 원래 위치는 현재보다 남서쪽으로 300 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 그곳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구도로 옆으로 주막촌을 이루고 있었으나²⁾ 저습지로 침수가 잦아 현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두 마을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신작로(23번 국도)의 개통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다.

마을의 반상관계는 뚜렷한 것이 없다. 일제시대에 대부분이 소작인이었고 2~3명의 지주겸 마름이 있어 마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상민 출신으로 양반행세까지는 못했다 한다. 현재에도 그 후손들 몇몇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적 기반도 해체되어 그 위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이한 것은 오늘날 야화2리가 미장이촌으로 불리울 만큼 미장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도 마을에 거주하는 최○석씨(1번가구)가 일제시대에 익힌 기술을 몇몇 마을주민들에게 익혀주고, 이들이 함께 공사장에 다님에 따라 보급되었던 것이다. 이 기술은 1960년대까지 유일한 마을의 농외취업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 적잖은 수입을 올리고 기반을 잡은 사람들도 다수 있다.

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사회경제적 협동조직체로서는 두레와 각종 계조직이 있으나, 두레는 1950년대에 사라졌고 계조직은 활발하여 위친계, 친목계 등이 존재하며 특히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쌀계가 성행하고 있다.

2) 구도로상의 교량인 원목다리의 일부가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다.

2. 자연환경

가. 지리적위치

야화 2리가 속해 있는 채운면은 북으로는 논산군 성동면과 논산읍을, 동으로는 은진면을, 남으로는 연무읍과 전북 익산군 용안면을, 서로는 강경읍과 접하고 있으며, 논산군의 남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야화 2리는 채운평야 동북부의 평탄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논산읍에서 5 km, 23번 국도에서 0.8 km 떨어져 있다.

채운면의 중북부에는 을사조약 이후 일제가 일본과의 연락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륙과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에 따라 개설된 23번 국도(공주~논산~강경)가 관통하고 있으며, 1910~14년에 걸쳐 완공된 호남선 철도가 횡단하고 있다.

중심도시인 논산읍에서 강경까지에는 23번 국도를 따라 군내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마을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논산읍, 강경읍까지는 도보시간을 포함하여 20~30분대의 생활권이 된다. 논산읍에서는 충남의 각 주요도시와 전북, 서울 등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 상위도시인 대전까지는 논산읍에서 40분가량 소요된다. 한편 논산읍에서 국도를 거쳐 화산리~야화 1리~우기리까지 연결되는 군내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마을에서 국도까지 연결하는 진입로는 800 m로서 화산리까지는 노폭 6 m의 시멘트 포장도로이고, 화산리~마을간은 노폭 3 m의 비포장이나 택시, 소형트럭의 진입이 가능하다.

군내버스 이외에도 마을 주민들은 빈번히 논산 또는 강경 택시를 이용한다. 마을~논산간 택시요금은 2,000 원이다.

마을앞 1.5 km 지점에 호남선의 채운역이 있지만 여객, 화물은 취급하지 않고 기차 환승만 담당하므로 철도이용은 논산역이나 강경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1-1 아화 2리의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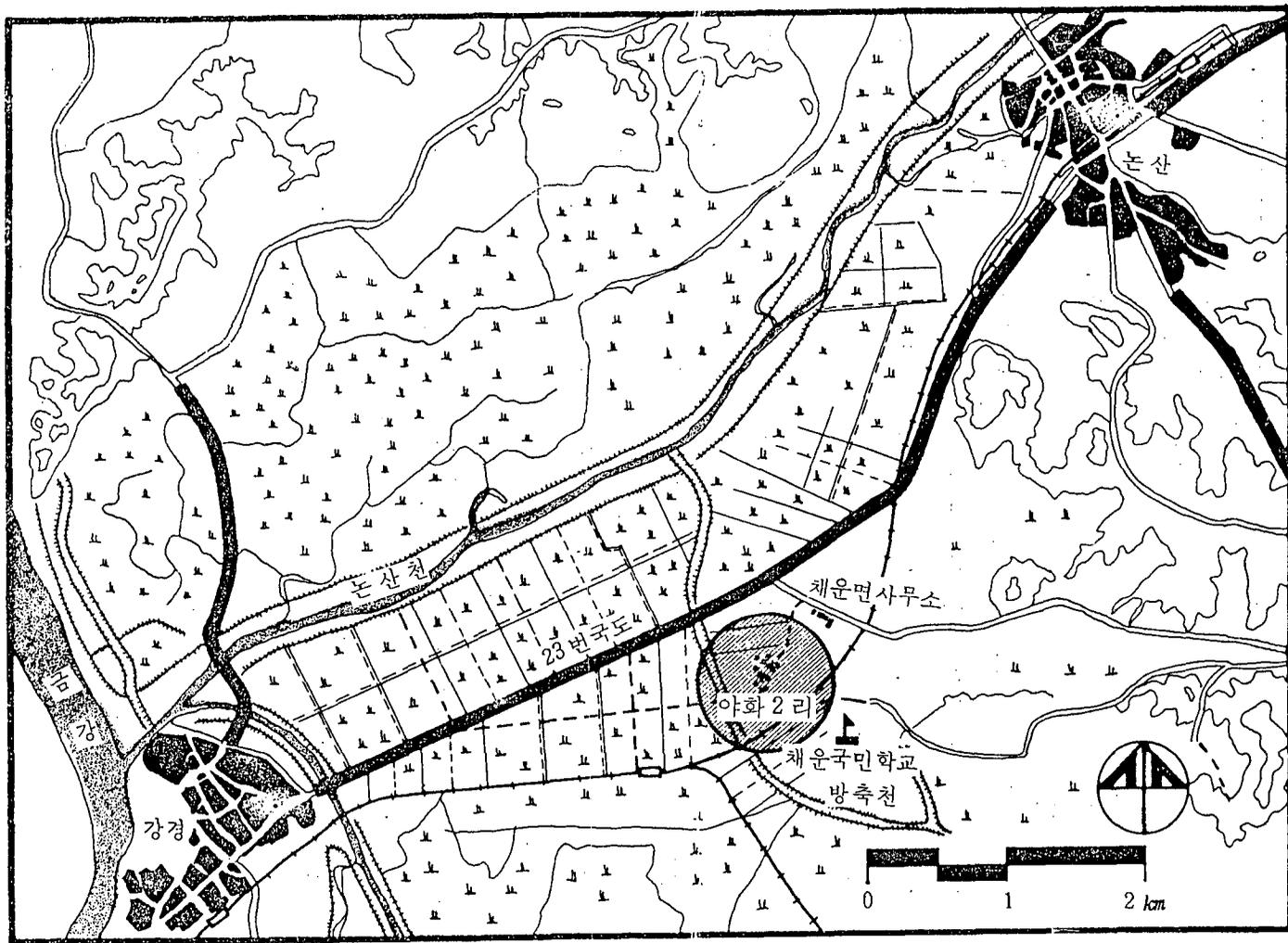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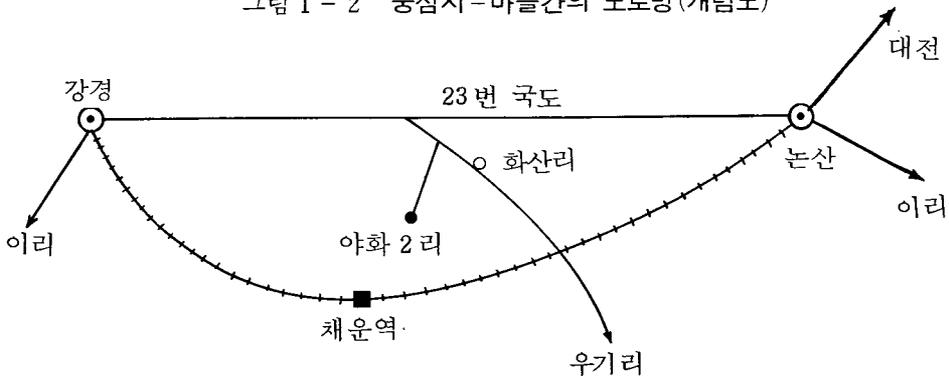


그림 1-2 중심지-마을간의 도로망(개념도)



나. 지형조건

채운면은 경지율이 78.4%에 달하고, 답율이 88.6%에 이르는 전형적인 평야지 답작지대다. 해발 10m 미만의 평편한 채운들은 防築川과 강경천, 그리고 논산천 사이에 있는 저습한 평야지로서 1960년대 중반까지도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내습하는 지역이었다.

면 중앙을 남에서 북으로 가로 질러 흐르는 방축천은 일제시대(1937년)에 제방 일부가 정리되었지만 홍수시에는 논산천이 강경천과 함께 범람하여 채운들을 침수지역으로 만들고 가뭄 때에는 양수시설이 없어 하천 수원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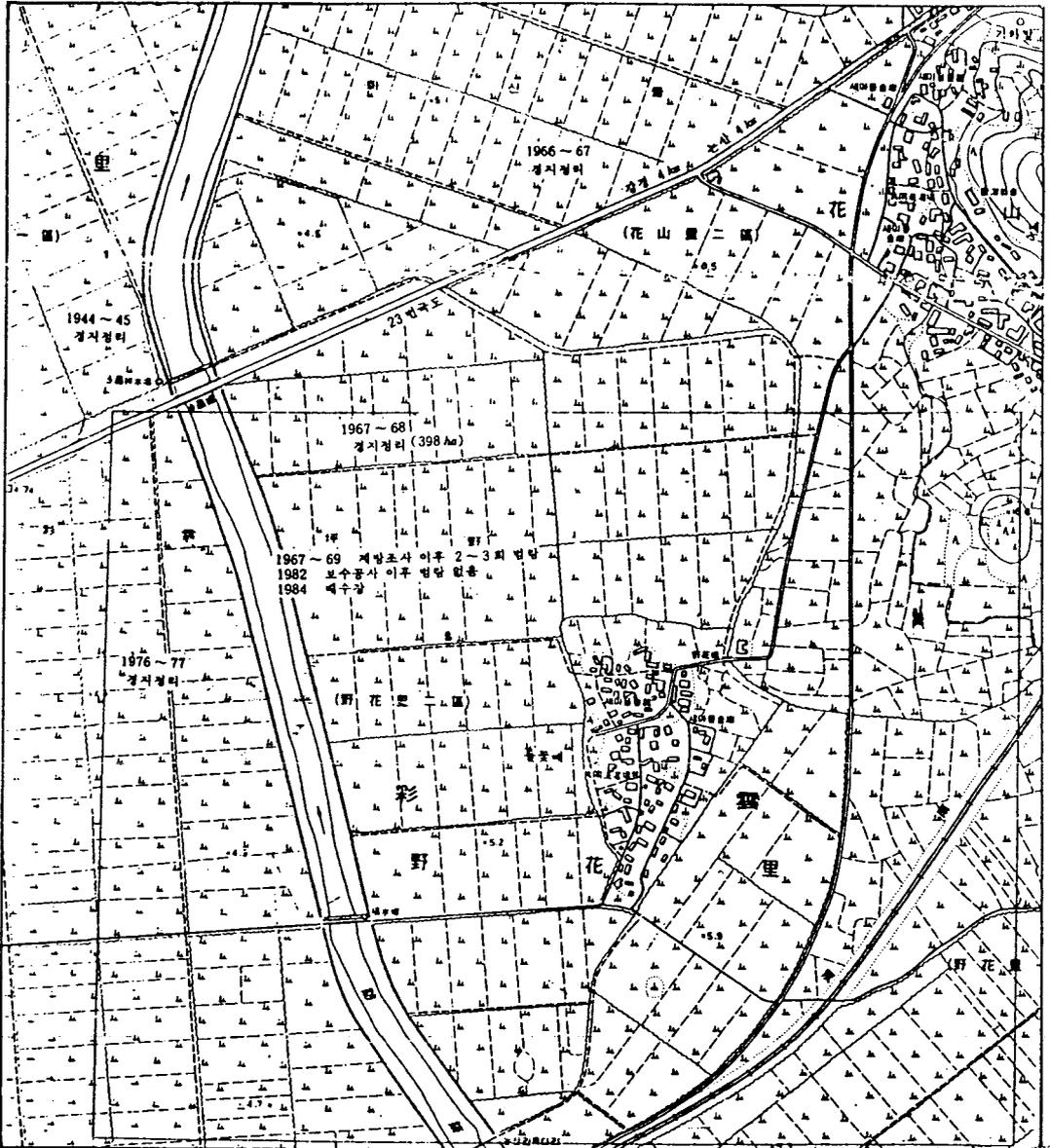
1967~69년도에 실시한 경지정리(398ha 규모)와 제방 정비공사 및 양수장 설치에 이러한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고, 1982년도에 실시한 방축천의 2차 보수공사 및 1984년도의 배수장 설치공사로 이 지역은 50년 빈도의 큰 홍수에도 견딜만한 배수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채운면의 마을들은 이러한 지형적 조건 때문에 비교적 고지대인 동북의 낮은 구릉지에 밀집되어 있다. 야화2리도 이러한 지형조건에 따라 채운들의 동북단의 비교적 높은 지대에 52호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택지와 경지와 의 고저차는 거의 없고, 야화2리의 주택들은 경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로 서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채운들 경지의 관수는 은진면에 축조된 탑정저수지(1944년 완공)의 물을 이용한다. 탑정저수지로부터 유도되는 도수로가 논산읍을 거쳐 마을 옆을 관통하여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마을 앞 방축천에 설치한 양수장은 이 들의 관수에 보조적 역할을 한다.

이 마을 농경지의 토양은 沖積土로서 퇴적 사양토 및 식양토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양배수가 불량하다. 이러한 토양조건은 채운들의 경지이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1 - 3 농지기반



다. 기후와 농업여건

논산군은 연평균 기온 12.5°C 를 유지하는 온대몬순기후대에 속한다. 여름철은 최고기온(1981~85기간의 평균)이 35.9°C 를 기록할 만큼 덥고 겨울철은 최저기온(1981~85기간의 평균)이 -16.3°C 에 이른다. 그러나 서해난류의 영향을 받아 동일 위도상의 내륙보다 온난한 겨울을 맞는다.

연평균 강수량은 1,326.8 mm³⁾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연간 강수량의 61.2%⁴⁾가 여름철의 7, 8, 9월 3개월 동안에 내린다. 반면 겨울철(12, 1, 2월)에는 4.8%만이 내려 건조한 기후를 형성하나 인접한 서해안과 많은 하천으로 인하여 겨울철의 습도는 강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륙지방보다 높다.

논산군의 여름철 고온다우한 기후조건은 이 지방이 하천범람원의 평야지인 이점과 함께 수도작 중심의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논산지방의 긴 무상일수도 수도작의 품종 선택에 있어서 중만생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1976~85년 기간의 평균 初霜日은 10월 16일이고, 만상일은 4월 20일로서 무상일이 179일에 이른다. 무상일수가 길고 온난한 겨울철 기온은 겨울철의 답리작 재배를 가능하게 해 준다. 한편 논산군의 맑은 날의 일수는 232일로 나타난다.

야화 2리는 전체 농경지의 98.6%를 답이 차지하고 있어 답작 중심의 농업유형을 갖는다. 그러나 밭이 부족한 상황에서 답리작농업이 발달하고 있다. 답리작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은 딸기, 수박, 참외 등이며 비교적 온난한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축성 또는 반축성 재배를 하고 있다.

3) 1980~85년간중 1983년 기록을 제외한 5개년 평균

4) 1985년 강수량 기준

제 2 장

인구 및 가족구조

야화 2리는 1988년말 현재 가구수 52호로 평균적 크기의 마을이다. 또한 水原 白氏, 平山 申氏, 金海 金氏가 4~5호씩 있으나 대체로 각성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1945년의 가구수는 49호, 가장 많았을 때인 1970년대 후반에도 54호로 가구수의 변동은 적었으나, 전출입은 1945~88년간 각각 32호, 27호로 가구의 이동이 빈번했던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마을의 역사가 짧고 폐쇄성이 약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구수의 일정규모 유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대량이촌은 마을의 인구규모를 감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력구조를 노령화, 열악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노령부부가족의 증가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은 타부락과 비슷한 현상이다 본장에서는 가구, 인구의 변동과 그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

1. 가 구

야화 2리의 1945년 가구수는 49호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당시의 인구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50명 내외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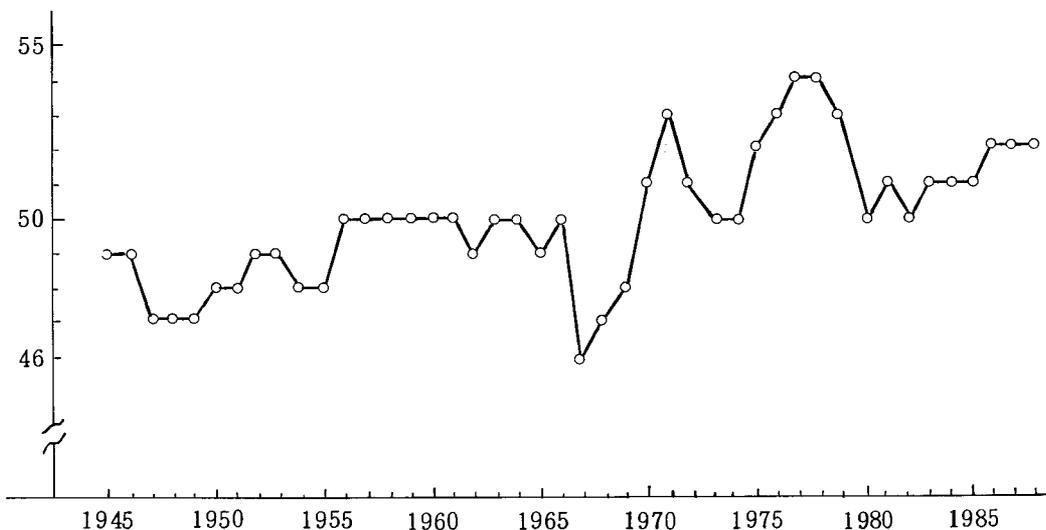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야화 2리의 가구수가 오히려 약간 증

1) 1945~84년의 가구수와 변동내용은 김종수, 이해범씨 등 주민들의 증언과 호적, 주민등록 등의 자료, 1987년 family profile 조사자료에 의해 복원하였음.

가한 것은 논산읍과 강경읍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거주지로서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여 오고 있다.²⁾

연도별 변화의 양상은 크게 1945~65, 1966~현재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 기간동안 전출호수는 전반기에는 12 호, 후반기에는 20 호로 약간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보다 큰 차이는 전입과 분가에서 나타난다. 전입 호수는 전반기에 6 호에 불과한 반면, 후반기에는 21 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마을내 분가자는 전반기에는 8 호, 후반기에는 3 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의 초기 단계인 1965년을 전후로 가구의 이동성이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지만, 농가경제의 열악화와 도시에서의 노동력 수요 증대로 한 농가에서 2명의 자녀가 농사를 이어 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 - 1 가구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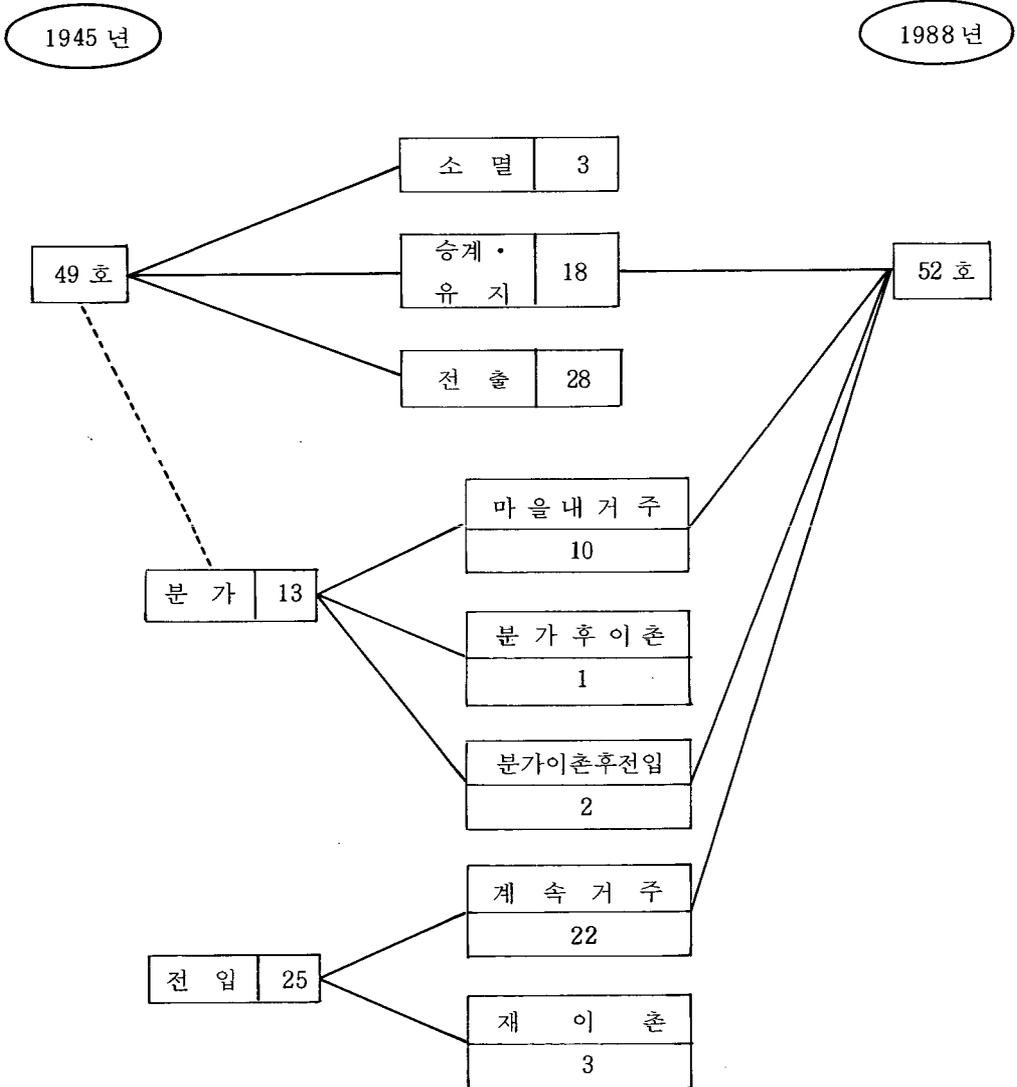


전 입	2					1	1	1					1	1	1	1	3	1	1	1	2	1	1	1	1	1	1
전 출	2	2				1	2	1	1				1	2	3			3	1	1	1	5	3			1	1
분 가	1		1	1	1	1	1	1					1	1									1			1	
소멸(사망)	1		1										1		1												

2) 이해범씨의 증언에 의하면 1953년 6.25 전쟁후의 인구는 333 명이었으며, 1978년 상주인구 조사시에는 271 명, 1985년에는 232 명, 1988년에는 196 명으로 감소하였다.

1945년 이후의 가구 승계와 분가, 전출입의 상황을 보면 <표 2-1>과 같다. 총 49호중 18호는 자식세대로 승계되어 마을에 남아 있으며, 28호는 전출하였다. 마을내에 분가한 13호(이 중 1호는 전입가구에서 분가)중 1호는 전출하였고, 2호는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해와 父代를 승계하였으며, 10호는 계속 거주하고 있다. 전입해온 가구는 25호로 이 중 3호는 다시 이혼하였다.³⁾

표 2-1 가구의 변화



3) 가구별 구체적 내용은 부록 2 참조.

표 2 - 2 현거주가구의 연대별 전입현황

구 분		호 수	(%)
본마을 출신	승 계 가 구	18 호	(34.6)
	분 가 가 구	11 호	(21.2)
전 입 가 구	1945 ~ 49 년 전입가구	2 호	(3.8)
	1950 년대 "	3 호	(5.8)
	1960 년대 "	4 호	(7.7)
	1970 년대 "	9 호	(17.3)
	1980 년대 "	5 호	(9.6)
계		52 호	(100.0)

1988년말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52호의 연대별 전입현황은 <표 2-2>와 같다. 1945년 이후의 전입가구가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특히 1970년대 이후의 전입자가 14호(26.9%)나 되는 데서 마을의 개방적 성격을 볼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후인 1985년 이후에는 전입, 전출이 각각 2호씩 있으며, 1호가 분가해 51호에서 52호로 증가하였다. 전출가구중 1호(10번)는 1976년(경영주 36세때)에 전입하여(본 마을이 부인의 출생지임) 농업노동, 소작(1985년엔 논 1,200평), 건축노동(주로 서울에서 계절적 취업), 마을내 가게운영(마을공동채산을 임차)등으로 살아온 빈농으로 1985년부터 수도작 기계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농지임차와 피고용노동의 기회가 감소하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워져 이농하였다. 전출지는 강경읍으로 전출후에는 날품노동에 종사하였다. 또 한가구(24번)는 1954년(경영주 26세때)에 전입한 가구로 연무읍에서 기도원을 차려놓고 주로 그곳에 지내며 농사를 지어오다 1988년에 완전 이촌하였다. 소유지 1,600평은 마을사람(42번 가구)에게 임대해 주었다.

전입가구 2호는 모두 본마을 출신으로 분가후 외지에서 지내다 귀향한 경우다. 그러나, 귀향 후에도 농사는 짓지 않고 있다. 53번 가구는 1977년에 형에게서 분가하여 전주 등 외지에서 건축노동에 종사하다가 노모가 고향에서 임종하기를 위해 마을에 전입하였으며, 전입후에도 인천, 원주 등 외지로 건축일을 다니고 있다. 54번가구도 1986년 부에게서 분가해 옆 화산리에서 살다 1988년 마을로 전입해 들어왔다. 전입후에도 중기운전을 하였으나 5월 사고를 당해 쉬고 있다. 52번가구는 형(19번)

표 2 - 5 성격변화가구의 개황

변 화 구 분	가구 번호	경영주령 ('85기준)	경지소유면적(평)		경 작 면 적 (평)		사 유
			1985	1988	1985	1988	
농가 → 농업노동자	9	49	0	0	800	0	영농실패, 경운기 구입하여 임작업 치중
농가 → 지주	12	66	3,600	3,600	3,600	0	1987년 경영주 사망, 노동력 부족
	13	59	4,000	4,000	4,000	0	노인 부부가족, 노령화(영농실패 잦음)
농가 → 비농업가구	21	33	0	0	0	0	1987년 경영주 사고로 사망, 부인 공장 취업
비농업가구 → 농가	39	37	1,600	1,600	0	1,600	경영주는 계속 농외취업, 부인이 육아 끝내고 임대지 환수하여 영농시작
	42	31	0	0	0	3,000	경영주 비농업 취업 중단, '86년부터 임차지 얻어 딸기 농사('80년 전입가구로 그 이전에는 임차하기가 쉽지 않았음)
	46	55	0	0	0	1,800	경영주 비농업 취업 중단(실직)으로 임차 영농
	48	34	0	0	0	900	경영주 비농업 취업 중단, 양계업 시작(1986)
	50	31	0	0	0	0	경영주 교사, 부인이 육아부담 완화로 양돈 시작(9두)
	51	62	0	0	0	900	아들이 비농업 취업 중단, 양계업 시작(1987)
농업노동자 → 농가	49	64	0	0	0	400	하천부지 임차하여 영농 시작
농업노동자 → 비농업가구	44	44	0	0	0	0	기계화로 농업노동 기회 감소하자 건축일 다짐.

6호중 4호는 비농업취업을 중단하였으며, 2호는 경영주가 비농업에 종사하고 부인이 부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겸업농으로 변화하였다. 성격이 바뀐 가구의 구체적 내용은 <표 2-5>와 같다.

2. 인 구

야화 2리의 1988년말 현재 인구는 196명이다. 해방 당시의 인구는 호당 가구원수가 7명정도로 350명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상 가구원 정의의 차이, 행정구역의 변경 때문에 행정자료를 통한 인구변화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1985~88년 사이의 인구변화와 이동에만 초점을 맞춘다.

가. 인구수 및 구성

연도말 기준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변화는 <표 2-6>과 같다. 3년간 총인구는 232명에서 196명으로 36명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연평균 5.5%의 감소율), 노령화도 계속 진전되고 있다. 연령대별 인구감소는 특히 0~9세층과 20대에서 가장 심하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 육성기간이 끝나고 직업에 정착하는 20대에서 농촌에 잔류하여 농사를 계승하는 영농후계자세대가 적으며, 그 결과 출생율이 매우 낮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30대 이상에서는 연령대별 인구수에 큰 변화가 없이 상대적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인구와 관련된 각종 지표의 변화는 <표 2-7>과 같다. 노년인구부양비는 10.5에서 21.2로, 노령화지수는 19.7에서 40.7로 2배 이상씩 증가하여 급격한 노령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은 물론 농촌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반면 소년인구부양비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으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력을 표시하는 모아비는 36.0에서 14.6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가임여성 중에서도 실제 출산을 하는 20대 여성이 적어 신생아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표 2 - 6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 명

	1985			1988			85/88 증 감		
	남	여	계 (%)	남	여	계 (%)	남	여	계
0 ~ 4	8	10	18 (7.8)	3	3	6 (3.1)	△ 5	△ 7	△ 12
5 ~ 9	14	15	29 (12.5)	9	14	23 (11.7)	△ 5	△ 1	△ 6
10 ~ 14	10	19	29 (12.5)	13	17	30 (15.3)	3	△ 2	1
15 ~ 19	12	9	21 (9.1)	6	10	16 (8.2)	△ 6	1	△ 5
20 ~ 24	4	7	11 (4.7)	2	2	4 (2.0)	△ 2	△ 5	△ 7
25 ~ 29	6	8	14 (6.0)	4	5	9 (4.6)	△ 2	△ 3	△ 5
30 ~ 34	7	5	12 (5.2)	8	6	14 (7.1)	1	1	2
35 ~ 39	6	8	14 (6.0)	3	6	9 (4.6)	△ 3	△ 2	△ 5
40 ~ 44	4	7	11 (4.7)	7	4	11 (5.6)	3	△ 3	0
45 ~ 49	9	4	13 (5.6)	3	8	11 (5.6)	△ 6	4	△ 2
50 ~ 54	2	7	9 (3.9)	8	3	11 (5.6)	6	△ 4	2
55 ~ 59	8	10	18 (7.8)	5	11	16 (8.2)	△ 3	1	△ 2
60 ~ 64	9	9	18 (7.8)	4	8	12 (6.1)	△ 5	△ 1	△ 6
65 ~ 69	3	2	5 (2.2)	9	6	15 (7.7)	6	4	10
70 ~ 74	2	3	5 (2.2)	1	3	4 (2.0)	△ 1	0	△ 1
75 세이상	1	4	5 (2.2)	2	3	5 (2.6)	1	△ 1	0
계	105	127	232(100.0)	87	109	196(100.0)	△ 18	△ 18	△ 36
50 세이상	25	35	60 (25.9)	29	34	63 (32.1)	4	△ 1	3

그림 2 - 2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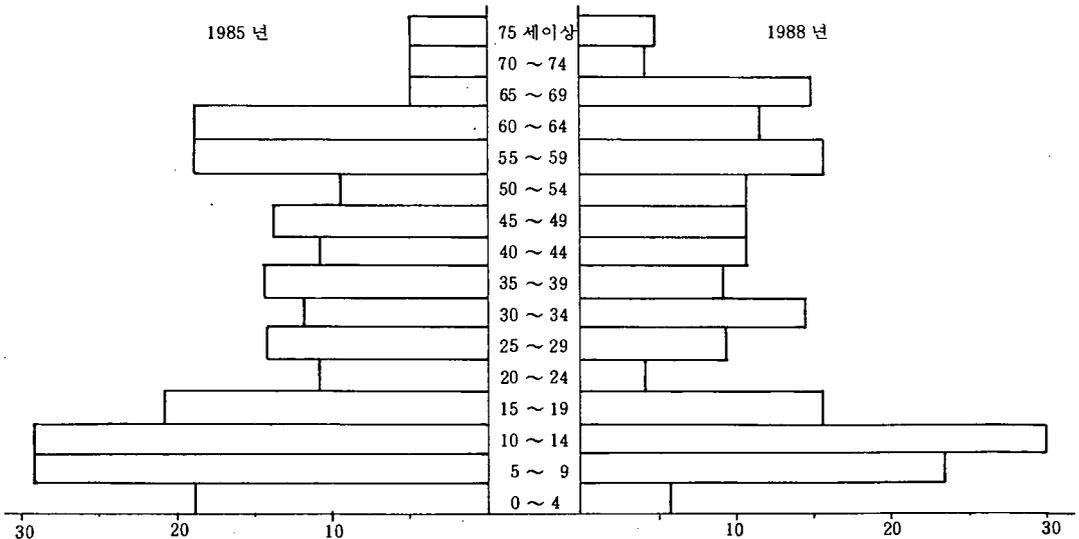


표 2 - 7 주요 인구지표

	1985	1988	전 국 1)	농 촌 2)
성 비 3)	82.7	79.8	100.2	102.7
노년인구부양비 4)	10.5	21.2	6.8	12.5
소년인구부양비 5)	53.1	52.2	47.3	48.3
총 부양인구비 6)	63.6	73.4	54.1	60.9
노령화지수 7)	19.7	40.7	14.5	25.9
모 아 비 8)	36.0	14.6	33.4	35.1

1)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경제기획원. 에 의해 작성.

2) 면부인구를 기준으로 계산, 1985.

$$3) \text{ 성 비} = \frac{\text{남성인구}}{\text{여성인구}} \times 100$$

$$4) \text{ 노년인구부양비} = \frac{\text{65세이상 인구}}{\text{15 ~ 64 세 인구}} \times 100$$

$$5) \text{ 소년인구부양비} = \frac{\text{0 ~ 14 세 인구}}{\text{15 ~ 64 세 인구}} \times 100$$

$$6) \text{ 총부양인구비} = \text{노년인구부양비} + \text{소년인구부양비}$$

$$7) \text{ 노령화지수} = \frac{\text{65세이상 인구}}{\text{0 ~ 14 세 인구}} \times 100$$

$$8) \text{ 모 아 비} = \frac{\text{0 ~ 4 세 인구}}{\text{15 ~ 49 세 여성인구}} \times 100$$

나. 인구증감의 요인

이와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요인은 인구증감의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야화 2리에서의 인구변화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보다는 전출입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1985~88년중 사망이 7명, 출생이 5명으로 자연감소는 2명에 불과하다. 반면 3년간 전입은 19명, 전출이 53명으로 사회적 감소가 34명이다. 전입자 중에는 가구전입 2호(8명)가 포함되어 있고, 전출자 중에는 가구전출 3호(13명)와 분가 2호(6명)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전출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전출입의 이유를 보기 위해 가구전출입의 영주외 가구원을 제외하고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 <표 2-9>, <표 2-10>이다. 전입자 13명중 단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임시전입한 사람이 4명, 군복무를 위해 전입한 경우가 2명, 실직 또는 휴양차 전입한 사람이 3명으로 9명을 임시전입으로 볼 수 있다. 군 제대후 마을부근에 일자리를 얻어 귀향한 2명도 계속 거주여부는 불확실하다. 마을로 결혼해 들어온 여자 2명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2-8 인구증감의 내용

단위 : 명

구 분		1985/86	1986/87	1987/88	1985/88
사회적 증 감	전 입 (a)	11 ¹⁾	1	7 ²⁾	19
	전 출 (b)	19 ³⁾	13	21 ⁴⁾	53
	순증감(a-b)	△ 8	△ 2	△ 14	△ 34
자 연 증 감	출 생 (c)	3	2	0	5
	사 망 (d)	2	4	1	7
	순증감(c-d)	1	△ 2	1	△ 2
총 증 감		△ 7	△ 14	△ 15	△ 36

1) 가구 전입 1호(5명) 포함.

2) 가구 전입 1호(3명) 포함.

3) 결혼후 부모와 같이 살던 자녀가 분가한 경우 2호(6명)와 가구전출 1호(3명)를 포함

4) 가구전출 1호(4명)와 가구 부분전출 1호(6명)를 포함.

표 2 - 9 전입목적, 1985~88

전입목적(이유)	인 원 %	비 고
단순주거이전 ¹⁾ (임시거주)	4 (30.8)	1명 전출, 2명 전출 예정('89년)
비농업취업	2 (15.4)	2명 모두 군제대후 마을에 들어와 부근에서 취업
실 직	2 (15.4)	남 25세, 여 24세, 1명 재전출
입대(방위)	2 (15.4)	군복무후 재전출
결 혼	2 (15.4)	2명 모두 여자
휴 양	1 (7.7)	도시에서 취업중 몸이 아파 귀향(여자 60세)
계	13(100.0)	4명 재전출, 4명 비농업 취업

1) 군제대후 임시로 귀향한 경우(2명)와 전입전 직업을 그대로 갖고 귀향한 경우(2명)

한편 전출자는 39명중 24명이 취업목적이며, 이밖에 취학, 출가, 입대, 단순주거이전이 각각 2~3명씩 나타났다. 취업전출자의 주전출지는 서울과 논산군내로 나타났다.

전출자의 연령은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이고 전입자는 20대가 가장 많다. 전출입 비율도 20대가 가장 높다. 전출입목적과 연령층을 감안해 보면 이 마을에서 10대 후반과 20대의 취업을 위한 전출이 인구이동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취

표 2 - 10 전출목적별 전출지, 1985~88

전 출 목 적	인 원 %	전 출 지						
		군 내	도내도시	도내농촌	서 울	도외도시	도외농촌	기 타 ¹⁾
취 업	24 (61.5)	6	2		11	2	2	1
취 학	3 (7.7)		2		1			
출 가	3 (7.7)							3
입 대	3 (7.7)							3
단순주거이전	2 (5.1)	2						
기 타 ²⁾	4 (10.3)	1	1					2
계	39(100.0)	9	5	0	12	2	2	9

1) 전출지가 불명확한 경우 포함.

2) 도시거주 부모를 따라간 경우, 도시거주 자녀에 의탁한 경우, 이혼하여 친정에 돌아간 경우 등 포함.

표 2 - 11 전출입자의 연령분포

단위 : 명

구 분	전 출		전 입	
		'85 기준전출율		'88 기준 전입율
0 ~ 9 세	5	10.6 %	3	10.3 %
10 ~ 19	18	36.0	0	-
20 ~ 29	21	84.0	10	76.9
30 ~ 39	3	11.5	3	13.0
40 ~ 49	3	12.5	0	-
50 ~ 59	1	3.7	1	3.7
60 세이상	2	6.1	2	5.6
계	53	22.8	19	9.7

업의 불안정성, 군복무관계 등으로 아직 도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농촌본가에의 의존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85 ~ 88년중 인구의 자연증감을 보면 사망 7명, 출생 5명으로 평균 조출산율(인구 1,000명당 출생인구)이 7.2, 조사망율이 10.1로 전국 평균 16.5와 5.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출산력이 낮은 것은 젊은 가임부부가 적은 때문이고, 사망율이 높은 것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66.1세로 60대, 70대가 각 2명, 80대가 1명이고 50대의 병사가 1명, 30대의 사고사가 1명이었다.

3. 가족구조

가. 가족형태

가족원의 이촌은 농촌가족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그 성격을 변화시킨다. 특히 이촌 현상이 젊은 자녀세대에 집중됨으로써 노령화와 함께 가족형태의 변질이 수반되고 있다. 노인단신가구나 노령부부가족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야화 2리의 가구당 동거가구원수는 1985년 기준 4.47명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비

표 2-12 가구원수별 가구

단위 : 호 (%)

가 구 원 수	1988	1986	1987	1988
1 인	1 (2.0)	1	3	3 (5.8)
2	11 (21.6)	15	13	15 (28.8)
3	8 (15.7)	4	7	7 (13.5)
4	7 (13.7)	7	7	10 (19.2)
5	7 (13.7)	9	7	6 (11.5)
6	9 (17.6)	6	9	8 (15.4)
7	5 (9.8)	8	5	2 (3.8)
8	0 (-)	1	0	0 (-)
9	1 (2.0)	1	1	1 (1.9)
10	2 (3.9)	0	0	0 (-)
계	51(100.0)	52	52	52(100.0)
평균가구원수	4.47	4.33	4.06	3.75

교적 많은 편이다. 이것은 야화 2리가 도시에의 접근성이 좋은 근교적 성격을 가져 중고등학교의 통학이 가능하고, 비농업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3년간 호당 가구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1988년에는 3.75명으로 감소했으며, 4인 이하 가구도 27호(52.9%)에서 35호(67.3%)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1인가구, 2인가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가족형태의 변화는 <표 2-13>과 같다. 예상대로 핵가족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직계가족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고, 결혼한 자녀세대가 2세대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은 해체되었다. 이중 1호는 마을내 분가, 1호는 외지로 분가하였다.

야화 2리의 가족형태는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건실한 상태로 보인다. 즉 노동력 구조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C형, F형의 비율이 59.6% (1988년 기준) 이고, 여기에 D형 가족을 합치면 71.2%가 된다.

A형(단신가구)은 모두 60, 70대의 여성가구이다. 이중 2호는 소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수입으로 살고 있으며 1호는 기계임작업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B형 가족도 11호 모두 60, 70대의 노령가구들이다. 이중 8호는 농가이며 2호는 지주, 1호는

표 2-13 가족형태

단위 : 호 (%)

구 분		1985	86	87	1988
핵 가 족	단 신 가 구 (A)	1 (2.0)	1	3	3 (5.8)
	부 부 (B)	9 (17.6)	12	10	11 (21.2)
	부 부 + 자 녀 (C)	20 (39.2)	14	16	18 (34.6)
	편부부 + 자 녀 (D)	4 (7.8)	6	7	6 (11.5)
	계	34 (66.7)	32	33	38 (73.1)
직 계 가 족	(원) 부모+부부+(자녀) (F)	14 (27.5)	16	14	13 (25.0)
	(원) 부모+부부중 1+(자녀)(G)	0 (-)	1	1	1 (1.9)
	(원) 부부 + 손자녀 (H)	0 (-)	0	0	0 (-)
	소 계	14 (27.5)	17	15	14 (26.9)
확 대 가 족 (I)	2 (3.9)	0	0	0 (-)	
기 타 (J)	1 (2.0)	2	1	0 (-)	
계	51(100.0)	52	52	52(100.0)	

비농업가구(마을가게 운영)이다. 노령가구들이 직접 영농을 할 수 있는 것은 수도 작 기계 임작업이 잘 발달된 때문이나 이들이 모두 후계자가 없음을 감안할 때 이들 가구에 있어 노동력상의 취약점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편부부+자녀)인 D형은 다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10대 이하의 미성년 자녀와 편부, 또는 편모로 이루어진 경우다. 야화 2리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둘 있는데 (1호는 남자 경영주의 사망, 1호는 경영주 부인의 취업 출타) 가정관리와 노동력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한 유형은 20대 또는 30대의 미혼 성인 자녀와 편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러한 경우는 4호로 모두 남자성인자녀와 편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력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다. 직계가족인 F, G형중 1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3세대 가족이다. 그러나, 그 중 2세대가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5호(4, 20, 22, 48, 49번)에 불과하다. 나머지 8호의 가족구성은 핵심부부를 중심으로 노령의 노동력 없는 부모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표 2 - 14 경영주 연령별 가족형태, 1988

단위 : 호

경영주연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이상
		핵 가 족	A 형				
	B 형					9	2
	C 형		4	5	9		
	D 형	1	2	1	2		
직계 가족	F 형		2	3	4	4	
	G 형					1	
계		1	8	9	15	16	3

나. 가족분산과 출타가족의 실태

농촌의 가구원들이 출타하여 1 가족 다가구의 가족분산을 이루는 것은 취업기회의 확대와 교육수혜의 두 가지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목적의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는 그 지역이 가지는 지리적, 공간적 그리고 산업과 교육시설 등의 제반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야화 2 리는 논산읍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있고, 또 거리가 가까우며 교통편도 매우 편리하여 취학조건이 유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농업 취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건축, 미장일의 경우 작업장소가 전국 각지로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일거리가 없는 관계로, 일을 위해 수개월 출타는 하지만 분산가족을 이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의 가족분산의 정도는 심하지 않는 편이다. 198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출타자가 있는 가구는 30 호로 전체의 58.8%이며 호당 출타자수는 1명이었다. 가족분산정도는 1987년을 제외하고는 완화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가족분산이 최대한으로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녀세대의 감소로 신규이혼자는 점차 줄어들고 이미 출타한 자녀는 분가하여 독립하기 때문에 표면적 분산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1988년 현재 총출타자 48명중 37명이 취업을 위해, 8명이 취학 때문에 출타하고 있어 취업출타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취학출타자가 다른 부락에 비해 적은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의 통학조건이 좋기 때문이다.⁴⁾ 또한 마

4) 취학구조에 대해서는 3장 5절 참조.

표 2 - 15 가족분산현황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가족당가구수	1 가구	21	24	24	24
	2 가구	16	19	17	18
	3 가구	11	7	8	6
	4 가구	2	2	2	3
	5 가구	1	0	1	1
총 호 수 (A)		51	52	52	52
출타자있는호수(B)		30	28	28	24
B / A (%)		58.8	53.8	53.8	46.2
총 출 타 자 수		51	50	55	48
호당평균출타자수		1.00	0.96	1.06	0.92

표 2 - 16 출타목적

단위 : 명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취 업	31 (60.8)	28	29	37 (77.1)
취 학	15 (29.4)	12	12	8 (16.7)
입 영	4 (7.8)	7	9	3 (6.3)
기 타	1 (2.0)	3	5	0 (-)
계	51(100.0)	50	55	48(100.0)

을인구의 연령구조가 노령화되면서 취학연령층이 적어져 취학출타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출타자의 연령구성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10대의 순이다.

출타지역은 출타목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취업목적인 경우에는 서울이 4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수도권 도시, 부산, 울산 등 공단도시가 많으며, 대전 등 도내도시로 출타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해 충남, 대전의 공업발전이 낙후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1985년에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다른 도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취학출타자는 대부분이 대전시에 있으며, 서울과 인천에도

각각 2명, 1명이 유학하고 있다.

이와같은 가족원의 부분적 이혼은 바로 가족구조의 취약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농가의 노동력구조 및 그 이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온다. < 표 2 - 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6 호의 가구가 부분이혼으로 가족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부인이 서울에서 취업 (연락이 별로 없어 가출에 가까움)하여 C → D형으로 바뀐 1 호를 제외하고는 이 가구들은 모두 경영주가 60 대, 70 대의 노령가구들로서 농업경영능력이나 노동력 면에서 자녀이혼이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이 중 5 호는 농가임).

표 2 - 17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0 ~ 9 세		1	1	
10 ~ 19	8 (15.7)	5	10	13 (27.1)
20 ~ 29	39 (76.5)	41	38	33 (68.8)
30 ~ 39	2 (3.9)	1	3	1 (2.1)
40 ~ 49	2 (3.9)		1	1 (2.1)
50 ~ 59		2	2	
60 세이상				
계	51(100.0)	50	55	48(100.0)

표 2 - 18 출타지역

단위 : 명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취 업	취 학	취 업	취 학	취 업	취 학	취 업	취 학
군 내	2		2		4	2		
도내 농촌				1	4		1	
도내 도시	9	10	6	5	1	6	4	5
서울	17	2	15	1	16		14	2
타도 농촌					1		1	
타도 도시	3	3	5	5	3	4	14	1
계	31	15	28	12	29	12	33	8

표 2 - 19 가구원의 출타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1988

단위 : 호

전가족 재촌가족	단 신 (A)	부 부 (B)	부 부 + 자녀 (C)	편부모 + 자녀 (D)	(편) 부모 + 부부+(자녀) (F)	(편) 부모 + 편부부+(자녀) (G)	계
A	2		1				3
B		8	3				11
C			18				18
D			1	5			6
F					13		13
G					1		1
계	2	8	23	5	14	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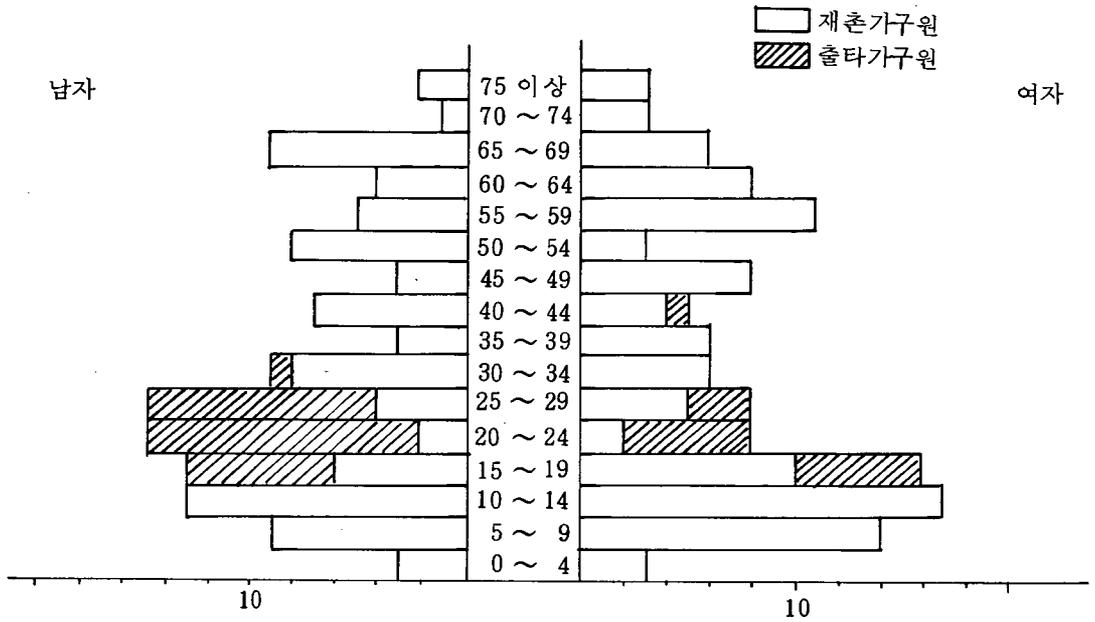
가구원의 출타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를 본 것이 <그림 2-3>이다. 정상적 인구 피라미드 형태인 다이아몬드형 또는 종형과 비교해 볼 때 30~40대의 인구가 적은 것은 가구이촌(또는 이촌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의 영향이고 20대가 적은 것은 부 분이촌 때문이다.

다. 동족구성

야화 2리는 원래 주막거리의 장터마을에서 출발하여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전통가문은 없다. 단지 일제시대에 지주였던 平山 申氏 집안과 4~5대에 걸쳐 비교적 마을에서 오래 산 水原 白氏, 金海 金氏, 全義 李氏를 제외하면 대부분 각성인 부락이다. 이 상에 열거한 성씨들도 마을내에서 특권집단을 형성한다든지 양반층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한다. 지주였던 平山 申氏家の 경우에도 일제시대에 경제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반족으로 행세하지는 못하였고 농지개혁후에는 완전히 그 위세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平山 申氏는 모두 5호로 27, 28번 가구는 형제간이며 39번은 이들의 조카, 34, 48번은 친척간이다. 金海 金氏는 5호로 이 중 3, 11, 36번은 형제간, 20번, 54번은父子 사이다. 水原 白氏는 모두 6호(이 중 24번은 이촌)로 19, 52번이 형제간, 50, 53번이 형제간이며 이들은 사촌간이다. 24, 32번도 형제간이다.

그림 2 - 3 부분이촌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제 3 장

경제활동구조

1. 경지소유 및 이용

가. 역사적 배경

야화 2리는 충남의 대표적인 들판인 논산군 채운면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의 일차적 침탈대상이 되었었다. 원래 이 부락에는 1920년대에 조선인 지주(신석순)가 성장하여 최고 600마지기까지 소유지를 늘렸으며 그중 일부는 머슴을 고용하여 직접 경작하고 일부는 소작을 주어 운영을 하였었다. 이 지주는 1930년경부터 이웃마을 지주와 재산다툼이 있어 장기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유지의 대부분이 동척을 통하여 下條, 森, 西原, 猿丸, 力林 등 일본인 지주에 넘어갔다. 신석순씨의 소유지는 100마지기 정도로 줄었으며 이것도 4명의 아들들을 분가시키면서 분할해주고 본인은 자작지를 가지고 일본인 지주의 마름으로 전락하였다.

이결과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일인 소유지의 소작인이었고 자작농은 신석순을 비롯하여 3호, 자작겸 소작농이 1호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전후까지 계속된다

이들 일본인 소유의 농지는 미군정시기에 귀속농지로서 대부분 소작인에게 분배됨으로써 지주제가 청산되고 자작농제가 출발되었다. 이때 분배된 면적은 96,600평으로

38호가 분배받았다.)¹⁾

이후 농지개혁시에는 15호가 12,500평의 농지를 추가 분배받았다.

나. 농지 소유구조

마을내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농지소유계층은 <표 3-1>과 같다. 야화 2리는 농가간 경지소유규모의 차이가 큰 편으로 경지가 없는 가구가 많은 반면 2.0ha 이상의 경지를 소유한 가구 비율도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에 걸쳐 양극의 호수가 증가하고 중간층은 감소하여 분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8년의 경우에는 1.5ha 이상의 6호(15.0%)가 총경지의 45.4%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0.5ha 미만의 19호(47.5%)가 9.2%를 소유하고 있어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호당 평균 소유면적은 조사기간중 2,531평에서 2,188평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지를 소유하지 않던 비농가가 임차를 통해 영농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3 - 1 농지소유규모계층의 변화¹⁾

단위 : 호

1988 1985	무경지	0.5 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전 출	계
무 경 지	16						1	17
0.5ha미만		9	1					10
0.5~1.0		1	6	1			1	9
1.0~1.5			2	6				8
1.5~2.0				1	1	2		4
2.0~3.0					1	2		3
전 입	2	1						
계	18	11	9	8	2	4		52

1) 비농가를 포함한 분포임. 비농가 소유지는 1985년 2호 2,800평, 1988년 4호 9,570평임.

1) 분배농가는 소작권을 가진 농가로 분배상한은 6,000평이었다고 한다. 자작농 2호와 소작권을 갖지 않은 6호는 전혀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

표 3 - 2 농지소유구조¹⁾

단위 : 호, 평

구 분	1985			1988		
	호 수 (%)	총면적(%)	호당평균면적	호 수 (%)	총면적 (%)	호당평균면적
무 경 지	7(18.4)	0 (-)	0	10 (25.0)	0 (-)	0
0.5 ha미만	8(21.1)	7,637(7.9)	955	9 (22.5)	8,057 (9.2)	895
0.5 ~ 1.0	8(21.1)	15,205(15.8)	1,901	9 (22.5)	17,090 (19.5)	1,899
1.0 ~ 1.5	8(21.1)	29,499(30.7)	3,687	6 (15.0)	22,614 (25.8)	3,769
1.5 ~ 2.0	4(10.5)	21,763(22.6)	5,441	2 (5.0)	11,546 (13.2)	5,773
2.0 ~ 3.0	3(7.9)	22,083(23.0)	7,361	4 (10.0)	28,227 (32.2)	7,057
계	38(100.0)	96,187 (100.0)	2,531	40(100.0)	87,534 (100.0)	2,188

1) 비농가 제외

조사기간중 경지면적이 변동한 가구는 모두 16 호이다 (1 호는 증감이 동시에 있었음). 증가한 가구는 모두 8 호로 단순히 대토를 한 1 호를 제외하면 구입자금은 주로 쌀계 등을 통한 저축으로 충당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자녀보조나 농지구입자금 등 부채

표 3 - 3 농지소유 증가가구의 개황

가구 번호	경영주연령 (변동시)	소유면적 (평)			변동년도	비 고 (구입자금)
		변동전	변동후	증가면적		
2	65	5,150	6,350	1,200	1986	쌀빛받은 돈으로 구입 (1,260 만원)
5	60	5,970	7,210	1,240	1987	저축한 돈으로 구입 (1,420 만원)
17	55	3,214	3,246	32	1988	대토 (돈은 226 만원 남음)
23	50	3,200	3,600	400	1987	농협융자 (210 만원), 저축 (40만원)
26	59	780	1,990	1,210	1987	장남이 지원 (800 만), 부채 (300만), 저축 (400 만)
27	49	6,710	7,910	1,200	1986	쌀계 등 저축 (1,340 만원)
30	50	1,575	2,775	1,200	1987	자녀보조로 저축 (1,035 만원), 부채 (330 만원)
34	51	2,775	3,600	825	1988	농지구입자금 (650 만), 일부 대토
	42	4,650	5,600	950	1988	농지구입자금 (650 만원), 쌀계탄돈 (850 만원)

표 3-4 농지소유 감소가구의 개황

가구 번호	경영주연령 (변동시)	소유면적(평)			변동년도	비 고(자금용도)
		변동전	변동후	감소면적		
1	67	2,300	1,870	430	1988	부채 상환(교육비)
3	65	4,485	4,025	460	1988	아들 결혼비용(850만원)
7	70(여)	3,800	1,600	2,200	1988	동거아들 분가(아들은 이촌후 일부 판매)
11	61	8,157	6,757	1,400	1988	아들 결혼비용(1,200만원),부채청산
15	70	7,216	5,896	1,320	1987	아들에게 상속몫으로 증여
19	38	3,200	2,000	1,200	1986	동생들에게 분가몫으로 증여
20	63	5,343	4,143	1,200	1988	아들에게 상속몫으로 증여
34	40	5,300	4,650	650	1986	분가동생에 증여(1,200평 구입농지 와 동시에)
35	57	1,700	500	1,200	1986	부채 청산(교육비, 버섯 수지 약화)

차입으로 충당하였다. 한편, 면적이 감소된 가구는 9호로 이 중 5호는 분가 형제, 자녀에 대한 증여로 인한 것이고, 자녀 결혼비용 충당이 2호, 나머지 2호는 영농실패 등으로 인한 부채의 상환에 쓰여졌다.

지가는 조사기간중 크게 상승하였다. 중답이 1985년에는 평당 8,000원 정도이던 것이 1987년 말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13,000~15,000원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지가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이 지역에서는 신도안에서 이주한 주민들의 농지수요가 상승을 가속시켰다고 한다.

다. 경작규모 및 임대차

야화 2리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ha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작은 편이다. 거의 완전히 경지정리가 되어 기계화율이 높은 조건을 감안한다면 평균 경지면적의 협소는 의외의 일이다. 이것은 마을이 논산근교에 위치하여 생활여건이 비교적 편리하고 또 겸업농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²⁾

2) 1988년의 경우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 11호중 6호가 겸업농이며 0.5~1.0ha층 9호중 4호가 겸업농이다.

표 3-5 평균 경지면적의 변화

단위 : 평/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88/85
소 유 면 적	2,531	2,328	2,332	2,188	0.86
임 대 면 적	32	41	104	110	3.44
임차면적 (A)	756	886	877	1,270	1.68
경작면적 (B)	3,255	3,173	3,105	3,348	1.03
임차지율 : A/B %	23.2	27.9	28.2	37.9	-

표 3-6 경작규모계층의 변화(I)

단위 : 호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전국 %
0.5 ha 미 만	9(23.7) ¹⁾	9(21.4)	12(30.0) ²⁾	11(27.5) ³⁾	29.5
0.5 ~ 1.0	9(23.7)	13(31.0)	11(27.5)	9(22.5)	34.3
1.0 ~ 1.5	10(26.3)	12(28.6)	6(15.0)	6(15.0)	20.6
1.5 ~ 2.0	5(13.2)	3(7.1)	4(10.0)	6(15.0)	9.0
2.0 ha 이 상	5(13.2)	5(11.9)	7(17.5)	8(20.0)	6.6
계	38(100.0)	42(100.0)	40(100.0)	40(100.0)	100.0

1) 2) 3) : 무경지농 각각 1호씩 포함.

호당 소유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경작면적은 1986/87년에는 약간감소하였다가 1988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작면적의 증가는 임차지의 확대 때문으로 임차면적은 1985년의 호당 756평에서 1,270평으로 68% 증가하였다.

규모계층별 농가수를 보면 야화 2리는 전국 평균에 비해 1.5 ha 이상의 상층이 약간 높게 나타나며, 해가 지날수록 1.0 ~ 1.5 ha의 중간층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0.5 ha 미만의 영세농층과 1.5 ha 이상의 중대농층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더 자세히 보면 <표 3-7>에서와 같다. 즉 1985년을 기준으로 할 때 0.5 ha 미만층은 계층상승이 1호에 불과하고 3호(33.3%)가 탈농하였으며, 1.0 ~ 1.5 ha 층에서는 10호중 2호가 탈농하였지만 5호는 계층상승을 하였고, 1.5 ~ 2.0 ha 층에서는 5호중 3호에서 계층상승이 일어났다. 전체적으로 탈농은 1.5 ha 미만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이 마을에서는 1.0 ha ~ 2.0 ha 층에서 규모확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한정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표 3-7 경작규모계층의 변화(Ⅱ)

단위 : 호

1985 \ 1988	0.5 ha 미 만	0.5 ~ 1.0	1.0 ~ 1.5	1.5 ~ 2.0	2.0 ha 이 상	탈· 농	계
0.5 ha 미만	5	1				3	9
0.5 ~ 1.0	1	5	1	1		1	9
1.0 ~ 1.5		1	2	3	2	2	10
1.5 ~ 2.0	1			1	3		5
2.0 ha 이상			1	1	3		5
신규 참여	4	2	2				-
계	11	9	6	6	8	-	38
							40

조사기간중 경작면적이 1,000평 이상 변동된 가구의 내용은 <표 3-8>과 같다. 규모가 확대된 농가는 12호로 이 중 구입에 의한 경우가 4호, 임차를 통해 확대한 경우가 6호, 나머지 2호는 일부 구입, 일부 임차에 의해 규모를 확대하였다. 임차지를 증가한 농가 8호중 6호는 40대의 젊은 층이며 이 중 1호는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임차지를 확대하였다.

한편 경지규모가 축소된 농가는 6호로 이 중 경영주가 50대 후반 이상인 4호는 노령화로 인해 소유지를 판매, 임대하거나 자녀에 상속하여 경작규모를 줄였으며, 30~40대의 2호는 농외취업으로 임차지를 축소하거나 경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다.³⁾

농지임차면적의 변화는 <표 3-9>와 같다. 임대차는 거의 논에서 이루어지며, 조사기간중 77%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임대차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농가간 노동력조건과 경영능력의 차이가 확대되는 한편 부채지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화 2리에서는 부채지주의 소유면적이 재촌지주보다 많지만 그 증가율은 재촌지주쪽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임대차의 확대에 따라 농가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1985년에는 자작농이 57.9%이던 것이 해마다 감소하여 1988년에는 37.5%로 줄어들고 반면 임차농은 60%로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작농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3) 이외에 탈농, 이촌가구에 대해서는 2장 참조.

표 3 - 8 경작규모 변동농가의 변화내용

구 분	가 구 변 호	경 영 주 연 령 ('85기준)	경 작 면 적 (평)			변 동 사 유
			1985	1988	증 감	
규모확대 (1,000평 이상)	2	64	5,150	6,350	1,200	농지구입
	4	46	4,000	5,200	1,200	노령가구 농지 임차
	5	58	5,970	7,210	1,240	농지구입
	8	42	4,000	6,600	2,600	노령가구 농지 임차, 콤바인 등 기계 구입
	18	48	2,600	5,200	2,600	노령가구 농지 임차
	23	48	3,200	4,300	1,100	농지구입 (400 평), 일부 임차
	26	56	3,600	4,790	1,190	농지구입
	27	48	6,710	7,910	1,200	농지구입
	30	48	3,975	7,200	3,225	농지구입 (2,025 평), 임차지 확대
	31	63	947	2,347	1,400	외지인 농지 임차
33	64	3,000	5,000	2,000	노령가구의 농지 임차	
36	49	2,000	3,200	1,200	이촌 조카의 농지 임차	
규모축소 (1,000평 이상)	7	38→70	6,900	3,400	△3,500	소유지감소, 아들, 며느리 이촌하고 여성노인 독신가구
	11	58	8,157	6,757	△1,400	노령화로 일부 임대
	15	68	7,216	5,896	△1,320	자녀상속으로 소유지 감소
	19	37	4,700	500	△4,200	경영주 농외취업 (미장이), 축산확 대로 임차농에서 일부임대로 바뀜
	28	40	3,000	1,800	△1,200	경영주 농외취업, 기계판매로 임차 지 축소
35	56	2,900	500	△2,400	경영주 부부은퇴 (노동력 감소), 농지판매	

표 3 - 9 임차면적의 변화

단위 : 평

구 분	1985	1986	1987	1988	88/85
논	28,730	35,020	35,063	50,581	1.76
밭	0	0	0	200	-
계	28,730	35,020	35,063	50,781	1.77
임 차 지 비 율	23.2	27.9	28.2	37.9	-

표 3-10 지주의 거주지별 임대면적

단위 : 평 (%)

구 분	1985 (A)	1988 (B)	B/A %
재촌지주 ¹⁾	8,650 (30.1)	22,100 (43.5)	2.55
부재지주	20,080 (69.9)	28,681 (56.5)	1.43
중 중 토	0 (-)	0 (-)	-
국·공유지	0 (-)	0 (-)	-
계	28,730 (100.0)	50,781 (100.0)	1.77

1) 지주가 조사부락의 이웃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지주에 포함시켰음.

표 3-11 임대차에 의한 농가구분

단위 : 호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임 대 농	0 (-)	0 (-)	0 (-)	0 (-)
자대농 (지주겸자작)	0 (-)	1 (2.4)	4 (10.0)	1 (2.5)
자 작 농	22 (57.9) ¹⁾	19 (45.2)	16 (40.0) ²⁾	15 (37.5) ³⁾
자차농 (자작겸소작)	9 (23.7)	13 (31.0)	12 (30.0)	15 (37.5)
임차농 (순소작농)	7 (18.4)	9 (21.4)	8 (20.0)	9 (22.5)
계	38 (100.0)	42 (100.0)	40 (100.0)	40 (100.0)

1), 2), 3) 경종의 농가1호 포함.

표 3-12 임차농의 임차면적 규모

단위 : 호 %

구 분	1985	1988
0.5 ha 미 만	8 (21.1) ¹⁾	12 (30.0)
0.5 ~ 1.0	5 (13.2)	6 (15.0)
1.0 ~ 1.5	3 (7.9)	4 (10.0)
1.5 ~ 2.0	0 (-)	1 (2.5)
2.0 ha 이 상	0 (-)	1 (2.5)
계	16 (42.1)	24 (60.0)
평균임차면적	1,796 평	2,116 평

1) 백분율은 전체농가수에 대한 비율임.

표 3 - 13 부재지주의 농지취득경위, 1988

단위 : 평, 건

구 분	· 면 적 (%)	건 수	전 국 00
영농후이촌	14,713 (51.3)	11	65.9
이촌후상속	5,100 (17.8)	5	
구 입	8,868 (30.9)	7	34.1
계	28,681 (100.0)	23	100.0

임차농가의 증가와 함께 호당 임차지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5년에는 대부분의 임차농이 1.0 ha 미만을 빌리고 있음에 비해, 1988년에는 1.5 ha 이상의 대규모 농지를 임차한 농가도 나타난다. 이와 함께 호당 평균 임차면적도 2,116 평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야화 2리의 임대차에서는 부재지주의 소유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는가 <표 3-13>에 의하면, 부재지주 소유지의 절반정도가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촌한 가구들이 팔지 않고 보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외지인의 구입에 의한 것은 30.9%를 점하고 있다.

야화 2리에서 농지의 임대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수도작을 위한 봄부터 가을까지의 임대차이고, 하나는 답리작 딸기재배를 위한 가을에서 봄까지의 임대차다. 답리작 임대차는 예전에는 중대농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영세농에 무료로 빌려주다가, 해당 면적에 모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반화 된 것이 '80년대 초반이었다. 그후 기계화가 일반화되면서 200평당 만원에서 2만원까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지소유자들이 답리작 임대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그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⁴⁾

본답의 임대차 관행은 <표 3-14>와 같다. 이 마을에서 지배적인 형태는 정조로 현

4) 이 면적은 1986년 5가구 6,700평에서 1988년에는 2가구 1,000평으로 감소하였음. 소유주가 꺼리는 이유는 질소비료의 과다투입으로 벼가 도복되는 일이 많은것 때문이라 하며, 다른 지역에서 답리작 임차료가 200평당 쌀 1.가마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작용한 듯함.

표 3-14 임차료 지불형태

단위 : 건

구 분		1985	1988
정 조	현 금	10 (43.5)	28 (68.3)
	현 물	7 (30.4)	7 (17.1)
타 조 (현 물)		3 (13.0)	1 (2.4)
제 사 · 선 산 관 리 등		1 (4.3)	0 (-)
무 료		2 (8.7)	5 (12.2)
계		23 (100.0)	41 (100.0)

표 3-15 농지임차료 지불액, 1988

단위 : 천원

구 분	임 차 료 액 (%)
재 촌 지 주	14,819 (40.4)
부 재 지 주	21,829 (59.6)
계	36,648 (100.0)

지에서는 이를 '선자'라고 하여 농사철이 시작되기 이전의 가을이나 겨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임차료를 미리 지불하고 경작권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차료 수준은 200평당 80kg 백미 2가마로 수확량의 50% (선분이므로 이자를 계산하면 60%)에 해당된다. 현금지불 형태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현물을 기준으로 정부 구매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대금납)현물지대에 가깝다. 또한 담리작 딸기 재배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약간 더 지불하기도 한다.

1988년의 총 지불임차료는 3,664만 8천원으로 이 중 부재지주에의 지불액은 2,182만 9천원이다.

2. 작목구성

가. 주요작목의 변천

야화 2리는 전형적인 담작지역에 위치하여 밭이 없기 때문에 작목구성이 단순한 편이다. 논은 대부분이 수도단작으로 이용되며 일부에서 담리작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딸

기, 참외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밖에 몇몇 농가들이 버섯재배, 비육우, 양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야화 2리에서도 논의 관행적 작부체계는 벼 단작, 또는 벼+보리의 이모작이었다. 보리는 특히 영세농 계층의 식량, 소득 보완 작물로서 중요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답리작 보리를 심지 않게 된 것은 조생종 벼품종이 보급되면서 보리의 수확기와 벼 이앙기가 겹쳐 노동력부족이 심하여지고, 노임의 상승으로 보리재배의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답리작 딸기가 도입된 결과이다.

비닐하우스 딸기는 이웃 용화리에서 박상○씨가 1970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이 마을에서는 1971년에 이○만씨(당시 34세, 소유지 527평의 영세농)가 박씨로부터 배워 도입하였다. 이씨는 5동(1,000평)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매년 백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려 5) 1978, 79년에는 1,048평의 논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만씨의 성공에 자극받아 1975년부터는 4~5호의 농가가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1979년경에는 30여호에서 3만여평을 재배하여 마을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딸기재배는 조금씩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딸기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6) 둘째, 노동력 부족, 셋째, 바이러스병의 발생으로 딸기묘를 외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증가 등이다. 현재는 10여호에서 만여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작목도 딸기 일변도에서 참외, 수박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참외는 전○돈씨가 1983년에, 수박은 백도○씨 등 2명이 1987년에 처음 시도하였다.

1977년에는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부여, 논산지역에 양송이가 대대적으로 보급되면서 7) 마을에서도 전○돈씨와 백수○씨(1978년 시작)가 참여하였다. 양씨는 각각 280평과 210평 규모의 재배사를 신축하고 생산에 들어갔으나 1980년부터 양송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등급화가 까다로워져 1981년에 중단하였다. 양송이 생산에 늦게 참여하고 전액 자기자본으로 출발한 백수○씨는 이 여파로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러 서울로 이주하였다. 전○돈씨는 양송이재배사를 이용하여 1982년부터

5) 1973년의 전국평균 농업소득은 39만원, 1977년에 104만원이었음.

6) 1980년 판매가격 관(3.75kg)당 3,800원대에서 1989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 동기간중 관련자재류가격은 1.3~1.5배, 노임은 2배 이상 상승하였음.

7) 부여군 석성면에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양송이 생산 및 가공공장을 설립하였음.

느타리버섯을 재배하여 8) 상당한 소득을 올렸으나 1987~88년 사이에 병이 발생하여 수확이 줄자 '89년에는 중단하였다.

나. 조사기간중 작목구성의 변화

1985~88년간의 작목별 식부면적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은 밭의 면적이 1,900여평에 불과해 미곡단작(rice monoculture)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밭에서는 자급용 두류, 배추, 고추, 참깨 등을 약간씩 재배하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들은 대지내 공터(채마밭)를 이용하여 봄채소와 김장채소를 10~20평씩 심고 있다.

답리작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딸기를 심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 그 면적은 1986년의 가격하락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답리작 참외를 2~3가구에서 하였으나 1987년에 가격이 하락하여 9) 1988년에는 전혀 심지 않게 되었다. 이밖에 논에서 벼농사를 짓지 않고 수박, 오이를 재배한 농가가 1987년에 처음 3호(3,000평) 나타났으나 7월말의 수해로 비닐하우스가 만 하루이상씩 물에 잠기는 바람에 실농하여 300만원 이상씩의 손해를 보고 다음해에는 모두 중단하였다. 딸기, 수박, 오이 등의 판매는 80% 이상이 논산의 상인에게 위탁판매한다. 일부는 서울로 직접 가져가기도 하나 물량이 적고, 논산 상인에 자금을 빌려쓰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자금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논산 상인에 판매한다. 10)

이밖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1호(35번) 있다. 이 농가는 영농후계자 농가이기도 한데 1977~81년까지는 양송이를 재배하다 1982년부터 느타리버섯으로 전환하였다. 재배사는 280평에 4동을 세웠으며 1~6월과 8~12월의 2회에 걸쳐 종균을 놓고 수확한다. 1회의 평균비용은 250만원~350만원 11), 조수입은 550~700만원으로

8) 느타리버섯의 도입은 이웃 용화리의 이상○씨를 통해서였다.

9) 이 마을에서 참외의 출하시기는 5월로 관당가격이 1986년 2,000원에서 '87년에는 1,500원 미만으로 떨어져 200평당 조수입이 50만원에 못미침.

10) 딸기는 수확후 큰 함석자배기에 15kg(4관)단위로 담아 꼬리표 등으로 판매자를 표시한 후 길가에 놓아두면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 실어가며 다음날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정산한다.

11) 종균 2,800 파운드×300원=84만원, 유류대 48만원, 질 100~200만원, 인건비 100명내외 50만원

표 3 - 16 경종작목별 식부면적*

단위 : 평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 (B)		B/A %
					호당평균		
미	곡	119,660	126,452	117,073	129,245	3,231	108.0
맥	곡	0	0	300	0	0	-
잡	곡	0	0	0	0	0	-
두	류	420	750	450	450	11	107.1
서	류	200	550	100	100	3	50.0
채	딸	9,940	13,500	10,280	8,142	204	81.9
	참외, 수박, 오이	2,400	5,200	7,400	0	0	0
소	기 타 채 소	800	700	1,640	1,900	48	237.5
	특 용 작 물	0	100	50	570	14	-
총 식 부 면 적		133,420	147,252	137,293	140,407	3,510	105.2

* 텃밭에 심은 채소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았음.

250 ~ 400 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그러나, 1987년, 1988년에는 병이 생겨 수확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1989년에는 중단하였다.¹²⁾ 판매시장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이웃마을 생산자와 공동출하해 위탁판매하였다.

축산은 비육우와 양돈이 소규모로 영위되고 있으며 2 농가가 닭,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소는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역우로서의 용도가 없어져 사육호수와 마리수가 줄고 있다. 사육호수는 1985년 11호(그중 5마리 이상 4호)에서 1988년에는 3호로 감소되었다. 이 중 백○현씨(19번, '85년 37세)는 2,000평을 소유한 영세농으로 비육우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사육규모는 '85년 10마리에서 25마리로 늘었다. 돼지는 8호에서 33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전업적 농가는 없다. 30대인 신○석씨(48번)와 송○석씨(51번)가 1,500만원씩 공동투자하여 계사 10동(450평)을 짓고 1986년부터 오리와 닭을 치고 있다. 1986년과 1987년 상반기에는 오리를 키웠으나 가격하락으로 실패하였고, 1987년 하반기에는 닭을 10,000수 사육하였으나 마리당 500 ~ 530원을 받고 판매하여 또 5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 1988년에는 7회에 걸쳐

12) 이결과 경영주 부부는 '89년부터 농사를 그만두고 부여에 있는 딸의 약국을 도와주러 나갔으며, 큰아들 부부가 양어를 위해 밭 500평을 양어장으로 만들고, 사료를 이용해 개 30마리를 키우고 있었음('89. 3)

1만~2만수씩 길러 총 1억 3천만원의 조수입을 올림으로써 4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 병아리는 은진의 부화장에서 가져오며 50일정도 사육후 서울, 부산 등지에서 온 수집상에게 판매한다.

이밖에 1988년에는 개를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총 24호에서 135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이 중 10마리 이상을 기르고 있는 집도 4호가 되었다. 먹이는 주로 구입사료에 의존하고 별다른 축사없이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사육되고 인근 음식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비육우, 양돈 등의 수익성이 낮아가고 가격이 불안정한 것때문에 대체소득원으로 선택한 것이지만 악취, 소음, 배설물 등으로 마을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3-17 가축사육두수

단위 : 마리

구 분		1985	1986	1987	1988
한 우	총 마리 수	38	43	26	28
	호 당 평 균	1.00	1.02	0.65	0.70
돼	지	30	9	12	33
	닭 1)	-	-	10,000	85,000
오	리 2)	-	3,000	1,500	-
축 산 농 가 수 3)		5호 (13.2%)	6호 (14.3%)	6호 (15.0%)	6호 (15.0%)

1), 2) 연간 출하량 기준

3) 소 2마리 또는 돼지 6마리 이상 사육농가로 하였음.

3. 노동력구조와 이용

가. 농업노동력 구조

야화 2리 마을 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표 3-18>과 같다. 이 마을은 논산 근교에 위치하고 교통이 좋아 비농업 취업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1985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인구 232명중 15세 이상의 인구가 156명으로 이 중 106명(15세이상 인구의 67.9%)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취업인구중 81명은 농업에, 10명은 농업과 비농업의 양쪽을 겸업하고 있으며 비농업종사자는 15

표 3 - 18 마을주민의 경제활동

단위:명, (%)

구 분		1985			1988		
		농 가	비농가	계	농 가	비농가	계
총 인 구		174	58	232(100.0)	161	35	196(100.0)
15세 미만 인구		56	20	76(32.8)	45	14	50(30.1)
15세 이상 인구	취업	농 업	4	81(34.9)	3	71(36.2)	
		농업 + 비농업	9	10(4.3)	7	8(4.1)	
		비농업	5	15(6.5)	10	19(9.7)	
		소 계	91	106(45.7)	85	98(50.0)	
	비취업	실업(취업대기)	0	2(0.9)	3	3(1.5)	
		학생	16	20(8.6)	15	15(7.7)	
		주부	3	11(4.7)	2	4(2.0)	
	노령	7	16(6.9)	10	16(8.2)		
	기타(질병, 군복무)	1	1(0.4)	1	1(0.5)		
	소 계	27	50(21.6)	31	39(19.9)		

명이다(비율은 76:9:14). 취업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노령층, 주부의 순이다. 특히 주부의 경우는 비농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령층은 비농가 중에서도 지주, 기타가구에 포함되어 농가와 비농가의 경제활동 구조가 다를 수 있다. 15세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농가가 77.1%인 반면 비농가는 39.5%에 불과하다. 1985~88년간에 전체적 구성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경제활동 참여비율 특히 비농업 취업인구가 약간 늘어났고, 비취업 인구중 주부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노동력조건이 열악화 가운데 그 이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가사에만 전념하던 비농가의 주부들이 영농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영농종사자수는 상대적 비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절대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3년간 총 감소인원은 11명으로 연평균 4.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증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증가요인이 24명, 감소요인이 35명이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재촌탈농으로 이들 중 일부는 비농업에 취업하고 일부는 농업노동자화 하였다. 이들의 탈농이유는 경작지 협소로 농업소득이 불충분한 경우와 기계화의 진전

으로 임차지를 얻기가 어려워진 경우가 있다. 그 다음 노령화로 자녀들에게 맡기고 은퇴하거나, 농지를 모두 임대해준 경우가 10명이고, 전출로 인한 감소는 8명이다. 한편 증가요인은 대부분 전업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영농노동자가구 또는 비농가의 영농참여, 가사부담이 완화된 주부의 영농참여 등이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야화 2리에서의 영농노동력 증감은 전출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마을 내부에서의 전직, 가구의 성격변화, 노령화 등이 작용한 것이다.

영농종사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야화 2리는 비교적 노령화가 심하지 않은 편이나 조사기간중 노령노동력에의 의존도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 19 영농종사자수

단위 : 호, 명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농 가 호 수	38	42	40	40
농 가 가 구 원 수 (A)	174	185	173	161
영 농 종 사 자 수 (B) ¹⁾	86	85	81	75
호 당 평 균 종 사 자 수	2.26	2.02	2.03	1.88
영농참여율(B/A%)	49.4	45.9	46.8	46.6

1) 비농가의 영농노동자는 제외하였음.

표 3 - 20 영농종사자 증감원인

단위 : 명

구 분	'85/'86	'86/'87	'87/'88	계	
증 가 (A)	전 입	2	1	-	3
	전업 (재촌)	11	6	4	21
	소 계	13	7	4	24
감 소 (B)	전 출	3	3	2	8
	노 령 화	4	4	2	10
	재 촌 탈 농	5	4	5	14
	사 망	1	1	1	3
	소 계	14	11	10	35
순 증 감 (A - B)	△ 1	△ 4	△ 6	△ 11	

표 3-21 영농종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명(%)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증감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60세 이상	11	6	17(19.8)	11	5	12	8	12	7	19(25.3)	2
50 ~ 59	10	14	24(27.9)	9	14	10	11	10	12	22(29.3)	△ 2
40 ~ 49	10	11	21(24.4)	12	9	7	10	6	9	15(20.0)	△ 6
30 ~ 39	6	9	15(17.4)	7	10	10	10	7	8	15(20.0)	0
30세 미만	7	2	9(10.5)	5	3	1	2	1	3	4(5.3)	△ 5
계	44	42	86(100.0)	44	41	40	41	36	39	75(100.0)	△ 11

표 3-22 경작규모별 영농종사자수

단위:호

구 분	0.5 ha미만	0.5~1.0	1.0~1.5	1.5~2.0	2.0ha이상	계또는평균
영 농 종사자수	1	4	3	1	-	9
	2	6	6	4	6	28
	3	1	-	1	-	2
	4	-	-	-	-	1
호 수	11	9	6	6	8	40
평균 종 사 자 수(A)	1.73	1.67	2.00	2.00	2.13	1.88
평균 경 작 면 적(B)	774	1,994	3,638	5,100	6,879	3,348
M/L비율(B/A)	448	1,196	1,819	2,550	3,237	1,786

한편 30세 미만의 남자가 7명에서 1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 중 2명은 이촌, 4명은 연령층 상승이었으며, 새로운 젊은 참여자는 전혀 없었다.

경작규모별 영농종사자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마을은 수도작 중심으로 대부분이 기계 임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정도의 관리능력만 보유하고 있으면 영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고용노동과 노동관행

야화 2리에서 공동체적 농작업집단인 두레는 1950년대 초반 농지개혁 후에 소멸되었다. 따라서 농가간의 노동력 교환은 품앗이와 고지제가 주종을 이루었다. 고

지제는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미리 이양기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행해졌으나 1986년 이후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반 고용제도로 바뀌었다. 마을내에 공동노동조직이 발달하지 않고 두레가 일찍 소멸된 것은 마을이 원래 자작농이 중심이 되는 동질적 성격을 갖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 건축노동을 많이 다니는 등 도시화의 영향이 큰 사실들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야화 2리의 고용노동관계는 조사기간중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5년까지는 수도권 기계화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고용노동력에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1986년부터는 고용일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외의 부문에서는 1986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그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86년의 감소는 수도권에서의 노동력 수요 감축으로 자가노동력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며 1988년의 증가는 양계농가가 연고를 포함해 3명정도를 상시 고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외부노동력 고용일수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다. 기계화의 진전으로 수작업에의 의

표 3-23 고용노동과 품앗이

단위 : 연인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88/85
고 용	총 고용노동일수 (A)	2,337	1,135	1,069	2,159	0.92
	미 작	1,406	550	368	359	0.27
	미 작 외	931	585	701	1,800 ¹⁾	1.93
	피 고용노동일수 (B)	237	558	394	308	1.30
순 고용일수 (A-B)		2,100	577	675	1,851	0.88
노 동	호당 총 고용 평균 순 고용	61.5	27.0	26.7	54.0	-
		55.3	13.7	9.9	46.3	-
동	외부노동력 고용일수 (C)	996	200	327	586	0.59
	C / A (%)	42.6	17.6	30.6	27.1	-
품 앗 이	총 품앗이 수	-	365	304	136	0.37 ²⁾
	모 내 기	-	182	115	41	0.23
	벼 베 기	-	8	6	3	0.38
	기 타	-	175	183	92	0.53

1) 이중 705일은 딸기, 1,095일은 양계임.

2) 1986년 대비 비율임.

존도가 줄어든 결과 마을내에서 모내기철의 노동력동원과 일자조정에 큰 역할을 하던 “모개비” 4명중 1명(10번)은 '86년에 이촌하였고, 1명(44번)은 건축노동(미장이)으로 전업하였으며 2명(9, 45번)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전문적 기계 임작업자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도 수반되었다. 고용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딸기재배에서는 육묘와 제초, 수확작업시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 육묘는 바이러스병을 피해 외지의 고냉지에서 길러오는데¹³⁾ 묘판 설치와 제초작업에 현

표 3-24 연간 50일이상 고용농가의 개황, 1988

가구 번호	경영주 연령	경지면적(평)		노동력	고용 일수	영농사항
		소유	경작			
5	61	7,210	7,210	남 61세, 여 57세	60	못자리, 이양보식, 방제에 고용, 모두 수도작
18	51	2,600	5,200	남 51세, 여 45세	90	벼 5,000 평, 딸기 500 평, 경영주 농외취업(4~9월)으로 수확 때 고용
20	63	4,143	6,756	남 63, 42세, 여 62, 39세	68	벼 6,556 평, 딸기 1,110 평, 딸기 제초, 수확시 고용
28	43	1,000	1,800	여 39세	50	벼 1,800 평, 답리작 배추 600 평, 경영 주 농외취업으로 노동력 부족
30	51	3,600	7,200	남 51세, 여 45세	140	벼 7,200 평, 딸기 1,000 평, 딸기제초, 수확시 고용
32	50	1,830	2,130	남 50세, 여 44세	55	벼 1,930 평, 딸기 600 평, 딸기육묘, 수확시 고용
33	67	0	5,000	남 67세, 여 58세	66	벼 4,000 평, 딸기 1,000 평, 딸기이식, 수확시 고용
42	34	0	3,000	남 34세, 여 31세	205	벼 3,000 평, 딸기 1,200 평, 모내기 일부 수작업(10명), 딸기제초, 수확시 고용
48	37	0	900	남 37세, 여 66세	1,095	양계 85,000 수(연간 출하) 연고(남자) 1명, 일고(여자) 2명 계속 고용
51	67	0	900	남 35세		

13) 1975년까지는 마을내에서 길렀으나 1976~81년에는 주로 연산면 백석리에서, 1982~88년까지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서 재배한다. 본포 1,200 평에 이식하기 위한 묘포면적은 400 평으로 임차료로 쌀 80kg 4가마를 선불로 지불한다.

지노동력을 고용한다. 이식작업은 9월말~10월중순까지로 200평당 2명이 필요하며, 제조작업은 3~4월에 걸쳐 5~7회 실시되며 200평당 10~15명의 노동력이 투입된다.

수확은 4월 10일~5월 20일 사이에 2~3일에 1회씩 하며, 200평당 반나절 품으로 2명이 투입된다. 딸기 제조작업에서는 품앗이도 상당수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력을 연간 50일 이상 고용한 농가는 10호이며 이중에는 100일 이상 고용한 농가도 4호 있다. 기계화로 인해 수도작에서 대량 고용이 일어난 경우는 1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딸기 등 특작과 양계에서 고용노동을 쓰고 있다. 한편 50일 이상 노동력을 판매한 가구는 농가 2호, 비농가 2호로 이들은 주로 기계를 가지고 임작업을 하고 있다. 비농가 2호에서는 경영주의 기계임작업외에 경영주 부인의 농업노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임은 1985/86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그 이후에는 연 1,000원씩 상승하고 있다. 1988년의 경우 모내기 때는 남여 구분이 없이 8,000원(3식 2참 현물 급여 평가액 4천원 정도 별도), 주로 여자들이 하는 비닐하우스 제조작업은 5천원(1식 1참 또는 2참 현물급여 평가액 1,500원 정도), 딸기묘 운반과 이식작업은 남자 8천원, 여자 5천원 정도이다. 양계장에 상시 고용된 남자는 일당10,000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3-25 50일이상 피고용가구의 개황, 1988

구분	가구 번호	경영주 연령	경작면적 (평)	피고용 일 수	노 동 력 기 타 사 항
농가	8	45	6,600	140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동력분무기를 구입하여 본인 경작지의 연간 140일 기계임작업, 임작업 소득 160만원
	20	63	6,756	60	아들(42세)이 트랙터로 경운, 정지작업, 소득 261만원
비	9	52	0	70	경운기로 방제, 운반작업 연간 30일, 70만원 소득. 부인은 비닐하우스 등 일고 연간 40일, 이외에 경영주 공사판 다님.
농가	45	44	0	160	경영주는 경운기로 경운, 정지, 운반작업(60일, 소득 335만원) 부인은 딸기밭 등 일고(100일, 50만원)

표 3-26 농업노임¹⁾

단위 : 원 / 일

		1985	1986	1987	1988
남 자	모 내 기	6,000	6,000	7,000	8,000
	기 타 ²⁾	6,000	6,000	7,000	8,000
여 자	모 내 기	6,000	6,000	7,000	8,000
	기 타 ³⁾	4,000	4,000	4,500	5,000

1) 현물급여 평가액 별도

2) 주로 딸기묘 운반작업임.

3) 수확작업은 온도가 높아 기피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500 ~ 1,000 원 정도 높게 책정됨.

다. 농업기계화

야화 2리는 호당 논면적이 1.2 ha 이상으로 비교적 넓고, 일찍이 경지정리가 되어 농업기계화의 여건이 좋은 편인데도 1984년까지 농기계보급수준은 낮았다. 이러한 이유는 구매력이 있는 중대농층에서는 농기계를 조작할 젊은 영농후계자가 없고, 또 인근마을의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농기계구입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던 데 있다. 그러다, 1985년에는 이앙기, 1986년에는 콤바인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기계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표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보급수준이 낮아 상당부분의 기계작업은 이웃 마을 기계 소유자의 임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마을의 대표적인 기계작업자는 8번 농가의 이○원씨다. 이씨는 42세 ('85년 기준)의 젊은 경영주로 소유농지는 전혀 없는 영세농이다. 매년 3,000평 내외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며, 1975년에는 경운기, 1981년에는 바인더를 구입하여 임작업으로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충해 왔다. 이웃마을에 이앙기가 들어와 소유자들이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고 1985년에는 160만원(이중 130만원은 융자)을 주고 이앙기를 구입하였으나, 미리 작업의뢰를 받지 않아 당년에는 자경지 4,000평만 작업하고 다음해부터 임작업을 하고 있다. 임작업 면적은 매년 만평 내외('86 12,000평, '87 4,000평, '88 10,000평)로 3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한편, 경작자들이 경운작업에 경운기보다는 트

표 3 - 27 농기계 보급대수

			단위 : 대			
			1985	1986	1987	1988
경	운	기	6	6	5	4 ¹⁾
트	랙	타	1	1	2	2
이	앙	기	1	1	1	1
바	인	다	1	0	0	0
콤	바	인	0	1	2	1
동	력	탈	1	0	0	0
동	력	분	6	5	5	6

1) 이 중 2대는 비농가 소유분.

랙타에 의한 심경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1987년에는 트랙타를 구입하여 연간 만평 정도의 임작업을 하여 5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이외에 1986년에는 신○근씨(28번)와 콤바인을 공동구입하여 작업을 담당했으나 1년후 해체하였고¹⁴⁾

1987년에는 박○열씨(25번)와 공동구입하여 연간 10만평 내외의 임작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 경작지가 6,756평으로 대농인 김○윤씨(20번)의 아들이 1985년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트랙타를 구입하여 매년 6만평 내외의 경운, 정지 임작업으로 2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윤○권씨(9번)와 김○남씨(45번)는 각각 '85년과 '83년에 경운기를 구입하여 경운, 정지, 운반, 방제작업을 하여 연간 100~3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으나, 과노동에 따른 건강문제, 경운작업 의뢰량의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야화 2리는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어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짧고 시간당 작업면적이 커 기계화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마을에 기계보유자가 늘어나 작업량 확보가 쉽지 않고 일부에서는 사용미숙과 잦은 고장 때문에 수리비 지출이 많고 작업량이 적어 큰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¹⁵⁾ 작업별 임작업료

14) 기계인도금 120만원은 신○근씨가 부담하고 이○원씨는 기계작업을 담당하고 매년의 수익금중 용자상환액을 제외한 액수는 이○원씨가 70%를 분배받기로 하였음. 1986년의 임작업면적은 60,000평으로 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분배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

15) 28번 가구는 콤바인을 사용한 2년째에 잦은 고장으로 자신의 경작지 7,910평외에는 임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수확기가 끝난후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와 수리점에 기계를 인계하고 400만원의 미상환 부채를 안고 있다.

표 3-28 수도작 기계작업을

단위 : 평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미곡식부면적		119,666	124,867	117,073	129,245
기계 작업 면적	이양 (%)	5,000(4.2)	66,384(53.2)	88,504(75.6)	115,588(89.4)
	수확 (%)	48,760(40.7)	116,172(93.0)	117,073(100.0)	128,445(99.4)
	경운 (%)	-	-	117,073(100.0)	129,245(100.0)
	정지 (%)	-	-	117,073(100.0)	129,245(100.0)

는 조사기간중 거의 변동이 없어 200평당 경운·정지가 만원, 이양이 만원(경작주가 육묘시에는 6,000원), 수확이 만원, 방제가 1회 1,000원이다.

수도작의 기계작업면적은 조사기간중 크게 증가하여 이yang이 10%정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외에는 모두 기계화되어 있다. 이yang작업은 주로 다른 마을 사람들의 임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확작업은 이○원씨가 대부분의 면적을 임작업하고 있다.

4. 겸업화와 농외활동

아화 2리는 일제때부터 “미장”기술이 보급되어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20세 전후부터 선배들을 따라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건축노동에 종사하였고, 이것이 이농후의 주요 생활수단이 되어 왔다. 후계자가 되어 농촌에 남은 경우에도 40대까지는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외지에 나가 돈을 벌어오는 일이 흔했으며, 이 소득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부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런 관계로 현재에도 10여 명이 30~200일씩 서울·대전 등지로 일을 다니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3월초(모내기를 끝내고 5월말에 나가는 사람도 있음)에 마을을 떠나 11~12월에 귀향하는 계절적 출타형 취업상태에 있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기술과 경력에 따라 15,000원~30,000정도이며('88기준), 이 중 절반정도는 현지에서 소비하고 최고 300만원 정도까지 남겨서 귀향한다.

이와같은 미장 취업과 함께, 최근에는 논산 등지의 회사,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

표 3 - 29 비농업가구와 겸업농가수

단위 : 호, 명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비농업가구 ¹⁾	호 수	9	7	6	6
	종사인원	10	9	7	9
겸업농	호 수	10	16	12	14
	종사인원	13	16	14	17

1) 비농가중 비농업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따라서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는 가구(지주)나 농업노동자 가구,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기타가구는 제외

표 3 - 30 겸업농의 농외활동 내용, 1988

가구 번호	경지면적(평)		농 외 활 동 종 사 자							비 고
	소유	경작	관계	성	연령	농외활동내용	종사일수	취업지	연간소득(만원)	
4	4,000	5,200	장남	남	24	트럭운전(피고용)	90	군내	100	제대후 귀향 1968년 부터
16	900	900	본인	남	32	건축노동	50	논산읍	55	
18	2,600	5,200	본인	남	51	농조수로감시원	180	마을앞	90	
19	2,000	500	본인	남	40	건축노동	200	논산읍	540	
23	3,600	4,300	본인	남	51	건축노동(목수)	30	의정부	90	
25	800	2,000	본인	남	42	건축노동	180	인천	388	
28	1,000	1,800	본인	남	43	"	230	"	300	
29	0	2,800	본인	남	29	"	300	서울	500	
38	1,200	1,200	본인	남	34	회사경비	180	논산읍	240	
39	1,600	1,600	본인	남	40	건축노동	200	서울	350	
48	0	900	동생	남	32	"	300	서울·진주	200	
			동생	여	23	사무원(백화점)	150	논산읍	50	
			모	여	66	건축노동(잡역부)	330	신도안	145	
49	0	400	며느리	여	28	공장직공	90	논산읍	33	
50	0	0	본인	남	34	교사	365	"	884	
51	700	3,900	본인	남	31	통닭튀김집	300	면소재지	300	
			처	여	28		300			

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아화 2리의 비농업활동인구는 4개 조사마을중 가장 많은 편이다. 비농업가구와 겸업농가를 더하면 20호 내외, 종사자수는 25명 내외로 전체 가구수의 40% 정도를 점하고 있다. 1985~88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비농업가구는 약간 감소한 대신 겸업농가수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비농업가구가 취업의 불안정 때문에 농업을 겸업한 때문이다.

1988년의 비농업활동 내용을 보면 총 26명중 11명이 건축노동에 종사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목수, 1명은 잡역부(여자)이고 나머지 9명은 미장이다. 근대적 공업, 서비스업의 확산에 따른 공장, 회사 취업은 4명으로 '85년의 1명보다 증가하였으나 아직 비중이 작은 편이다. 이 중 1명은 야간에는 회사 경비직으로 취업하며 주간에는 농사일을 보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직종에 1~2명씩의 종사자가 있으나 교사 1명을 제외하고는 비농업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자영업이 4호(종사자는 7명), 피고용취업이 19명

표 3-31 비농업가구의 내용, 1988

가구 번호	경 지 소유면적	비 농 업 종 사 자							비 고
		관계	성	연령	직업	종사일수	취업지	연간소득(만원)	
21	0	본인	남	34	공장직공	240	논산읍	96	남편사망으로 영농중단
41	0	본인	남	75	마을내 가게	365	마을내	-	
		처	여	66	"	"	"	"	불완전취업
44	0	본인	남	47	건축노동	200	인 천	200	
		처	여	41	공장직공	120	논산읍	70	
47	0	본인	여	54	행상 (인삼)	300	금산/ 논산	220	
		장남	남	29	운송업 (자영)	365	논산/ 대전	300	
53	0	본인	남	53	건축노동	90	인천 등	150	
54	0	본인	남	32	중기 운전 (자영)	100	논산읍	-	
									사고로 수입 없었음.

표 3 - 32 비농업종사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1988

단위 : 명 (%)

구 분	남	여	계
10 ~ 19	0	0	0 (-)
20 ~ 29	3	3	6 (23.1)
30 ~ 39	7	0	7 (26.9)
40 ~ 49	5	1	6 (23.1)
50 ~ 59	3	1	4 (15.4)
60 세 이상	1	2	3 (11.5)
계	19	7	26 (100.0)

으로 피고용의 비율이 크다. 피고용취업은 임시고가 12명으로 대다수이며, 상시고 7명중에서도 실제 취업기간을 보면 연중 계속 취업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해 취업구조가 불안정함을 볼 수 있다. 피고용인의 평균 취업일수는 186일, 1인당 소득은 236만원으로 마을 전체의 비농업 임금소득은 4,480만원에 이른다.

겸업농가의 평균 경지소유면적은 1,314평, 경작면적은 2,193평으로 평균농가에 비해 규모가 작다. 14호중 3호는 순소작농이고 6호는 자작겸소작이며 경지의 일부를 임대해준 농가는 1호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야화 2리의 겸업농이 과소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유희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외활동 뿐 아니라 소작도 겸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비농업종사자는 연령대별로는 20~49세에 73.1%가 분포되어 있고 성별로도 남자가 73.1%를 차지해 20~49세의 젊은 남자층이 주로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 가계구조

자급자족적 경제구조하의 농가가 상품시장경제에 편입되면서, 해년마다의 농가의 수입과 지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된다.

생산측면에 있어서 주요 지출항목인 종자, 비료, 농약 등의 투입이 증가되고 그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기계화 등 새로운 지출요인이 발생하며, 음

식, 의복, 광열 등의 소비지출도 점차 구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냉장고, T·V, 세탁기, 가스렌지 등 생활편의시설과 정보전달매체, 자녀 교육비 등은 농가의 자금수요를 확대하고 그 운용을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농가가 어느 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는가에 따라 농가발전 지향이 다양화한다.

본절에서는 이와 같은 농가의 수입, 소비지출, 투자 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나, 조사의 한계로 인한 자료의 제약상 농가의 농업고정자산투자, 내구소비재 구입, 농업외 투자, 교육비, 이전 수입 및 지출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의 부채 및 저축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한정한다.

가. 농업투자

야화 2리의 농업고정자산투자는 타부락에 비해 많은 편이나, 그중 대부분이 농지에 투자되고 있다. 4년간 총투자액은 1억 7,947만원, 호당 평균 448만원으로 4개 조사부락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지구입(구입과 판매가 같은 규모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대토 제외)은 총 10건에 10,800평으로 1억 2,487만원(총 투자액의 69.7%)이 투자되었다. 농기계구입은 9건에 2,923만원으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한다. 야화 2리는 이미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기반에 대한 투자는 작다. 이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트랙터를 이용한 지면 평탄작업으로 197만원이 투자되었다. 기타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양계, 양돈에 따른 축사의 증개축이 대부분이고, 딸기 등에 대한 비닐하우스 시설투자가 있다.

농업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85/87년간에 농지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1988년에는 감소하였다. 이는 1987년의 수해로 비닐하우스를 포함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여 투자여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농업외투자 및 내구소비재 구입

농가지출중 한 분야는 농업외의 부문에서 소득을 얻거나, 생활의 편익을 위해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거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지출부분은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농민이 화폐경제에 편입되어 감에 따라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야화 2리의 농업외 자산투자는 아직은 미약한 편으로 조사기간중 건물 증개축외의 특별한 투자는 보이지 않는다. 건물에의 투자는 모두 10건에 3,649만원(총 투자

표 3 - 33 농업고정자산 투자액¹⁾

단위 : 건,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농지구입	1	10,800	3	37,610	4	47,512	2	28,950	10	124,872
농 기계	4	5,415	1	6,900	3	14,410	1	2,500	9	29,225
농지기반	1	200	3	660	9	910	1	200	14	1,970
기타시설물	3	3,050	2	900	9	15,950	2	3,500	16	23,400
계	9	19,465	9	46,070	25	79,782	6	35,150	49	179,467
호당평균액 ²⁾	-	512.2	-	1,096.9	-	1,994.6	-	878.8	-	4,482.5 ³⁾

1) 대동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고정자산투자로 분류되나 그 구입, 판매의 변동이 심하고 또 비육목적이 강하여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2) 농가만의 평균임

3) 매년의 평균액을 합제한 것임

표 3 - 34 농업외 투자

단위 : 건,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토 지	-	-	1 ²⁾	800	-	-	-	-	1	800
건 물	2 ¹⁾	12,000	2 ³⁾	6,150	3 ⁴⁾	3,360	3 ⁵⁾	18,000	10	36,486
유 가 증 권	-	-	-	-	-	-	10	1,830	10	1,830
기 타	-	-	-	-	-	-	-	-	0	0
계	2	12,000	3	6,950	3	3,360	13	19,830	21	39,116
호 당 평 균	-	235.3	-	133.7	-	64.6	-	381.3	-	814.9

1) 주택신축 1건, 도시 출타가족 가계보증금 1건

2) 대지구입

3) 주택신축 1건

4) 창고신축 1건, 부분수리 2건

5) 주택신축 1건, 증축1건, 수리1건

액의 93.3%)인데 이중에서도 금액면에서는 주택 신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창고 등 부속사 신축은 2건 있었다. 토지에 대한 투자는 전입가구(52번)의 주택 신축용이다. 1988년 5월의 국민주(포철주) 보급시에는 10명이 신청하여 124주를 배정받았으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시가 매입으로 장기보유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소비재 구입지출은 호당 연간 20만원 내외로 나타났다. 가스렌지와 냉장고의 구입건수가 가장 많아 연료대체와 함께 주부의 일손을 절약하는 가구에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화와 TV는 이미 상당히 보급되어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는 적다. 승용차를 구입한 1호는 양계농가로 사업용이라고 하나 과시목적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비교적 보급률이 낮은 냉장고, 세탁기의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3-35 내구소비재 구입

단위:건, 천원

구	분	1987		1988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승	용 차	0	-	1	6,000
오	토 바 이	1	1,130	1	500
전	화	2	415	2	480
칼	T V	0	-	4	1,050
냉	장 고	6	1,970	4	1,260
세	탁 기	3 ¹⁾	493	3 ⁴⁾	630
가	스 렌 지	12	1,350	10	1,100
장	농 등 가 구 류	6 ²⁾	1,970	2	170
기	타	5 ³⁾	740	6 ⁵⁾	1,277
계		35	8,068	33	12,467
호 당 평 균		-	155.2	-	239.8

1) 탈수기 2대 포함

2) 부엌싱크대 1개 포함

3) 전자렌지 1대, 자전거 2대, 전기밥솥 1대, 퍼스널컴퓨터 1대

4) 탈수기 1대 포함

5) 전축, 전기밥솥 각 2대, 팬히터 1대, 믹서기 1대

다. 교육 및 의료비

농가의 가계비 중에서도 교육비, 의료비 등은 그 절대액수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 따라서는 부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야화 2리에서 중학교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1988년 현재 모두 37명 (호당 0.71명)으로 대학생 전원과 고등학생중 1명은 출타하여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마을에서 다니고 있다. 출타하여 취업하고 있는 자녀나 도시에서 분가한 형제 등이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모두 마을의 본가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출타한 대학생의 경우 납입금은 연 88만 8천원인 반면 생활비는 2배 가까운 159만 8천원이 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납입금과 용돈 외에도 학원, 독서실 비용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1988년의 마을 전체의 교육비 부담은 3,665만원으로 전년도 3,193만원보다 14.8% 증가하였다. 이 액수는 교육비 지출 가구 21호당 174만 5천원에 이르며 이 중에는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가구가 2호(17,32번)¹⁶⁾, 300~500만원을 지출한 가구도 2호(27,35번)가 된다.

1988년은 농촌에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된 해로 농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많은 변

표 3-36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 지출, 1988

단위 : 천원

구 분	학 생 수		학 비 부 담		학생 1인당연간비용 ³⁾			마을전체의 교육비부담
	통 학	출 타	본 가	기 타	납입금	생활비	계	
중 학 생	15	0	15 ²⁾	0	247	192	439	6,592
고 등학 생	13	1	14	0	374	354	727	10,180
대 학 생	0	8 ¹⁾	8	0	888	1,598	2,485	19,880
계	28	9	37	0	-	-	-	36,652

1) 기술학원에 다니는 1명 포함

2) 영세민 가구 자녀로 학비면제자 3명 포함

3) 마을내 본가에서 부담한 액수임

16) 이 두 가구는 각각 대학생 1명, 중고생 3명씩이 있음.

표 3 - 37 의료보험여부

단위 : 호 00

구 분		1987	1988
직장 의보	경영주 본인	3 ¹⁾ (5.8)	3 (5.8)
	출타 자녀	15 ²⁾ (28.8)	12 (23.1)
직장 + 지역		0 (-)	3 (5.8)
지역의보		0 (-)	21 (40.4)
의료보호 의료부조	}	14 (26.9)	13 (25.0)
			0 (-)
일반		20 (38.5)	0 (-)
계		52 (100.0)	52 (100.0)

- 1) 경영주 본인이 취업한 경우가 2호, 1호는 군인연금제에 의한 의보대상자임
- 2) 이 중에는 경영주 부부만 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고 나머지 가구원은 보험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1988년부터 이런 경우는(직장+지역)으로 됨.

표 3 - 38 의료비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1987	1988
지출가구수		18	14
의료비액수		13,702	28,875 ¹⁾ ²⁾
호당평균		264	555
의료비 지출규모	10만원 미만	1	0
	10 ~ 50	10	6
	50 ~ 100	3	3
	100 ~ 200	1	3
	200만원 이상	3	2

- 1) 2,000 만원을 지출한 1호 포함.
- 2) 보험료를 제외하고 자부담액만을 계산

화가 예상된다. 지역의보가 실시되기 전에는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가 20호 있었는데 이들이 지역의보의 실시대상이 되었다. 전체 가구중 지역의보에 가입된 가구는 절반이 조금 안되는 24호로 의료보호의 대상자

가 13호, 출타자녀의 직장의보에 올라 있는 경우가 12호이다. 지역의보의 평균 보험료 납부액은 월 7,342원으로 이 중에는 만원이 넘는 가구도 6호 있다. (최고액은 27번 가구로 가구원 6명, 소유지 7,910평으로 19,700원). 보험료가 높다는 의견이 많으나 장기거부자는 1호에 불과해 보험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

의료비 지출은 1987년에는 호당 26만 4천원, 1988년에는 55만 5천원이지만 2천만원을 지출한 2번 가구를 제외하면 감소하였다. 연간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가구는 7~8호, 100만원 이상 지출된 가구도 4~5호에 이른다.

1988년도중 2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의 지출내역과 병명을 정리한 것이 <표 3-39>이다. 총 17명의 환자중 위장병이 2명, 신경통이 2명, 기타 신병이 2명, 고혈압 2명으로 소위 농부병이라 할 수 있는 신경, 소화기 계통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3-39 상병과 의료비 부담내역, 1) 1988

가구 번호	환 자		의료비 (천원)	병 명	가구 번호	환 자		의료비 (천원)	병 명
	성	연령				성	연령		
2	여	58	20,000	고혈압(입원, 1989 사망)	23	남	51	200	신 병
3	남	65	400	신 경 통	25	여	86	1,200	암(입원, 사망)
	여	56			31	남	66	300	고 혈 압
5	남	61	2,050	신병 ¹⁾ 치과질환	40	여	66	600	당 뇨
	여	57			46	남	58	400	치과질환
8	남	45	200	농기계사고(갈비뼈)	47	여	54		
11	여	55	1,000	관절염(입원)					
12	여	61	1,000	신경성 위장병					
20	남	42	770	위장병(입원)					
22	남	39	500	눈 부 상					

1) 신병이란 뚜렷한 증세없이 노환, 농부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반적 질병을 총칭함.

라.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농촌가족중 도시로 나간 출타가족(도시분가)과 농촌본가 사이에는 일정한 경제관계가 지속된다. 특히 취학출타자는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을 본가에 의존함으로써 농촌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취업출타자도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본가에 송금을 하거나, 동생들의 학비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일시적 실직, 질병 등의 상황에서는 본가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향하기도 한다.¹⁷⁾ 이 밖에도 분가한 형제, 자녀의 경우에 분가시 또는 분가후에 농촌가족과의 사이에는 증여 등의 경제관계가 성립한다(이것은 이전수지로 처리).

〈표 3 - 40〉은 출타, 분가가족과의 경제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 순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그 폭도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이전지출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특히 자녀 분가시의 결혼비용, 도시정착금 지원, 상속몫의 농지배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출타자녀에 대한 본가의 지원(주로 학비)과 취업출타자녀의 본가송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취학출타자는 1988년의 경우 9명이 2,496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 호당 356만6천원이란 큰 부담이 되어 있다. 한편 취업출타자는 33명중 5명이 1,736만원의 송금을 하고 있는 반면 2명은 본가로부터 식량을 보조받고 있다. 송금자의 1

표 3 - 40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및 이전수지

단위 :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보 조 (A)	13,800	16,430	20,200	25,960
	피 증 (B)	7,020	7,600	14,030	17,360
이전수지 ¹⁾	수 입 (C)	-	-	6,140	5,020
	지 출 (D)	5,770	23,860	22,475	64,915
순유입 (B+C-A-D)		-	-	- 22,505	- 68,495

1) 1985,86 년도의 이전수입은 조사되지 않았음.

17) 1985 ~ 88년 전입자 13명중 3명은 이러한 경우임.

표 3-41 취학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단위 : 천원

취학출타자수	그중 보조받는수	총 보조액	학생 1인당보조액	보조가구당평균보조액
9	9	24,960	2,773	3,566

표 3-42 취업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총 액	1인당액수	가구당액수
보	조 (A)	2	1,000	500	1,000
피 증 (송 금 , B)		5	17,360	3,472	3,472
B	- A	-	16,360	-	-

표 3-43 이전수지, 1988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농 산 물	농 지	기 타	계
이전수입	건 수	5	0	0	2 ¹⁾	7
	액 수 (A)	4,700	0	0	320	5,020
이전지출	건 수	8 ²⁾	14	1 ³⁾	0	23
	액 수 (B)	40,300	8,295	16,320	0	64,915
순 수	입 (A - B)	- 35,600	- 8,295	-16,320	320	- 59,895
호당평균	수 입	90	0	0	6	97
	지 출	775	160	314	0	1,248
	순 수 입	- 685	-160	- 314	6	1,152

1) 탈수기, TV 각 1대임.

2) 분가, 결혼비용이 6건에 3,430만원, 전세값 보조가 1건 500만원임.

3) 마을내 분가자녀(나중에 전입)에 대한 상속몫임.

인당 송금액수가 347만 2천원으로 작지는 않지만, 총 33명중 본가로 송금을 하는 사람이 5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출타취업자의 도시생활정착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음을 말해 준다.

분가자녀, 형제와의 이전수지를 보면 이전수입은 대부분 생활비조의 현금으로 총

액은 500 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전지출은 6,491 만원에 이르는데 이중 분가품, 결혼비용이 78.0%인 5,062 만원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식량(829 만 5천원(96가마))으로 그 다음 비중이다.

전체적으로 야화 2리에서 1988년도에 출타가족, 분가자녀와의 이전수지는 총 5,989 만 5천원의 적자를 보임으로써 호당 115 만 2천원¹⁸⁾의 부담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농가경제의 재생산과정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저축 및 부채

농가의 연간 총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부채 및 저축의 증감으로 나타난다.

야화 2리의 부채액은 198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5년에는 호당 184 만 6천원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었으나, 1988년에는 무려 3.1배가 넘는 572 만 5천원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채없는 가구가 20호에서 2호로 줄어든 반면 1,000 만원이 넘는 가구가 1호에서 10호로 늘어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야화 2리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데에는 1987년도에 지원된 사채대체자금과 수해로 인한 영농자금의 상환유예가 크게 작용하였다. 사채대체자금은 34호에서 총 8,031 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86년도 말의 조사된 총 사채액 4,175 만원의 두 배가 되며, 86 / 87년간 감소된 사채액 2,283 만원의 3.5배에 이르는 액수이다. 즉 이 자금의 대부분이 실제 사채를 상환하는데 충당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1988년의 사채액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는 쌀계를 탄 후의 납입의무금이지만 사채대체자금 지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누증의 역작용을 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87년 영농자금의 상환유예액은 '88년말 현재 32호에서 2,803 만원, 수해복구 지원금 대출잔액은 30호에서 2,410 만원에 이르러 부채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상 3가지 자금의 합계는 총 1억 3,244 만원으로 호당 254 만 7천원이나 되어 '88년도말 농협 부채액의 57%에 달하고 있다.

18) 이 액수는 1985~88년간 평균 연간 고정자산투자액 112 만원을 약간 상회한다.

표 3-44 호당 평균 부채

단위 : 천원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 (B)	B/A × 100 %
농 협	936	1,180	3,399	4,466	477.1
사 채	910	803	364	1,259	138.4
계	1,846	1,983	3,763	5,725	310.1

표 3-45 부채규모별 가구수

단위 : 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농 가	비농가
0	20	16	4	2		2
50 만 원 미 만	3	4	2	3	2	1
50 ~ 100	5	7	3	5	4	1
100 ~ 200	8	7	11	2	2	
200 ~ 300	4	7	6	6	3	3
300 ~ 500	4	6	12	6	4	2
500 ~ 1,000	6	4	12	18	16	2
1,000 만 원 이 상	1	1	2	10	9	1
계	51	52	52	52	40	12

'88년말 현재 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진 10가구의 부채발생 내역을 보면 자녀결혼비용, 주택신축 등 소비지출이 4건, 영농투자로 사용했으나 실패로 투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3건, 영농투자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건, 비농업투자가 1건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29번 가구를 제외하면, 투자회수가 기대되는 경우는 2호에 불과하여 부채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편, 호당 저축액은 1985년 이후 3배가량 증가하여 '88년에는 24가구가 7,047 만원을 저축하였다. 그러나 액수는 부채액의 23.7%에 불과하다.

표 3 - 47 호당 평균저축액

단위 : 천원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 (B)	B/A × 100 %
금융기관	147	227	544	466	317.0
계 契	242	345	958	805	332.6
사 채	58	77	202	84	144.8
계	447	649	1,704	1,355	303.1

표 3 - 48 순부채, 저축규모별 가구수, 1988

단위 : 호 %

구 분		계	전업농	경업농	비농가
순 부 채	1,000 만원 이상	7 (13.5)	3	3	1
	500 ~ 1,000	17 (32.7)	11	4	2
	300 ~ 500	7 (13.5)	2	3	2
	200 ~ 300	3 (5.8)	3		3
	100 ~ 200	1 (1.9)	1		
중 간 (- 100 ~ 100)		8 (15.4)	3	2	3
순 저 축	100 ~ 200	1 (1.9)	1		1
	200 ~ 300	1 (1.9)			
	300 ~ 500	2 (3.8)	1	1	
	500 ~ 1,000	2 (3.8)	1	1	
	1,000 만원 이상	0 (-)			
계		52 (100.0)	26	14	12

이는 연이율 20% 정도의 현물사채시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호신용을 갖춘 농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나 반드시 중대농간에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농지구입 등 축적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계주는 첫해에 계쌀을 타는 대신 운영을 책임져야 하며 대체로 다른 순번 하나를 추가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 각종 보험이나 우체국 등을 통한 저축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사채를 통한 저축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저축과 부채를 합하여 순저축, 순부채액수로 가구를 구분한 것이 <표 3 - 48> 이다. 35호의 가구가 순부채 상태에 있는 반면, 순저축이 있는 가구는 6호에 불과

하다. 그러나, 순저축이 300 만원이 넘는 가구도 4호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비농가가 평균 순부채액이 337 만 5 천원, 겸업농이 417 만 3 천원, 전업농이 489 만 6 천원으로 농업의존도가 클수록 부채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사 회 구 조

야화2리는 지배적인 씨족이 없이 여러 성씨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다. 이는 마을의 역사가 일천하고 소위 행세하는 위세 있는 가문이 없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이 마을에 3~4대씩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넓은 경지를 찾아서 또는 소작을 목적으로 정착한 가구들이다. 이들 소작농들은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을 계기로 대부분 자작농화 되었지만 상당수의 가구들은 마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다. 더우기 야화2리는 23번 국도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논산읍 근교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전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 일찍부터 인구이동이 잦았다.

야화2리에는 혈연적 사회집단은 없다. 또한 마을 일을 자치적으로 협의해 처리하던 대동계도 1950년대에 조직되었다가 해체되었다. 따라서 지역집단으로는 행정리가 유일하다. 행정리에는 의사결정기구로 리개발위원회가 있으며 하부기관으로 반장을 두고 있다.

한편 이마을 주민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사회집단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 중에서 중요한 것은 관혼상제 등 사회적 통과의례에 마을 주민들이 상호 부조하고 협동하는 계조직이다.

마을의 상사는 위친계를 통하여 대처한다. 위친계는 마을 공동체적 조직이 아닌 또래집단적 조직이다. 상사를 당한 마을 구성원은 일차적으로 그가 속한 또래들이 구성한 위친계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과 노동력의 지원을 받지만 그 외의 주민들로부터도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받는다.

마을의 결혼도 1970년대까지는 혼사계를 조직하여 계원 중심으로 상호부조하며 공동대처해 왔지만 마을 구성원의 결혼이 대부분 마을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자 혼사계 조직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외에 마을주민들은 친목계 등을 조직하여 상호 정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애경사에 상호부조하는 메카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야화2리의 사회망은 주로 또래집단이 형성하는 의사교환망으로 파악된다. 현재 야화2리에는 60대와 40-50대 그리고 30대 초반으로 구성하는 세개의 큰 의사교환망이 있고 이들 각각의 의사교환망에서 많은 의사교환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은 여론지도자로서 대부분 마을의 현시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야화2리 주민들은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전체가구의 47.1%는 무교적 관습을 지키고 있다. 불교신자 가구는 13.7%, 기독교신자 가구는 9.8%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야화2리 주민들은 1970년대 이전까지 전 주민이 참여하는 동제로 칠월 칠석날에 용신제를 지냈고 전통적인 세시풍속을 지켜왔으나 산업사회화의 물결속에 기술의 발전 보급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점차 축소·소멸되고 현재는 명맥만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1. 사회집단

야화2리의 사회집단의 변천은 2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1945년 이후 마을 주민들의 자생적 노력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기존의 여러 사회집단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대동계를 이루었다가 해체될 때까지(1945~1960)이며 제2단계는 대동계 해체 이후 여러 사회집단들이 재 출현하여 현재에 이르는 시기(1961~현재)이다.

가. 제1단계 : 자생적 협동조합운동과 대동계의 출현

야화2리 사회집단 변천의 제1단계는 자생적 협동조합운동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45년 당시 이 마을에는 약 20여개의 각종 위친계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다.¹⁾

1945년 해방은 이 마을에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로, 당시 일본인이 소유·경작하던 광대한 토지가 정부로 귀속되었다가 소작인들에게 재분배되었고 뒤이어 1950년부터 시작된 농지개혁으로 많은 소작농이 자작농화 하였다.

둘째로, 일제치하에서 일본, 만주, 남양군도 등으로 징용 당했거나 이주했던 이 마을 출신 주민들이 귀향하여 정착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²⁾ 낙후된 이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자각운동이 일어났다.

이해범, 서동문, 손병국, 김종수씨 등은 이 마을의 개발을 위해서 덴마크식 협동조합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운동에 찬동하는 11인과 함께 15명으로 구성된 협동토기조합³⁾을 1947 년도에 조직하였다.

협동토기조합 설립 당시 이들은 각각 쌀 1가마씩을 출자해서 공동기금을 조성했으며 기와기술자 1명을 고용하여 “토기기와”를 생산했다. 그러나 당시(1947~50까지의 경제사회적 혼란시기)의 경제사정상 토기기와의 수요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이 미숙하고 품질마저 떨어져 협동토기조합은 1949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부터 제 2 차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 즉 협동토기조합을 정리한 이들은 “협동죽세품조합”을 설립하여 대나무소쿠리, 바구니, 얼레미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남 담양 등지에서 기술자를 초빙하여 전 주민에게 생산 및 기술교육을 시키고 주민들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구성해서 생산품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 팔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업도 담양 죽세품에 밀려 사업을 시작한지 3년만에 중단되었다.

한편 이들은 돼지, 한우 등 축산사업도 협동조합운동의 일환으로 시도하였으나 모

- 1) 이마을 원로인 김종수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 각종계는 대동계로 통합되었다.
- 2) 이들 중심인물은 이 마을 출신으로 이해범(일본 이주경력, 현재 경기도 안양거주) 김종수(일본 남양군도 등에 징병, 현재 야화2리 거주) 김덕수, 박창록, 이귀동, 이길용, 강덕찬(이상 야화2리 거주) 등이며 타지 출신으로 이 마을에 정착했던 사람은 서동문(작고), 손병국(작고)씨 등이다.
- 3) 김종수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의 토기조합은 이해범씨가 계장으로 있었던 위친계원 12명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서동문 손병국 이외에 이해범, 김종수, 김완수, 김인수, 최해섭, 김봉옥, 신태선, 박이순, 박창록, 이귀동, 문복수 및 토기기술자 1명이외에 다른 한명(불명)이었다.

표 4 - 1 야화 2리 자생적 협동조합운동에 참가했던 귀향지도자들의 주요경력

성명	연령	현거주지	주요경력
이해범	76	경기, 안양	그의 부친은 강경시장 객주였으나 야화2리의 대지주 신덕순씨와의 교분으로 야화2리에 정착, 일제시대 단신도 일하여 화학공업으로 성공, 일본 패전후 빈손으로 귀향, 야화리 정착후 동료들과 협동조합운동 전개, 1983년 현거주인 경기도 안양으로 이주
김종수	74	야화2리	강경출신, 1925년 빈손으로 야화2리에 정착, 대동아전쟁시 일본군 징용으로 일본 남양군도 등 여러지역을 여행, 일본군 패전후 귀향, 저축한 돈으로 농토구입 영농시작, 동료들과 협동조합운동 참가, 1980년대 건설업에 착수했다가 사업실패 후 야화2리에서 마을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서동문	작고		채운면 장화리 출신, 이해범씨의 친구, 만주에서 20여년간 이민생활 후 종전으로 귀향하여 야화리에 정착, 동료 이해범씨 등과 협동조합운동 전개, 협동조합운동 실패후 강경으로 이주
손병국	작고		야화2리와 연고는 없으나 서동문씨와 동서간, 서동문씨와 함께 만주에서 귀국하여 야화리에 정착, 협동조합운동에 주도적 인물로 활약, 서울로 이주후 1987년 4월에 작고

두 실패했다.

이상과 같이 연속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이 실패하자 이들은 자체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실패원인⁴⁾을 분석, 도출하였다.

- ① 토기기와와 축제품 등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이었다.
- ② 야화2리 주민들은 시장유통과 정보에 어두웠다.
- ③ 기업을 경영할 전문경영인이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이들은 위와 같은 어려움이 없는 농촌 및 농업에 관련된 협동조합운동을 다시 시도하기로 하고 정미소를 협동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정미소의 운영은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앞의 여러사업들의 실패 원인이었던 고도의 기술, 유통정보, 시장, 전문경영 없이도 운영가능했고 도정공장을 마을에 개설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타부락으로 지출해야 했던 도정료를 안정되게 협동조합 수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즉 1953년 당시 야화2리 주민 47호가 경작하는 논 약 67ha의 쌀을 도정하

4) 여기에 분석된 실패원인은 당시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종수, 박창록, 김덕수씨 등의 증언에 의하여 요약된 것임.

면 약 80석의 쌀을 도정료로 공제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해범, 김종수, 서동문, 손병국씨 등은 협동정미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을 설득하고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운동으로 확대하여 그 명칭을 대동계로 정하였다.

모든 주민(가구주)은 대동계원으로 쌀 1말씩의 출자를 의무화 했고 임원들은 쌀 5말씩을 출자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이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각종 계를 해체하게 되었고 그 자금을 그대로 대동계로 통합하였다. 마을주민들이 출자한 금액으로 이들은 정미소를 건립하고 발동기, 정미기 등 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상당수의 마을주민들은 도정시설이 더 좋은 이웃 마을 도정공장을 이용했다. 따라서 야화 2리 협동정미소도 무리하여 더 좋은 정미기 정맥기 등을 갖추었으나 무리한 시설 투자, 이웃 마을과의 경쟁 등으로 협동정미소 운영은 곧 난관에 부딪혔고 늘어나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다가 1958년도에 해체되었다.

1947년부터 1958년에 이르는 12년간 이 마을 주민들이 추진하였던 자생적 협동조합운동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타격도 막심했다. 그러나 이들의 협동조합운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마을 주민들에게 귀중한 가치와 교훈을 남겨 주었다.

첫째로 이들이 추진한 협동조합운동은 순수한 자생적 운동으로 정부나 외부의 지원없이 주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물론 이 운동은 외국에서 선진문명과 많은 경험을 한 귀향자들에 의해서 주도 되었지만 이 운동의 모태는 마을내에 구성되어 있던 20~30대의 젊은이들 11명으로 구성된 위친계였으며 운동의 힘이 마을내부에서 내생적으로 점화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둘째로 협동조합운동을 통해서 이들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이들은 토기조합, 축제공장, 도정공장 등을 연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협동의 힘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 등과 연결되어 마을변화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세번째로 협동조합운동을 통해서 주민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진취적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새로운 기술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60년대의 답리작 딸기도입, 70년대의 수도 신품종과 신기술 도입, 80년대의 답리작 고등채소 재배기술의 도입 등에서 항상 인근 마을보다 앞서 갈 수 있게

한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제 2 단계

이 시기는 자생적 사회집단이 재 출현하기 시작하고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농촌개발 정책이 체계화 하기 시작하여 여러가지 비자생적 사회집단이 출현하여 오늘에 이르는 단계가 된다.

① 자생적 사회집단

이 기간중에 나타난 최초의 자생적인 사회집단은 위친계이며 1986 년말 현재 남녀 위친계가 각각 2개씩 조직되어 있다.

최초의 위친계는 김영수씨를 계장으로 하여 1962 년에 결성되었다. 당시 24 ~ 27세의 청년 또래 14 명으로 구성된 이 계는 부모의 상사에 친상과 같이 조문하고 보좌를 지급하며 계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되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70 년대의 격심한 이농으로 마을에 남아 있는 계원은 7명 뿐이다. 1968 년도에는 김영분씨가 계장이 되어 주부로 구성된 위친계가 조직되었다가 1986 년도에 계를 완료하여 해체하였고 1971 년도에는 이재기씨를 계장으로 하는 남성 위친계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이 계를 일명 선행계라고도 부르며 부모의 상고에 보좌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경노효친과 유약자 보호, 사회질서와 기강확립 등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 계의 계장은 외지로 이주하였기에 부계장이었던 신태근씨가 계장이 되었다. 현재 계원중 9명이 도시로 이주하고 9명이 마을에 남아 있다.

1978 년도에는 유기월씨를 계장으로 하는 여성 위친계가 결성되었다. 33 ~ 45세의 연령층에 있는 주부들로 구성된 이 계는 부모(친가 및 시가)의 상에 보좌한다.

1983년에는 보다 젊은 주부들로 구성된 위친계가 결성되었다. 기철순씨를 계장으로 하여 당시 22 ~ 35세의 연령층에 있는 주부 15명이 구성한 이 계는 부모 상사에 보좌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이 마을에는 남성들로 구성된 위친계⁵⁾가 둘 있었으나 빈번한 이주와 출타 등으로 해체되었다.

5) 이 계들은 현재 조직되어 있는 신태근계장의 위친계를 전후하여 4 ~ 5세의 연하자들이 조직한 것이었다.

야화2리에는 남녀 친목계⁶⁾가 각각 1개씩 조직되어 있다. 1967년 이차형⁷⁾씨를 계장으로 하는 남성 친목계가 조직되었다. 이 친목계는 봄, 가을 놀이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35~49세의 장년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사와 본인사망시 약간의 보좌를 지급한다. 이들 집단은 구성 20명중 8명이 노령으로 사망하고 2명은 탈퇴, 1명 추가 가입 등으로 현재 11명의 구성원이 남아 있다.

여성 친목계는 1974년 유기월씨를 계장으로 하여 주부들의 친목도모와 봄, 가을 놀이를 주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 여성 친목계는 당시 30~44세의 연령층에 있는 주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계원의 애경사시에 별도의 보좌를 하지 않는다.

혼사계는 자녀들의 혼기를 앞둔 주부들도 구성된다. 자녀 혼사시에 계원간의 경제적 협동을 주목적으로 조직되는 혼사계는 6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계와 달리 그 지속기간이 짧다. 따라서 혼사계는 그 과거의 실체⁸⁾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 1987년 현재 두개의 혼사계가 조직 운영되고 있다.

1981년도에 김영분씨가 계장이 되어 조직한 혼사계는 계원 31명으로 당시 37~59세에 이르는 장년층의 주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보좌대상 자녀를 정하고 계를 구성한 후 이들 자녀들이 결혼하여 보좌지급이 완료되면 계를 해체한다.

다른 하나의 혼사계는 1987년도에 조직된 것으로 유기월씨가 계장이 되고 있으며 43~60세의 장노년층 주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화2리 노인회는 1987년 3월에 결성되어 대한노인회 논산군 지부의 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있다. 이회는 김종수씨가 회장으로 있으며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38명으로 구성되는 혼성집단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극심한 이촌은 마을인구의 노령화를 촉진하였고 급기야는 노인들의 이익단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쌀계는 평야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계의 형태로 이 마을에 3개⁹⁾가 있다. 이

6) 야화2리에는 이외에도 인근 삼화(야화, 장화, 용화리)주민들로 구성된 삼화친목계와 수개리 주민들이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친목계도 있으나 마을단위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7) 이차형씨는 1987년 사망하였으며 계장은 차장자인 이길용씨가 담당하게 되었다.

8) 60~70년대를 통하여 혼사계가 수개 조직되었던 것으로 증언되나 계책 등이 소실되고 구체적인 추적은 불가능 하였다.

9) 야화2리의 쌀계 3개는 야화2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계장이 되어 조직한 쌀계만을 말한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조직된 쌀계에 이마을 주민이 가입한 계는 제외되었다.

들 쌀계는 보통 7~8명으로 구성되며 그 존속 기간도 7~8년이다. 따라서 이러한 쌀계 종류는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조직 자체가 은밀한 점조직 성격을 갖는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3개의 쌀계는 1984년에 2개, 1985년에 1개가 조직되어 현재에 이른다. 1984년도에 조직된 쌀계 둘은 모두 혼성집단으로 계원이 7명과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의 규모는 쌀 50가마씩이다. 1985년에 조직된 계의 구성원은 7명으로 계의 규모도 역시 쌀 50가마로 다른 계와 같다.

②비자생적 사회집단

비자생적 사회집단으로 야화2리에 최초로 조직된 집단은 1959년에 조직된 4-H구락부였다. 야화2리 4-H구락부는 당시 이 마을에 거주했던 서순일목사¹⁰⁾에 의해서 조직되었고 서 목사가 초대회장을 맡았다. 서목사는 당시 마을 청소년의 지도를 목적으로 4-H구락부를 조직했으며 그들이 활동한 내용은 새로운 농사기술도입¹¹⁾과 공동작업이었으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4-H구락부활동을 위한 공동자금으로 활용하고 일부를 개인수입으로 분배했다.

야화2리 4-H구락부는 1962년까지 활동하다가 지도자 및 회장단의 교체 등으로 그 활동이 점차 약화되어 오다가 해체된 후 현재까지 재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자생적인 협동조합운동이 좌절되어 해체된 후인 1962년에 “야화리 농업협동조합”이 농협법에 의해서 결성되었다. 그러나 야화리 농협에 관한 문헌상 기록은 전무하여 그 구체적 조직과 활동상황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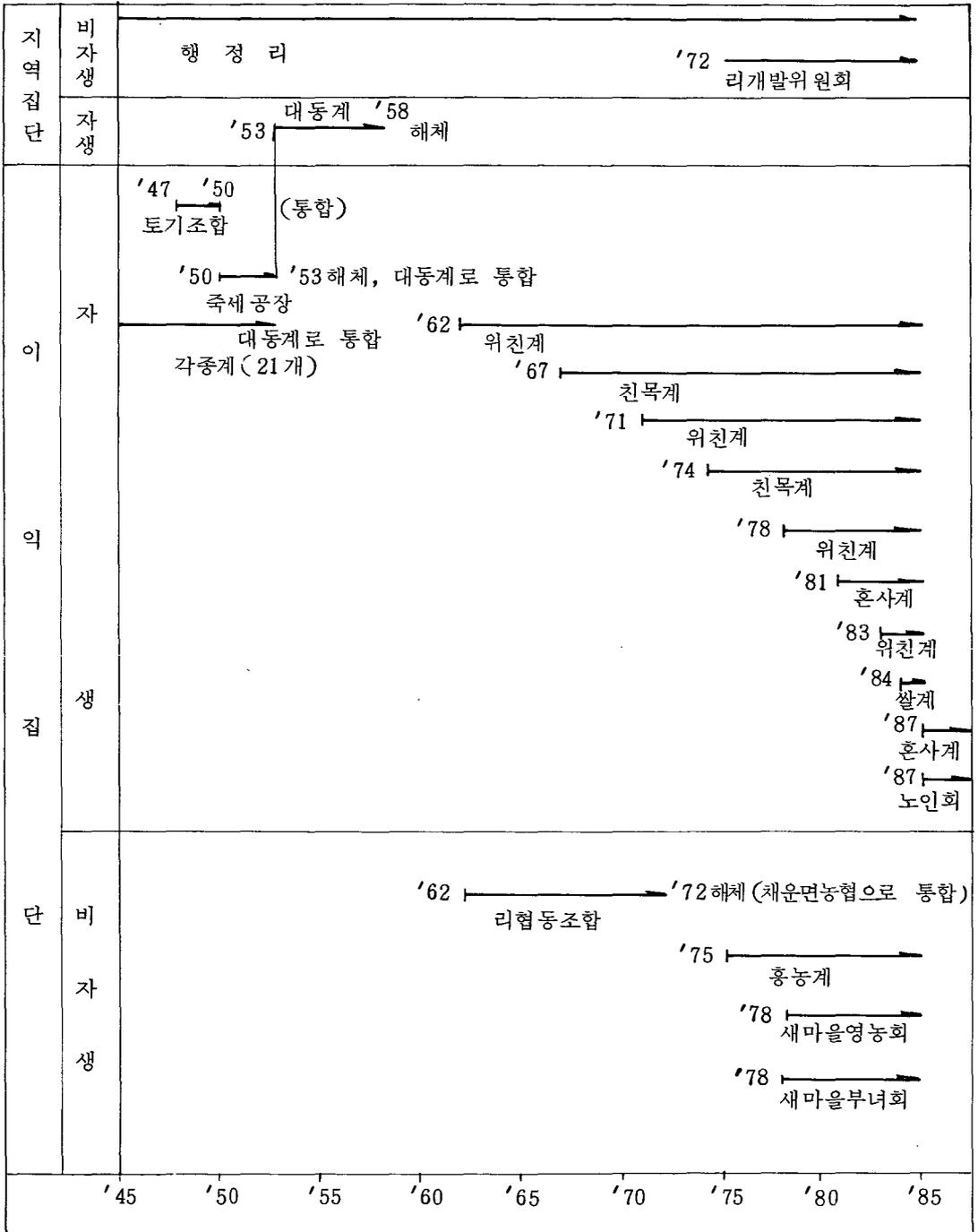
야화리농협은 야화1·2리를 통합하여 조직되었으며 조합장은 조직 당시부터 해체될때까지 야화2리의 박창록씨가 맡았다.

조합장이었던 박창록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합원은 야화1·2리를 합하여 90명 정도였고 조직당시 조합원당 100원씩 출자했다고 한다. 당시 농협이 담당했던 주 업무는 비료의 구입과 정부에서 배정하는 영농자금의 배정이었으며 비료의 구입과 영농자금의 융자시 일부를 출자금 충당을 위해서 공제하기도 했다.

10) 서순일 목사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11) 당시 이들이 도입한 농사기술은 유아등 설치, 멀구방제, 시비법 개선, 수도 밀식이앙, 산성토양개량을 위한 석회시용 등이었다.(신준균씨의 증언)

표 4 - 2 사회집단의 조직과 변천, 1945~85



야화리 농업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명맥만 유지하다가 1972년 채운면 농업협동조합이 창설되면서 이에 통합되었다. 통합 당시 리농협에서 조성하던 조합원의 출자금도 따라서 채운면 농협으로 이전되었다.

리개발위원회는 당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 단위 협의기구로 조직된 것이다. 이때부터 리개발위원회는 마을개발과 마을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체로 행정리 안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새마을운동과 같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마을 개발사업은 반드시 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규정하였고 이 조직이 정착하면서 마을 행정에 관한 대부분 사항을 심의·의결·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자생적 지역집단을 갖지 못하는 야화2리는 행정리와 개발위원회가 마을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1977년에는 또다른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제까지 마을내에 조직되어 왔던 농사개량구락부와 협동회 등을 통합하여 새마을영농회로, 부녀회, 생활개선구락부, 부녀교실, 가족계획어머니회 등을 통합하여 새마을부녀회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지역집단

① 조직목적

행정리¹³⁾는 지방자치에 따른 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그러나 행정리가 일방적인 행정 편의나 행정업무 수행만을 목적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다. 리동은 지방자치법 제 146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리동은 주민의 의사와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주민자치를 이루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본위의 리자치행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12) 야화리 농업협동조합운동은 자생적인 협동조합운동의 실패로 전 주민이 좌절하던 때였고 더우기 상부지시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했으며 조합장 이외에는 별로 이 운동을 이해하거나 협조하려 하지 않았다고 박창록씨는 증언하고 있다.

13) 현행 행정리의 조직은 지방자치법(법률 제 32호) 145조 32항「리동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리는 법 공포일인 1949년 9월 4일 이후에 조직된 것으로 본다.

의해서 자치행정의 기반을 잃고 행정수행을 담당하는 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던 리동장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구 성 원

행정리의 구성원은 행정리의 경계내에 주거하며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을 필한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행정리에 있어서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을 필하지 않고 임시로 거주하는 가구 또는 가구원 중의 일부는 행정리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을내의 자치행정에서는 구성원의 하나로 인정되나 행정처리 기준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와 반대로 주민등록은 필하고 있으나 실제로 마을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이들은 행정업무 처리 기준에는 리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나 리의 자치행정에서는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리에 새로이 구성원으로 입주하는 가구는 관할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법적 행정적으로 완벽한 리의 구성원이 된다.

야화 2 리에서는 새로 입주하는 이주자 또는 분가자가 기존 지역집단 구성원에게 행하는 입주신고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통적인 지역집단으로서의 대동계가 해체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입주자는 이웃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사회적 입주신고를 마치고 상호 이웃으로 인정받게 된다.

③ 기 구

행정리는 시군과 읍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행정지시 또는 정보를 전체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행정리의 주요기구인 리장, 반장 및 개발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의 설립근거는 각군의 리동장 인사규칙, 반설치조례 및 반운영규칙, 리동개발위원회 설립규정 등이 있다.

한편 새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를 두고 있다. 군조례에 따르면 리장은 개발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의해서 면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조례에 정해진 리장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 농어촌 개발의 시대적 사명과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리장은 ①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또는 여자로서 한다. 다만 50세이상 60세 이하인 남자와 여자로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

③ 전기 ①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한편 리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임명권자인 면장에 의해서 직권 면직된다.

- ①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리장 인사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③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④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리장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제 47조 내지 제 55조 및 제 57조와 제 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받으며 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①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리주민의 지도
- ② 행정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
- ③ 주민거주 동태 조사 파악
- ④ 각종사실확인 및 사고보고
- ⑤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배분
- ⑥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 ⑦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지도 실시

반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 ~ 30 호 단위로 리내에 설치하며 2년임기의 반장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반장은 리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반원의 지도
- ②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③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의 관리
- ④ 각종 사실 확인
- ⑤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 ⑥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 ⑦ 홍보 및 주민 계도
- ⑧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의 배급
- ⑨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리개발위원회는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서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마을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2년부터 군조례로 각 리동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② 리민의 이해 및 苦情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③ 리민의 복지 문화 후생에 관한 사항
- ④ 리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 ⑥ 리동 방위 및 리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읍, 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군조례에 의한 리동개발위원회는 리동장,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 리동대장 등 3명이 당연직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읍면장이 위촉할 리개발위원회는 리장이 추천하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행정리장과 그 하부조직인 반장 그리고 리동개발위원 등은 모두 군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에서는 이들을 모두 마을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읍·면장은 추진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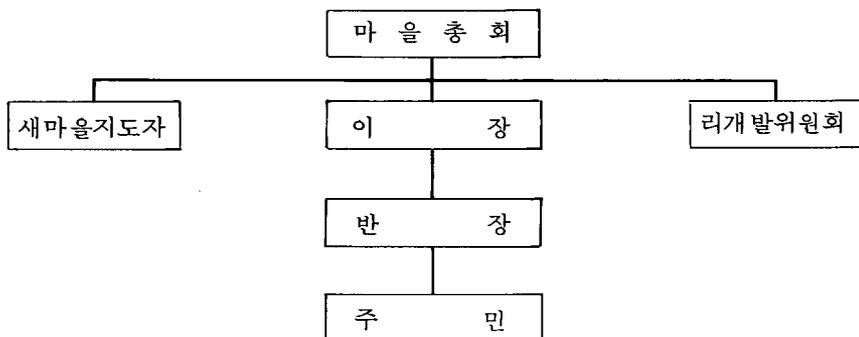
14) 물론 마을주민이 선출한 이장과 반장개발위원들을 읍·면장이 그대로 임명, 위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형성될 수 있다.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기능도 상부 기관의 행정지시사항의 전달, 주민의 계도와 계몽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들 조직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들의 의사에 의하여 자치기능을 갖추고 있다. 야화 2리에서는 마을총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며 총회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마을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마을총회의 의장은 리장이 아닌 개발위원장이다. 따라서 리장은 마을총회에 속한 하나의 행정기구에 불과하다.

야화 2리는 리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2명의 반장을 두고 있다. 반장은 반원의 추천에 의해서 리장이 임명한다.

그림 4 - 1 마을기구표



④ 회의 및 의사결정

행정리는 지역공동체로서 사회집단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집단의 목표 설정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의사를 결정 해야한다.

행정리의 회의는 총회와 임시총회 및 리개발위원회 등으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최소한 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토의 결정된다.

- ① 지도자의 선출
- ② 마을의 일년간의 회계결산
- ③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 ④ 마을개발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 협의 및 결정

총회는 년말에 개최하며 총회의 의장은 개발위원장이 된다. 야화 2리에서는 이장은 행정업무의 처리와 대정부 및 유관기관 업무를 담당하며 마을내의 의사결정 등에 관

한 사항은 마을총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총회의장과 리장의 직분을 구분하고 있다.

개발위원장과 개발위원 및 리장과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중 개발위원장, 이장, 새마을지도자는 전형위원회¹⁵⁾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개발위원은 마을주민들의 추천과 동의를 통하여 개발위원장이 임명한다.

임시총회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리장이 소집하거나 개발위원회 또는 주민 다수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된다. 그러나 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대부분 리개발위원회에 의해서 중요 사안의 협의, 결정, 집행이 되고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되어 추진을 받는다. 리개발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며 실질적으로 마을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지도자의 선출·예산결산 개발사업계획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주민총의로의 결되지만 춘계 대청소, 잡부금 등 정부가 부과하는 공과금의 개인별 부담결정, 새마을창고 임대, 구관장운영 등 마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마을행사 및 외부행사 예를 들면 면, 군 단위 체육행사 참가 등에 관련된 의사결정 등은 모두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만 연말 총회에 보고된다.

개발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소년회장, 반장은 당연직 개발위원이 되며 감사를 포함한 10명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른 마을에서와는 달리 야화2리는 이장이 개발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제반 새마을사업의 추진과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등을 위해서 면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간의 마을내 역할은 분명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다.

야화2리는 일찌기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총회에서는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투표에 의한 다수결 원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개발위원회등에서는 합의제에 기초한 의사결정방법이 지배적이다.

5 경비의 분담과 이익의 분배

행정리는 거주지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원이 결정되므로 마을행정이나 개발과정에서

15) 마을총회가 지도자선출을 위한 전형위원 5~6인을 선출하면 이들이 별도 협의를 거쳐 개발위원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후보를 총회에 상정하고 주민이 이를 선임투표로 결정한다.

발생하는 경비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비 부담은 대동계와는 달리 차등적이다. 즉 정부에서 부과하는 공과금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¹⁶⁾으로 분담하여 영세농가,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부분적 또는 전면 면제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행정세는 가구당 6,000 원씩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반장, 새마을지도자는 부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⑥ 재산관리

야화 2 리가 소유한 마을 재산은 부동산으로 새마을회관 (9 평), 새마을창고 (23 평) 및 구판장 (12 평)이 있으며 동산으로는 현금 190 만원을 마을기금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중 150 만원은 연리 13 %로 주민들에게 대출되어 증식되고 있다. 새마을창고, 구판장 등은 현재 임대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마을기금으로 적립된다.

나. 이익집단

① 쌀 계

가) 조직 목적

쌀계는 농토의 구입 등 부동산의 취득이나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 또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목돈 마련을 위해서 조직한다. 야화 2 리에 조직된 3 개의 쌀계의 조직목적 (계장이 조직한 목적) 을 보면 ① 부채청산과 자녀 학자금 ② 농기계 구입자금 마련 ③ 주택 건축비 마련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쌀계는 위와 같은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계의 규모가 쌀 50 ~ 100 가마 정도로 크다.

나) 구성원

쌀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목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이 목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열성에 동조해야 한다.

쌀계의 계장은 쌀계를 주도적으로 조직한 사람이 되며 그 구성원은 계장의 지도력

16) 야화 2 리 주민은 이와같은 공과금을 5 단계로 차등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17) 마을의 기금은 새마을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마을 주민들의 공동활동 이자 수입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표 4 - 3 쌀계의 조직현황, 1986

집단명	설립년도	구성원수	구성원의성	계의 규모	계의 지속기간
쌀계 A	1984	8	혼성	쌀 50가마	설립 8년후 해체
쌀계 B	1984	7	"	"	" 7 "
쌀계 C	1985	8	"	"	" 8 "

과 신용도를 믿고 동조하는 친한 친구, 이웃, 친척 등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쌀계 조직은 상호 신뢰가 있는 사람끼리 은밀히 조직되며 점조직의 형태를 갖는다.

쌀계의 구성원은 지연이나 학연, 연령, 성별 등에 구애없이 조직된다. 따라서 쌀계는 혼성 집단이 되는 경우가 흔하며 또래와 관계없이 조직되고 지연성을 갖기가 어렵다.

쌀계는 그 구성원이 7~8명으로서 그 지속기간도 7~8년으로 다른 사회집단의 존속기간보다 짧다. 그것은 쌀계가 상호 신용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계원간의 신용을 장기간 보장하기 어렵고 또 계가 장기간 지속될 때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계가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쌀계의 구성원, 특히 계장은 목돈 마련을 위해서 하나 이상의 쌀계에 여러 몫을 동시에 들기도 한다.

다) 기 구

쌀계는 계장 이외에 다른 내부 조직이 없다. 계장은 계의 조직책임자가 되며 계의 조직 운영과 신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계의 운영도중에 해체되거나 계원의 도주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모두 계장이 져야 한다.

반면 계장은 계 몫의 분배에 있어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계의 몫의 분배에 있어서 처음 1,2번과 끝의 번호는 중간번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첫 번호나 끝 번호 등은 대부분 계장이 선택하게 되고 그 댓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간번호를 친구나 친척 등에게 부탁하여 계를 성사시킬 책임을 진다.

라) 회의와 의사결정

쌀계는 추수하여 쌀을 도정한 후인 음력 11월과 12월 사이에 계날을 정하여 1년에 한번 모인다. 계가 열리는 장소는 매년 정해진 번호에 의해서 계몫을 타는 계원의 집이 된다. 계는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되며 간단한 계쌀 계산으로 끝난다. 계

몫을 타는 계원은 준비한 음식을 계원에게 대접한다.

순번에 의해서 몫을 타는 계원은 다른 계의 유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날의 식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계획이나 계운영에 관한 기록은 계장이 기록 보관한다.

쌀계는 계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의사를 결정할 사항이 없다. 계모임이나 몫의 배분은 관례에 따르거나 계 결성 당시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마) 경비분담과 이익분배

쌀계는 상호금융 성격의 저축 수단이므로 계가 결성되는 해부터 각기 정한 몫에 따라 계쌀을 모아 정해진 번호에 따라 몫을 태워준다.

쌀계가 정하는 계의 번호별 계쌀 부담액은 야화2 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계원수에 가감하여 적용한다. <표 4-4>는 쌀계의 번호에 따른 연차별 계쌀부담 내역으로써 년이율 2할이자를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상위 또는 하위 번호는 통상적으로 계장이나 계의 구성에 우선 동조하는 친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 유리한 몫을 차지한 사람들이 친분 관계나 혈연관계를 이용하여 중간 순위의 몫을 타인에게 담당지운다. 중간 번호를 담당하게 되는 계원들은 대부분 유리한 계 몫을 차지한 사람들도 도와 준다는 입장에서 쌀계에 가입한다. 이러한 관습은 쌀계가 경제적 이윤을 계산하는 식리계이지만 전통적으로 상부상조를 특징으로 하는 계의 기본정신을 지니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고 하겠다.

쌀계의 몫을 탄 계원들은 이 몫을 부채청산, 교육비나 의료비 부담, 주택건립, 농지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농지를 구입하거나 주택 등을 건립할 때 계의 한몫인 쌀 50가마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 계에 두 몫 또는 동시에 다른 계에 두 몫 이상을 가입함으로써 소요경비를 충당한다.

바) 규범과 통제

쌀계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저축성 계이므로 그 구성과 운영이 신중하다. 계장은 구성원의 선택에 있어서 그의 신용도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며 만약 구성원 중의 일부가 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타 구성원이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사고로 인하여 계원에게 손실을 끼칠 상황이 되면 이를 대신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고자에 대한 경제적, 법적 보상은 계원 전원이 지는 것이 아니고 계장이 단독 책임¹⁸⁾ 진다.

18) 사회적 이익집단의 경우 계 구성원의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계원 전체 구성이 공동책임을 지는 경우와 대조적이다.

표 4 - 4 쌀계의 번호별 계쌀 부담내역

연차 번호	1	2	3	4	5	6	7	8	계
1	50	9.5	9.5	9.5	9.5	9.5	9.5	9.5	66.5
2	9.5	50	9.0	9.0	9.0	9.0	9.0	9.0	63.5
3	9.0	9.0	50	8.5	8.5	8.5	8.5	8.5	60.5
4	8.5	8.5	8.5	50	8.0	8.0	8.0	8.0	57.5
5	6.5	8.0	8.0	8.0	50	6.5	6.5	6.5	51.5
6	5.0	6.5	6.5	6.5	6.5	50	5.0	5.0	42.5
7	3.5	5.0	5.0	5.0	5.0	5.0	50	3.5	33.5
8	3.5	3.5	3.5	3.5	3.5	3.5	3.5	50	24.5
계	50	50	50	50	50	50	50	50	

② 위 친 계

가) 조직목적

위친계는 마을이라는 대면적인 작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해 온 또는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또래들이 공통적으로 닥쳐오는 친상 등에 경제적, 사회적 협동을 통한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친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된다.

위친계는 이러한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자금을 조성하여 공동관리하고 그 잉여금으로 상을 당한 계원에게 보좌¹⁹⁾하며 계원 일동이 상례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지원함은 물론 친상과 다름없이 상례에 참여한다.

나) 구성원

위친계의 구성원은 마을 내에서 성장한 또래들 또는 성장한 후에라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자주 어울리고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친상을 맞게 되는 공통적인 사회적 의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야화 2리의 위친계는 남성위친계의 경우는 5세 미만의 연령격차를 지니고 있는 또래들로서 구성되며 여성위친계의 경우는 10세 정도의 연령격차를 지닌 또래들로 구성된다. 또한 남성 위친계는 20대 후반에 조직되었으며 여성위친계는 20~30대와 30~40대에 각각 조직되었다.

19) 보좌란 계원이 애경사를 당했을 때 계가 계원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4 - 5 위친계의 조직현황, 1986

계구분	대표자	조직년도	집단의성	구성원수*	집단의 재산	보좌조건
위친계	김영수	1962	남	14	쌀 10 가마	쌀 1 가마, 노력지원
//	신태근	1970	남	18	쌀 4 가마	//
//	유기월	1978	여	13	쌀 2.8 가마	쌀 10 가마 지원
//	기철순	1983	여	15	현금 27 만원	//

* 조직당시의 구성원수임.

위친계의 계원은 탈계, 제명,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원자격을 잃는다. 위친계는 또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폐쇄적이다. 그러나 계원이 탈계, 사망 등으로 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의 연고자가 그를 대신하여 계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친계는 시간이 흐를 수록 계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야화 2 리 위친계원 중 남성계원은 산업화 추세에 따라 이촌이 속출하여 그 구성원의 분포 범위가 공간적으로 크게 확대 되었다.

다) 기 구

위친계의 내부구조는 계장, 부계장, 총무, 재무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계업무를 관장할 유사를 두고 있다.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계업무를 총괄한다.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 유고시에 계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계의 소집, 운영, 서류보관 등 계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재무는 계의 재정 및 재산관리를 담당한다. 유사는 당년도 계쌀의 증식책임 을 지며 계날 계장소를 제공하고 계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역할과 당년도 계의 활동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계장과 부계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최고령 순으로 담당한다. 따라서 계장 유고시에는 부계장이, 부계장 유고시에는 다음 최고령자가 그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총무와 재무에게는 일정기간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사는 전체 계원이 1년마다 한번씩 윤번제로 담당하며 그 순서는 계책의 명부순으로 한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위친계는 정기적으로 년 1회 개최한다. 즉 년 1회 개최하는 계날이 정기총회가 된다. 야화 2 리의 위친계 계날은 남성의 계는 1월 3일, 여성의 계는 1월 11일과 1월 26일로 삼고 있다. 이와같이 계날을 양력으로 잡고 있고 정초휴가일 등으로 삼

는 것은 의지에 나가 취업하고 있는 계원들이 부담없이 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계는 대개 유사업에서 개최되며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어 오후 1시 경에 끝나며 끝날 때까지 참석하지 않는 계원은 불참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간 계의 결산 보고
- ② 계쌀의 대출과 수납에 관한 사항
- ③ 보좌지급에 관한 사항
- ④ 계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계규의 개정과 계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계 운영에 관한 사항

위친계의 의사결정은 합의제를 따른다.

마) 경비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

위친계는 계 구성 당시 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각출하고 이를 증식시켜 계원의 상고시에 보좌하고 계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계의 출자금은 현물인 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현물을 기준한 현금으로 바뀌었다. 출자규모는 쌀 1말을 기준으로 한다.

계원이 상고를 당했을 때 계가 지급하는 보좌는 계쌀 10말(대두)이며 계원들의 노동력 지원이 뛰어나다. 위친계는 보좌 대상자를 정해 놓고 있으므로 보좌 액수와 지급회수를 엄격히 적용한다. 따라서 각 계원은 계 성립시에 계책에 보좌 대상자를 지정해야 되고 지정된 보좌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좌가 완료되면, 계활동도 따라서 완료되고 계는 해체된다.

바) 재산관리

위친계의 계쌀은 1960년대 까지 長利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식시켜 왔다. 그러나 1972-74 기간에는 4할의 이자율을, 1975-77에는 3할을, 1978년 이후에는 2할의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계쌀을 증식시키는 책임은 당해년도 유사가 된다. 즉 당해년도 계쌀 대출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쌀 증식에 따른 이자를 유사가 책임져야 한다. 계쌀의 수요는 절대식량이 부족하고 화폐경제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1950-60년대에 많았으나 1970년대 이후 쌀자금 및 화폐경제의 일반화, 제도금융의 보급확대 등으로 계쌀 대출수요가 줄

있다. 따라서 계쌀 증식이 어려워 지자 계쌀은 현금으로 전환되어 농협등 금융기관에 정기예치하여 그 이자로 보좌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사) 규범과 통제

야화 2 리 위친계는 또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래집단으로서 위친계는 계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첫째로 위친계는 계 또는 상사에 불참하는 계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계에 1 회 불참하면 1 일의 성인 품삯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며 3 회 불참시에는 계명의 사유가 된다. 상사에는 남성의 경우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성위친계는 그러한 의무규정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토록 한다. 남성위친계의 경우도 다른 마을의 3 일 의무 참여와는 달리 3 일간의 상사기간중 1 일 이상만 참석하면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로 계원이 보좌를 타고 이주하여 탈계할 경우 계는 계원이 받은 보좌액을 회수한다. 또한 계원이 계의 보좌를 받지 않고 탈계할 경우에도 계에 기여한 출자금에 관계없이 보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혼 사 계

가) 조직목적

혼사계는 나이찬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주부들 사이에 조직되며 자녀들의 결혼시에 경제적·사회적 협동을 위하여 조직된다. 즉 자녀의 결혼을 맞으면 계원은 계로 부터 정해진 보좌를 받게 되고 계원들로 부터 혼사준비에 따른 노력지원을 받게 된다.

나) 구성원

혼사계의 구성원은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주부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혼기를 앞둔 자녀란 약혼등 결혼을 곧 눈앞에 둔다는 의미는 아니며 5년 또는 멀리는 10년 후에 결혼할 수 있는 자녀를 둔 주부들도 그 구성에 가담한다.

혼사계의 구성원도 혼기를 앞둔 자녀를 갖는 주부라는 점에서 또래적 성격이 있으나 그 특성은 위친계의 구성원 보다 약하다. 야화 2 리 혼사계 구성원 수는 각각 31명, 27명으로 나타나 위친계의 구성원 보다 크게 나타난다.

계원의 자격은 탈계, 계명, 사망 등에 의해서 자격을 잃는다. 혼사계도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번 결성된 계는 가급적 계원을 추가로 가입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계원이 탈계, 계명, 사망 등에 의해서 그 의무를 다하지

표 4 - 6 혼사계의 조직현황

계 명	설립년도	집단의 성	구성원수	재원조달방식	집단의재산	보좌조건
김영분계	1981	여	31	계원으로부터 쌀 3 되씩 각출 기금 증식	쌀 3.7 가마	쌀 3 가마
유기월계	1987	여	27	매 혼사시마다 각출	쌀 1 가마	쌀 2.7 가마

못하게 될 때 그 연고자 등이 이를 대리하여 계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다) 기 구

혼사계의 주요 임원은 계장과 부계장 및 총무가 있으며 전체 계원이 1년에 한번씩 윤번제로 맡아야 하는 유사를 두고 있다.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계무를 총리한다. 총무는 재정, 회계 등을 담당하고 계에 관한 각종 기록을 보관·정리한다.

유사는 계책의 순서 또는 보좌를 지급받은 순서에 따라 1년씩 윤번제로 담당한다. 유사직의 직무는 계의 재산인 당년도 계쌀(또는 계금)을 관리하며 1년에 1번씩 개최되는 계의 장소를 제공하고 참석한 계원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계장과 총무 등 임원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는다. 계장은 계원 중에서 최고령자가 자동적으로 담당한다. 따라서 계장의 임기는 계장이 사망, 탈계, 제명되지 않는 한 계속된다. 총무는 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계장이 임명한다. 따라서 총무의 임기도 본인이 사임하거나 탈계, 제명 또는 사망에 의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극히 드물게는 계원이 불신임하여 그 직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혼사계는 년 1회 정기적인 계를 한다. 계날은 두 혼사계가 양력 1월과 2월에 개최된다.

계는 당년도 유사 집에서 개최된다. 계는 오전 10시경부터 시작하여 오후 1시경에 끝난다. 따라서 오후 1시까지 계에 참석하지 않는 계원은 불참자로 간주되고 월금이 부과된다.

계에 상정되는 안은 다른 계와 비슷하다. 총무 또는 계장은 1년간의 계무를 보고하고 계쌀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며 계쌀 또는 계금의 대출계획을 확정된 후 계가 끝

난다.

계가 완료되면 유사는 계원에게 간단한 식사를 대접한다. 상계와 달리 혼사계는 계먹이를 유사가 부담한다.

혼사계의 의사결정은 합의제에 의한다. 계장과 총무의 결정은 물론 계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의 결정은 계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마) 경비부담과 이익분배

혼사계는 계 결성시에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공동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늘려서 그 수익금으로 보좌를 지급한다. 그러나 공동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계원의 혼사가 있을 때마다 정해진 보좌액을 염출하여 수합 지급하기도 한다. 이들이 지급하는 보좌액 기준은 모두 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원들이 각출하는 금액은 현금이 대부분이며 보좌지급도 현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계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이들 보좌액을 계원 총수로 균분하여 산출한다. 보좌는 계 결성시 그 대상자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고 보좌가 끝나면 계는 해체된다.

바) 재산의 관리

혼사계가 보관하고 있는 공동재산은 계원에게 대출하여 증식하여 왔으나 '80년대 이후 부터는 계쌀 대출의 수요가 줄어 이를 현금화하여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계원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대출한다. 1987년 현재 대출금리는 년 2할을 기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리는 사정에 따라서 조정되기도 한다.

사) 규범과 통제

혼사계는 제반 규범이 위친계보다 약하다. 그러나 계의 운영에 따른 규정만은 엄격히 지켜진다. 계원은 모두 계날 참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불참자는 쉼금을 물어야 한다. 쉼금은 쉼 1일에 대해서 성년여성 1일품삯을 기준한다. 계에 3회 불참하면 제명의 사유가 된다.

계원이 제명되거나 탈계할 때 계원이 기여한 금액은 반환해 주지 않는다.

혼사계는 계원자녀의 혼사에 전체 계원이 참석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좌를 타는 계원이 초청할 경우 전체 계원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사업에 따르는 각종 노력지원등을 한다.

④ 친 목 계

가) 조직목적

친목계는 구성원의 친목도모와 놀이를 주 목적으로 계를 조직하고 계의 운영을 위해 약간의 공동재산을 조성한다. 친목계의 특성은 계가 정하는 특정한 보좌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조직의 목적이 “계원 자신”이라는 점에서 타 집단과 다르다. 친목계는 계원들의 애경사에 상조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나) 구성원

친목계의 구성원은 또래의 성격이 짙다. 이길용 친목계는 1967년 조직되었고 당시 30~40대의 장년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초 이 친목계의 뿌리는 1958년 폐계된 대동계에 두고 있다. 대동계가 폐계된 이후 그 구성원이었던 마을 주민들은 그들만으로 구성된 친목계를 구성하였다. 그후 8명이 사망, 2명은 제명, 1명이 추가로 가입해서 현재 계원이 11명이다. 유기월계는 1974년 조직되었으며 조직 당시

표 4 - 7 친목계의 조직현황

계 구분	조직년도	집단의성	구성원수	집단의 기금	기금조성방법	보좌조건
이길용친목계	1967	남	11	쌀2가마	쌀1말씩 각출 증식	년2회 놀이
유기월친목계	1974	여	21	쌀13가마	쌀5되씩 각출 증식	〃

30~40대의 중년 주부들로 구성하였으며 2명이 탈계한 반면 2명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21명의 계원 수를 유지하고 있다.

야화2리의 친목계는 그 계의 목적이 놀이와 친목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인 계원 자격에는 비교적 개방적이다. 다만 신규 계원가입시에 기존 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비율에 따라 입계비를 부과한다.

계원자격은 본인의 사망, 제명, 탈계 등으로 소멸된다. 친목계는 계원의 사망, 탈퇴, 제명 등으로 계원이 감소하여 계가 성립될 수 없을 때 해체된다.

다) 기 구

친목계의 임원은 계장, 부계장을 두고 매년 계를 담당할 유사를 2명씩 둔다.

유사의 지정은 계명부 순으로 하며 유사의 역할은 계를 개최하고 계활동을 기록한

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친목계는 최소한 정기적인 계를 일년에 2번 개최한다.

첫번째 계를 봄놀이로 하고 두번째 계를 유사 집에서 개최한다. 따라서 봄놀이 유사는 놀이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가을 유사는 집에 모인 계원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나 읍내의 음식점에서 계를 하기도 한다. 친목계의 계경비는 유사가 부담한다.

친목계의 의사결정도 합의제에 의한다. 계장, 부계장은 연령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추대되며 총무는 계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계장이 임명한다. 친목계가 결정하는 제반사업과 운영 방안도 합의제에 의한다.

마) 경비부담과 이익분배

친목계는 계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의 공동자금을 조성한다. 이길 용계는 계원이 쌀 1말씩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증식시켜 왔다. 유기월계도 계원이 쌀 5되씩 각출해서 기금을 조성한 다음 계원들이 이를 증식해 왔다. 이와같이 증식된 계자금은 계원들의 놀이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된다. 또한 이들은 계원들의 애경사시 계규가 정한 일정액의 보좌를 한다.

사) 규범과 통제

친목계는 계 구성원의 응집력을 가장 중요시 하므로 계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불참 계원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한다. 불참계원에 대한 벌과금은 불참 1일에 대해 하루 품삯으로 한다. 친목계는 계원의 상사에 참석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5) 새마을부녀회

가) 조직목적

새마을부녀회는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 제 141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기존의 마을 단위 여성 사회집단들을 통합하여 조직하였다. 야화 2리에서도 1977년 7월에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마을단위 여성 사회집단을 새마을부녀회로 개편하였다.

새마을 부녀회는 부녀자들의 복지향상과 새마을정신의 생활화로 건전한 가정의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며 새마을운동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조직했다. 이러한 목

적의 달성을 위해서 새마을부녀회는 부녀교양사업, 소득증대사업, 인보활동, 저축증대 가족계획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부녀회 육성지침을 ① 근검절약 ②저축의 생활화 ③ 가족계획의 실천 ④인보복지사업 ⑤가정생활의 과학화 ⑥부녀부업의 확대로 정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의 규약(예규)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일반교양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 ② 자녀교육에 관한 사업
 - ③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업
 - ④ 환경 및 의·식·주 생활개선(공동취사장 운영, 고정가구 부설 등) 및 가정의 쾌 간소화에 관한 사업
 - ⑤ 농촌영양개선사업
 - ⑥ 부녀자 영농지도사업
 - ⑦ 농기계 조작 사용 훈련사업
 - ⑧ 국민건강 및 국민영양사업
 - ⑨ 가족계획 및 국민영양사업
 - ⑩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사업(예: 구판장 운영)
 - ⑪ 농촌 복지문화사업
 - ⑫ 협동 봉사사업(공동작업실시, 공동작업장 운영)
 - ⑬ 농번기 유아원 운영
 - ⑭ 저축사업(금고사업, 절미저축, 폐품수집)
 - ⑮ 가정부업 및 공동부업 개발
 - ⑯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부녀새마을 사업 및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그러나 야화2리에는 새마을 부녀회의 규약을 제정하여 비치하지 않고 농협에서 제시한 예규를 준용하고 있다.

나) 구성원

새마을부녀회의 예규는 마을내에 거주하는 20~60세의 부녀자들로 새마을부녀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60세이상의 부녀자는 명예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야화2리의 새마을부녀회는 26~67세의 부녀자 5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6세에서 67세까지의 부녀자 중에는 크게 3개 정도의 또래 집단이 형성된다. 20대의 부녀자와 50~60대의 부녀자들 사이에는 모녀간 또는 고부간의 연령차이가 있

으므로 서로 회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부녀회원들은 새마을 부녀회에 명단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며 새마을 부녀회장을 비롯한 몇몇 열의 있는 소수의 회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 기 구

예규에 따르면 새마을부녀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2인, 감사 1인, 총무 1인 및 부장²¹⁾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마을에서 나타난 새마을 부녀회의 기구는 회장과 총무 뿐만이 확인된다.

새마을부녀회가 이와 같이 내부기구의 기능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의 업무가 단순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새마을부녀회는 자생적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농촌지도소 및 농협등과 빈번히 접촉하고 그들로부터 행정지시와 지도²²⁾를 받는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회의 제반 기록보관과 회계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임원의 임기는 예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예규에 규정된 합의는 총회와 월례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야화2리 새마을부녀회는 총회를 년 2회 1월과 6월에 개최하고 있으나 월례회는 갖지 않는다. 예규에 나타난 총회에서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규약의 승인 및 변경
- ② 임원의 선출
- ③ 결산 및 예산 승인
- ④ 임원의 해임 및 제명
- ⑤ 본회사업의 기본방침 및 기금조성과 운용에 관한 결정

새마을부녀회의 의사결정은 재적회원 2/3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이루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선출은 물론 모든 사업계획은 회원의 합의에

21) 새마을 부녀회 예규에 나타난 부장은 저축부, 환경·생활개선부, 가족계획부, 교양활동부, 소득개발부 등이 있다.

22) 정부기관인 군은 사회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마을부녀회 군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유관기관의 협력사업 및 새마을 부녀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새마을 부녀회 군협의회는 군부녀아동계장, 새마을계장, 군보건소방역계장, 농촌지도소 개발계장, 농협군지부 기획지도과장으로 구성한다.

기초하여 결정되고 집행된다.

새마을부녀회의 회장은 계집단의 계장선출과는 달리 연장자순보다는 지도력, 활동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합의로 선출한다.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장이 면, 지도소, 보건지소, 농협 등 유관기관을 수시 방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또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계획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무는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임명한다.

새마을부녀회는 년 1 회 전체회원이 모여 정기총회겸 회식을 한다. 또 5월 8일 어버이날에 연로한 노인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

마) 경비분담과 이익분배

새마을부녀회는 계집단과는 달리 회원들의 출자에 의해서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부녀회의 공동작업과 절미운동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해 왔다.

비자생적 집단으로서 새마을부녀회는 농촌부녀자들의 사회활동과 생활향상을 위한 학습단체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즉 농촌 환경개선, 의식주등 생활개선, 유아원 운영,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및 보건의에 관한 계몽·지도·실천, 가정의례계몽·실천지도, 건전가정 육성지도, 각종 교육, 농촌 복지문화사업·사회봉사 사업등은 새마을부녀회의 주요 학습활동의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가 이와 같은 학습활동에는 매우 미약하며 저축활동, 구판장 이용사업 등 경제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바) 재산관리

야화 2 리 새마을부녀회는 주로 공동작업을 통해서 조성한 기금 60 만원을 농협에 정기 예치하고 필요할 때에 인출하여 회원들에게 대출하기도 한다. 이때 대출이자는 년 리 20%를 적용한다. 정기예치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매월 새로운 적금불입재원이 된다. 이러한 공동기금은 일정금액에 도달하면 새마을부녀회원의 놀이, 교육활동 공공시설 확보 등에 사용하거나 전체회원이 균분하여 분배하기도 한다.

사) 규범과 통제

새마을부녀회는 회원들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규범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20~60세의 마을내 부녀자는 누구든지 새마을부녀회의 회원자격을 갖고 있으나 뚜렷한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2. 사회망과 지도력 구조

가. 사회 망

야화 2리 마을주민들의 사회망(social network)은 또래집단 및 또래집단 내에서의 동질적인 경제활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야화 2리가 혈연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또래집단의 성격이 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마을주민 중 남성경영주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의사교환망(communication network)을 조사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2>과 같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야화 2리의 의사교환망은 또래집단에 따라 크게 60대 이상의 의사교환망과 40~50대의 의사교환망 및 고립된 소수의 의사교환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3>은 60대 이상의 의사교환망을 분리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의사교환망은 3명의 중심인물과 2명의 고립된 가구주를 나타내 준다. 3명의 중심인물 중에서 26번은 현직 이장이다. 그는 군 장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한 후 1967년도에 이 마을에 이주한 사람으로 이장을 맡으면서 가장 많은 가구주와 의사교환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11번 인물은 새마을운동 초기에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한 인물이며 1950년대부터 자생적인 협동조합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마을지도자다. 현재는 리개발위원회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그는 마을내 다른 개발위원들과 의사교환망을 형성하고 있다.

40번 인물은 마을에서 공식적인 지도자의 직책은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60대의 노령층의 가구주들과 의사교환망을 형성하고 있다.

26번, 11번, 40번 가구주 이외에 중요한 인물로 33번과 46번 가구주를 들 수 있다. 33번 가구주는 1960년대에 야화리 협동조합장을 역임했고 1950년대 자생적 협동조합운동에 투신했던 인물로서 현재는 리개발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46번 가구주도 1950년대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마을내에서 보다 마을밖의 지역개발과 정치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인물이다.

<그림 4-4>는 40~50대의 의사교환망을 분리한 것이다. 이 의사교환망에서 중

그림 4 - 2 사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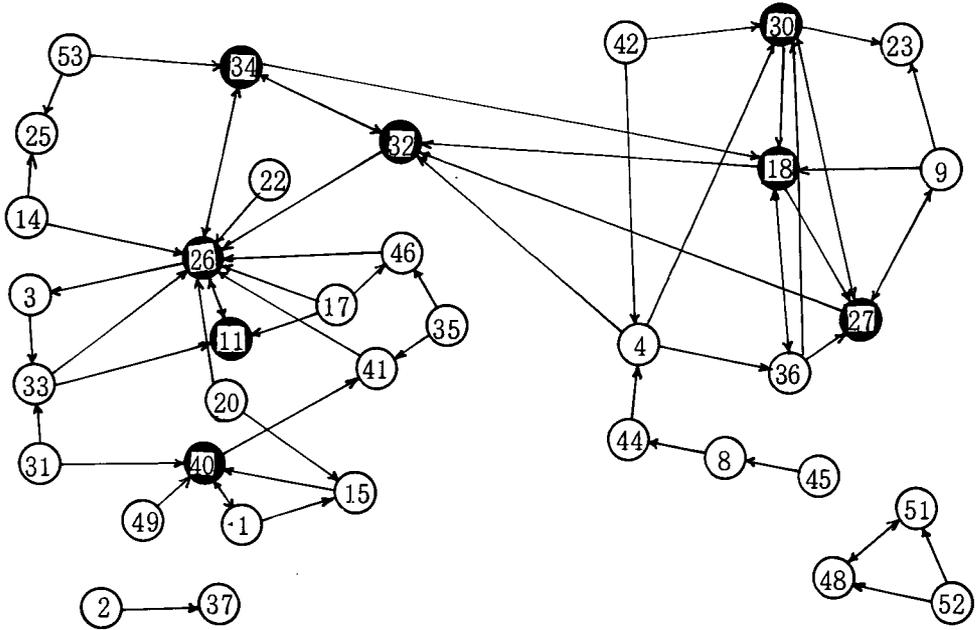


그림 4 - 3 사회망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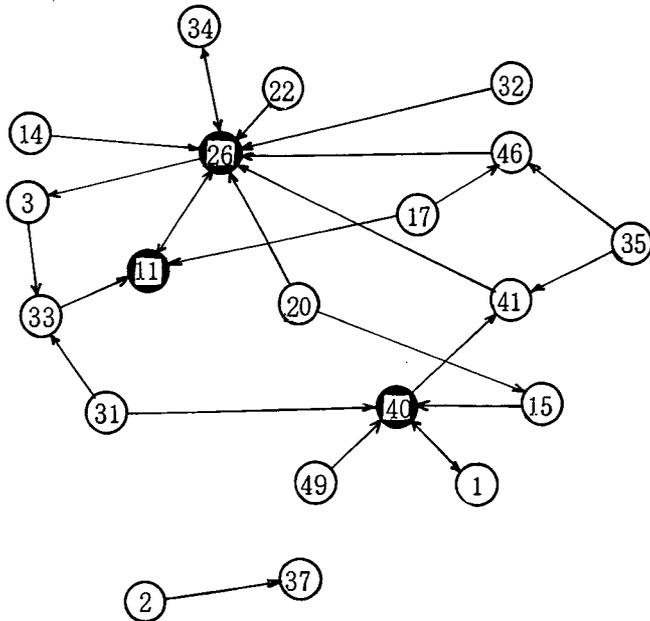


그림 4 - 4 사회망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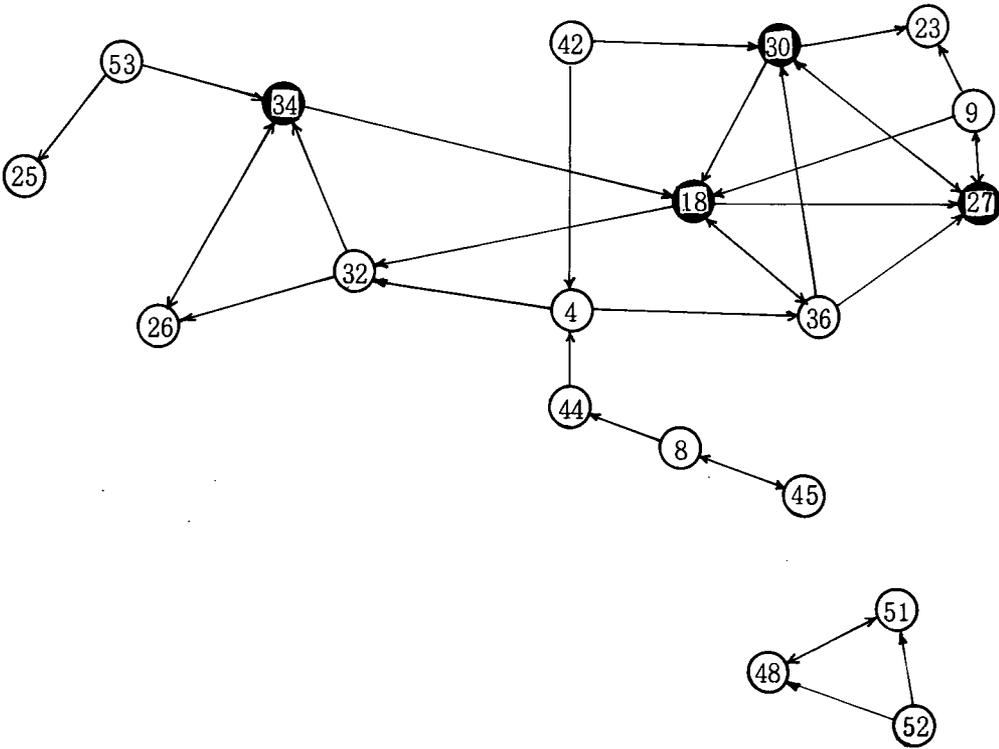


표 4 - 8 소시오메트리에 나타난 여론지도자의 경제 사회적 특성

구 분	가구번호	연 령	경지면적 (평)		마을내직책	비 고
			소 유	경 작		
60 대	11	62	6,757	6,757	개발위원회 감사	전 새마을지도자
	26	59	1,990	4,790	이 장	
	40	58	770	-	-	
40-50 대	18	51	2,600	5,200	개발위원	전이장 ○○당 면책임자
	27	51	7,910	7,910	//	
	30	51	3,600	7,200	//	
	32	50	1,830	2,130	-	
	34	42	5,650	6,250	개발위원	

요한 인물은 18번, 27번, 30번, 32번, 34번 가구주이다. 이들 중에서 18번, 27번, 30번, 32번 가구주는 50대 초반의 또래들로서 경작규모²³⁾가 큰 대농들이며 상호 긴밀한 의사교환망을 형성하다.

34번 가구주는 현 개발위원이며 과거에 이장직을 담당했던 인물로서 ○○정당의 채운면 책임을 지고 있다.

48번, 51번, 52번 가구주는 30대 중반의 젊은 이들로서 독자적인 의사교환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이 중 48번, 51번 가구주는 동업자의 관계에 있고 52번 가구주는 48번, 51번 가구주와 별도로 육계장을 경영한다. 40~50대의 의사교환망에서 4번 가구주도 새마을지도자로서 마을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상과 같은 의사교환망에서 나타난 중요 인물들은 대부분 마을내에서 이장, 반장, 개발위원 등을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담당했던 사람들로서 의사교환망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여론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지도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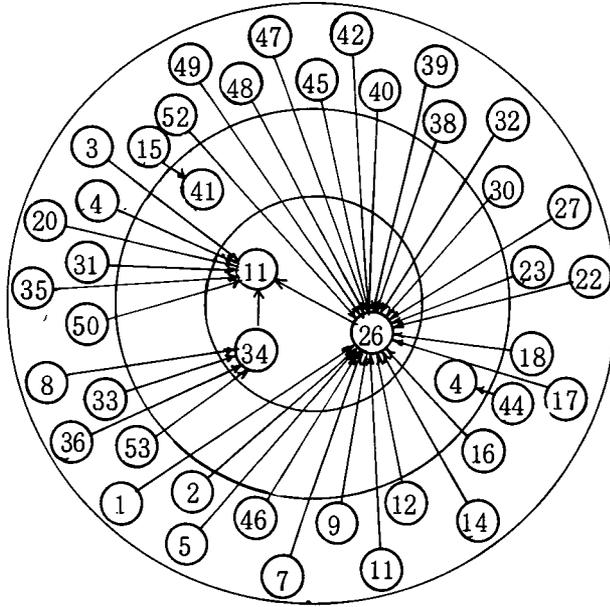
야화2리 주민들은 바람직한 마을지도자로 11번, 26번, 34번 가구주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야화2리의 지도력구조는 3인이 정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중 26번 가구주가 가장 많은 주민들로부터 마을지도자로 신망을 받고 있으며 다음의 11번, 34번 가구주 순이다.

26번 가구주가 1967년도에 외지에서 전입한 인물임에 반하여 11번 가구주와 34번 가구주는 이 마을에 3대 이상 살아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주민들이 26번 가구주를 마을지도자로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26번 가구주 개인의 지도력과 자질이 인정됨과 동시에 이 마을 가구주의 49%가 1945년 이후 전입한 가구들이라는 점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혈연에 의한 사회적 연계망이 약한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림 4-5〉에서 나타난 지도력 구조를 볼 때 26번과 34번 가구주는 11번 가

23) 이 중 32번 가구주는 경지규모가 적다. 그러나 그는 비닐하우스재배를 통하여 집약적인 농업으로 경작면적의 열세를 극복하고 있다.

그림 4 - 5 지도력 구조



구주를 마을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1번 가구주는 마을의 두 지도자가 지지하는 지도자로서 그의 지도자적 위치는 26번과 34번 가구주 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야화 2 리에서 35번 가구주와 46번 가구주는 마을밖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35번 가구는 이 마을 40대 이상의 주민층에서 유일하게 대학교육을 받은 인물로서 수년간 야당인 ○○정당 논산군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수세거부운동 등 농민운동을 폭넓게 수행하는 인물이지만 마을 안에서는 주민들과 긴밀한 의사교환망도 없고 주민들로부터 마을지도자로서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46번 가구주도 수십년간 야당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해 온 인물로서 ○○정당의 논산군 ○○부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논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또한 채운면 개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당 채운면 조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주민들과의 의사교환망이 긴밀하지 못하고 마을지도자로서의 신임도 약하다.

야화 2 리 주민들의 지도자관은 매우 현실적이다. 주민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마을 지도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이장, 개발위원 등이며 마을밖에서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마을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도가 약한 편이다.

야화 2 리에 있어서 마을지도자의 요건은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된다.

또한 마을지도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비교적 높다. 소시오메트리에 나타난 여론지도자는 현시적인 마을지도자와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종교 및 문화활동

가. 종교생활

야화 2 리 주민들은 대부분 종교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독교를 믿는 가구는 5호로서 9.8%, 불교신자 가구는 7호로서 13.7%, 기타 종교²⁴⁾ 가구는 3호로서 5.9%를 차지할 뿐 종교가 없는 가구는 36호로서 70.6%나 된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불교, 기타종교 신자가구와 무종교가구라고 답변한 가구에서 24호가 고사를 지내고 있는 점을 볼 때 전체 가구의 47.1%가 관습적으로 무교를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교를 행하고 있는 가구들은 대체로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등 가신을 수호신(tutelary gods)으로 믿는다. 야화 2 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믿는 가의 수호신은 터주신이며 다음의 성주신, 조왕신, 조상신 등이다.

기독교 신자가구 5가구는 모두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만큼 신앙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불교신자가구 7호 중에서는 년 10회이상 절에 예불 드린다는 가구가 1호 있을 뿐이고 2호는 년 1회, 나머지 4호는 불교를

24) 여기서 기타종교로 답변한 가구는 무교를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다.

표 4 - 9 가정수호신을 믿는 가구수의 분포

가정수호신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조상신	업 신	측간신	우마신	수문신	삼 신
가구수	10	22	6	4	3	3	3	3	4

표 4 - 10 종교별 가구수와 신앙생활

종 교 별	가 구 수	예배 (예불) 횟수별 가구수				
		주 1 회	년 10 회 이상	년 5 - 10 회	년 5 회 미만	하지 않음
기독교	5	5				
천주교	-					
불 교	7		1		2	4
기 타	3					
무종교	36					
무응답	1					
계	52					

믿는다고 해도 절에는 가지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문화와 세시풍속

야화 2리는 마을이 형성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문화유적과 문화적 전통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마을에서 200 m 떨어진 방축천에 가설된 원목다리²⁵⁾는 조선시대에 건축된 아취형 돌다리로서 길이 16 m, 폭 2.4 m, 높이 2.8 m의 규모이며 지방문화재 제 10 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다리는 충청도의 은진과 강경 및 전라도의 전주를 연결하던 중요한 다리였으나 호남선 철로와 신작로가 신설되면서 구도로가 폐지되고 원목다리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야화 2리 주민들은 농경과 관련된 세시풍속을 전통적으로 지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산업화의 물결과 증가하는 이농으로 말미암아 1960년대 중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야화 2리 주민들이 실행해 왔던 세시풍속을 간략하게 살펴

25) 원목다리는 일면 院項橋라고도 한다. 현재 다리는 1900년(광무4년)에 홍수로 파괴된 다리를 승려와 민간인들이 자금을 각출하여 재건한 것이다. 이 다리는 기록에 의하면 조선조 영조 6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나 일설에는 백제의 성왕때 놓여진 다리라고 하기도 한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 월

○ 설날

설날에는 각 가정별로 4대조까지의 제사를 당내의 종가에서 지낸다. 그러나 지손의 조상에 대한 제사는 종가에서의 제사가 끝난 다음 지손별로 별도로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당내간 씨족원이 한자리에 모여 떡국을 끓여 먹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 이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한 다음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풍물을 치며 하루를 즐긴다.

○ 안택굿

정월 초사흘날경부터 대보름 사이에 마을 농악대가 가가호를 방문하여 안택굿²⁶⁾을 쳐 주었다. 농악대는 팽과리, 장고, 북, 징 등 사물과 호적 등으로 이루어지며 안택굿은 터주, 조왕, 용왕(우물) 등을 돌며 상쇠의 선창에 따라서 그집의 안택을 빌어주고 덕담을 했다. 안택굿이 끝나면 각 가정에서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굿패에게 사례로 현금이나 쌀을 제공하곤 했다. 이때 걷은 돈이나 쌀은 마을의 공동경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안택굿은 1970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다리놓기

강이나 냇가의 사람왕래가 있는 곳에 다리를 놓아 적선하면 액을 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초에 토정비결이나 점괘를 보고 신년 운수가 나쁜사람은 정월 14일날 밤가마니에 흙을 담아 다리를 놓는 풍속이 있었다. 그러나 냇가에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지면서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게되자 다리놓기 풍속은 사라졌다.

○ 춘 축

입춘날 春聯을 대문이나 장광, 부엌문 또는 기둥에 써 붙이고 송축하는 행사로서 흔히 “立春大吉 建陽多慶” 또는 “雨順風調 時和豐年” 등 문귀를 써 붙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사라지고 몇 가구만이 전통을 잇고 있을 뿐이다.

○ 정월 보름날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대동 율놀이를 했다. 정월 14일날

26) 이를 일명 지신밟기라고도 한다.

은 각종 나물과 함께 오탁밥을 해먹으며 보름날에는 부스럼이 생기지 말라고 부럼을 깨 먹었다. 또한 정월 보름날 오전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하는 소위 “더위 판다”는 습관이 있었다. 이와같은 오탁밥과 부럼깨는 습관은 오랜 겨울동안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물, 지방질 등을 보충해주는 자연적인 생활리듬의 한 습관으로 보이며 더위 파는 관습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하도록 하는 관습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오탁밥과 부럼을 깨 먹지만 더위를 파는 습관은 사라지고 없다.

○ 석전

정월 보름날은 인근 화산리 주민들과 편싸움하는 석전놀이가 있었다. 석전은 두 마을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하며 돌과 몽둥이를 이용해서 실전을 방불케하는 겨울철 놀이로서 싸움에 이기는 편의 마을에 풍년이 든다는 전래의 말이 있다. 석전은 1960년대 초에 사라졌다.

② 이 월

○ 영등맞이

이월 초하루는 풍신으로 여기는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부엌의 찬장아래에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우순풍조와 가내안일을 기원하는 영등맞이제를 지내왔다. 초하루날 비가오면 비 영등할머니가, 바람이 불면 바람 영등할머니가 내려온다고 믿었으며 이월 보름과 스무날 사이에 다시 올라간다고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제를 지내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9호가 영등맞이제를 지내고 있다.

○ 경칩먹기

경칩날에는 야화 2리에서 3~4십리 떨어진 전라북도 완주군의 운주면이나 논산군의 양촌면의 계곡을 찾아가 개구리알을 먹는 습관이 있다. 경칩먹기는 오늘날에도 일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③ 삼 월

○ 화전놀이

3월달에는 진달래 꽃을 따다 화전을 부쳐먹는 풍속이 있었다. 화전놀이는 일종의 봄놀이로 주부들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나 야화 2리는 주변에 산이 없고 진달래 따기도 번거로워 지금은 실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주부들의 놀이계가 봄, 가을로 계를 하고

있으며 봄계는 꽃놀이를 하기 때문에 주부들의 봄철 계 행사가 화전놀이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 한 식

한식은 節祀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지만 오늘 날에는 성묘하는 것으로 간소화 되었다.

④ 사 월

○ 초파일

초파일에는 불교신자를 중심으로 절에 불공드리는 관습이 있다. 이날은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함께 관축사 등 절을 찾아가 예불에 참가하고 하루를 쉬며 즐겼다. 오늘날에는 불교신자의 일부만이 절을 찾아가서 예불을 드릴 뿐이다.

⑤ 오 월

○ 단오

단오절은 전통적으로 큰 명절이기 때문에 조상에게 節祀를 지내고 하루를 즐겼다. 그러나 야화2 리에서는 단오절에 節祀를 드리는 풍속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단오날 부녀자들이 널을 뛰고 그네를 타고 놀았으며 방축천에서 창포를 꺾어다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고 창포뿌리를 깎아서 비녀²⁷⁾처럼 꽂았다. 또한 단오절을 전후해서 속을 베어 말려 약으로 사용하거나 가루를 내어 약술을 빚었다. 이러한 단오절의 세시풍속은 1960년 초부터 사라졌다.

⑥ 유 월

○ 유두

6월 15일 유두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일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마을 부녀자들은 방축천에 가서 머리를 감고 액막이로 주민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유두연이 있었다. 또 유두일에는 떡과 호박전 등을 부쳐 논에 나가 풍년을 기원하는 용신제를 지내고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오늘날 용신제의 유습을 지키는 가구가 13호나 된다.

27) 창포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꽂으면 두통을 앓지 않는다고 믿는 속설이 있다.

7 칠 월

○ 칠석제

칠월 칠석제는 마을공동으로 지내는 칠석제와 각 가정별 칠석제로 구분된다.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칠석제는 공동우물을 깨끗히 청소하고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마을길 등을 보수한다. 용신제는 농경사회에 일반적인 관습이지만 이마을의 용신제는 식수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 마을은 현재 남아있는 공동우물이 유일한 우물이었으며 이 우물이 개발되기 전에는 방축천의 개울물을 식수로 사용했었다. 방축천은 간만시에 해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수로 부적합 했고 또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물을 관장한다고 믿는 용왕에게 제사 지내는 용신제는 이 마을 주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마을의 공동제사였다.

칠석날 지내는 용신제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제사였으며 제물로 소를 잡아 제를 지냈다. 이 때의 용신제는 두레먹이와 동시에 치러진다. 즉 이날 잡는 소는 두레품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구입한 것이며 제사를 지낸후 각 가구가 두레에 참여한 두레품의 비율로 고기를 나누었다. 또 이날 마시는 술은 주민들이 경작하는 마지기 수에 비례해서 추렴했으며, 용신제가 끝나면 술과 고기를 먹으며 하루종일 두레를 놀았다. 그러나 칠석날 용신제의 제물로 소를 잡는 것은 두레품삿에 따라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돼지를 잡기도 했다.

이러한 용신제는 1970년대 이후 각 가정별로 자가수도를 놓기 시작하면서 점차 축소 되었으며 두레가 사라지면서 소를 잡아 제사지내는 관습도 사라졌다. 현재는 이 우물을 이용하는 10호만이 참석하며 칠석날 공동우물을 깨끗히 청소한 다음 이들이 준비한 제물²⁸⁾을 우물앞에 차려 놓고 제를 지낸다. 이들이 지내는 용신제는 무교적 신앙과 유교적 의식이 결합된 형태이다. 축문은 읽지않고 제주의 기원²⁹⁾으로 끝난다. 이때 제의 절차는 일반가정의 제사절차³⁰⁾와 같으며 동제에서 실시하는 가정별 기원은 하지 않고 소지도 하지 않는다. 용신제가 끝나면 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28) 이들이 준비하는 제물은 과일 3종류(포도, 수박, 참외), 명태포, 조기, 고기류 1종, 나물 3종, 국, 밥, 시루떡 등이다.

29) 제주가 기원하는 기원문은 다음과 같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년 한해도 우리마을 질병을 사해 주시고 시화풍년 국태민안하게 하여 줍소서”

30) 용신제의 절차는 ①강신, ②참신, ③헌작, ④고축, ⑤음복 순이다.

가정별로 지내는 칠석제는 떡, 밥 등 음식과 과일을 제물로 차려놓고 농사의 풍년과 가족들의 무병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오늘날에도 칠석제를 지내는 가정은 19가구나 있다. 또한 칠석날에는 논에 가면 곡식이 안된다고 하여 들에나가 일하지 않고 하루를 마을에서 쉬며 술먹이등을 하며 놀았다.

○ 백중

백중날은 농사일을 다 끝내고 주인이 머슴이나 일꾼들에게 용돈을 주고 하루를 즐기도록 하는 날이었다. 따라서 머슴들은 주인에게 용돈을 타서 논산이나 강경장에 나가 씨름판 구경을 하고 음식등을 사먹으며 쉬고 놀았다. 백중놀이는 1960년대에 사라졌다.

8 팔 월

○ 추석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을 준비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한다. 야화 2리는 추석날 윷놀이와 농악놀이를 했다. 윷놀이는 마을 전체 주민이 편을 갈라 놀았으며 한편에서는 농악대가 안택굿과 같이 지신밟기를 하고 놀았다. 오늘날 윷놀이는 남아 있으나 농악놀이는 성원부족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 9 월

○ 중앙절

음력 9월 9일 중앙절에는 주부들이 장독대에 떡을 해놓고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이러한 유습으로 중앙절에 떡을 해먹는 가구가 아직도 많다.

10 10 월

시월은 상달이라고 해서 초 사흘날 경에 각 가정마다 햇곡으로 떡을 빚어 가신들에게 고사를 지냈다. 1960년대에는 성주신, 터주신, 조상신, 조왕신, 삼신, 업신, 측간신, 수문신 등 가신들에게 두루 떡을 바치고 정성을 드리는 고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24호만이 고사를 지내고 있고 고사를 지내는 대상도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조상신 정도로 간소화되고 있다.

III 동 짓 달

동지달의 동지날은 작은 설이라고 해서 명절로 지켜왔다. 또한 이날은 잡귀를 쫓는다고 팔으로 붉은죽을 쑤어 대문이나 벽에 뿌렸다. 오늘날에는 동지의식이 간소화 되었고 팔을 구하기 어려워서 팔죽을 쑤어 먹는 집도 드물어 졌다.

4. 문화생활 및 에너지 이용

가. 전기·전자식 생활용품의 보급

야화2 리에 전기가 보급된 것은 1975년도의 일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왔다. 전기의 보급으로 이제까지 마을공동우물을 사용하던 각 가정이 전기모터를 이용한 자가 수도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농업생산 현장에서 양수작업, 탈곡잡업 등에 전기의 사용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변화는 TV와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기용품의 보급에 의한 것이다. TV의 보급은 외부사회의 정보를 직접적이고 대량적으로 각 가정별로 전달해 주고 있으며 시각적 효과에 의한 의식주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TV의 보급은 도시문화의 대량적 이입으로 인해 농촌주민이 문화적 열등감에 빠지기 쉽고 이농을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렌지 등 생활용품의 확대 보급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여가활동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자동화된 전기밥솥의 보급으로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나머지 시간을 경제 또는 사회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냉장고의 보급은 생선, 고기, 우유 등 고단백 식품의 저장,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조리, 가공기술의 보급과 함께 음식의 신선도를 높혀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985~88기간 중의 전기·전자등 생활용품의 보급율의 변화를 보면 가스렌지의 보급이 가장 높고 다음이 냉장고, 칼라TV의 순이다. 가스렌지의 보급은 1987년 이후 급격히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농촌 주부들이 연료를 가스로 대체함에 있어 오는 노동의 쾌적성을 추구함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값싸고 이용이 간편한 가스를

표 4-11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구 분	1985*		1988**	
	보유대수	비 율	보유대수	비 율
칼 라 T V	25	49.0	46	88.5
V T R	-	-	2	3.8
냉 장 고	38	74.5	52	100.0
전 기 밥 솥	48	94.1	45	86.5
가 스 렌 지	3	5.9	47	90.4
전 축	7	13.7	6	11.5

* 1985년도 조사 가구수는 51호

** 1988년도 조사 가구수는 52호

읍면단위까지 보급할 수 있는 보급망의 확충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취사연료의 가스화는 주부들이 부엌을 立式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나. 교통·통신수단의 보급

야화 2리는 논산읍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전화가 가설되었다. 이 때는 채운면단위의 수동식 교환전화였으나 1984년도에 논산군의 광역 자동식 전화망에 편입되었다. 1985년도의 전화보급은 51호 중 35호에 다다라 68.6%의 보급율을 나타냈으나 1988년도에는 52호 중 49가 전화를 가설하여 전화보급율은 94.2%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가정이 전화를 소유하게 되자 전화는 마을 안에서의 주요 통신수단이 되었고 면사무소는 물론 군청 등 공공기관과의 직접대화도 전화를 통하여 하게 되었다. 또한 전화를 통하여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딸기, 비닐채소 등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논산, 대전등 도매시장으로부터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확시기, 수확량 등을 결정하는 등 전화가 농산물 유통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새마을운동 이후 설치한 마을의 앰프시스템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시키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전달되는 공지사항 등이 앰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주민총회소집 등 의사전달도 앰프방송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1985년도에는 개인의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가 4대 있었으나 1988년도에는 7대

로 늘었고 자가용 2대중 1대는 승용차이며 1대는 트럭³²⁾이다.

야화2리 주민들의 신문구독은 1985년과 비교해 볼 때 별다른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1985년도에 일반신문으로 일간지를 구독하는 가구가 8호, 농업관련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12호 였으나 1988년도에는 각각 9호와 10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월간지를 구독하는 가구도 1가구로 1985년과 변함이 없다.

다. 에너지 이용

1985년도 야화2리 주민들은 전체가구의 74%가 난방연료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화목을 사용하는 가구는 24%에 불과하다. 이는 야화2리가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을 구하기 어렵고 벚짚을 연료로 사용하기 보다는 사료나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탄이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88년도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92.3%에 이르고 벚짚 등 화목이용 가구는 7.7%로 줄었다.

취사연료는 전기에서 가스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1985년도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66%였으며 다음이 석유 20%, 화목 8%로 나타났다. 그러나 겨울철의 취사연료로는 연탄이 52%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다음이 화목으로 38%의 사용율을 보였다.

1988년도에는 취사연료로 여름·겨울 모두 가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아졌다. 여름철에 취사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61.5%였고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25%였다. 1985년도와는 달리 겨울철에 취사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50%에 달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32.7%로 나타나고 있다. 1985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연탄을 모두 난방용으로 사용할 뿐 취사연료로 이를 사용하는 가구는 한 가구만 있을 뿐이다.

32) 트럭을 소유한 가구는 47번 가구로서 농산물 등의 운반업을 한다.

표 4-12 난방 및 취사연료

구		분		1985	1988*
난 방		화	목	12 (24.0)	4 (7.8)
		연	탄	37 (74.0)	47 (92.2)
		석	유	1 (2.0)	-
취 사	여 름	화	목	4 (8.0)	5 (10.4)
		연	탄	1 (2.0)	-
		석	유	10 (20.0)	-
		가	스	2 (4.0)	26 (54.2)
		전	기	33 (66.0)	17 (35.4)
	겨 울	화	목	19 (38.0)	5 (10.9)
		연	탄	26 (52.0)	1 (2.2)
		석	유	-	-
		가	스	1 (2.0)	27 (58.7)
		전	기	4 (8.0)	13 (28.3)

* 1988년도 조사대상 52 가구중 응답자수는 난방 51 가구, 취사 50 가구 였음.

제 5 장

공 간 구 조

야화 2리는 조선시대부터 충청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주막촌 또는 街村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에 가깝게 접해 있어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았다. 특히 일제시대에 신설된 23번국도와 호남선 철도의 개설로 야화 2리는 대전, 서울 등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대도시 진출도 뒤따라 일어났으며 논산읍과 대전시 등의 도시화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야화 2리는 전형적인 평야 수도작지대에 위치한 농촌으로 마을은 금강의 지류인 방축천변의 저습 범람지에 입지하고 있다. 주택은 농경지보다 약간 높은 지대에 집중되어 집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농경지는 저습한 평야지에 널리 펼쳐져 있다. 1960년대까지 방축천의 범람으로 이 평야지는 홍수와 한발의 피해를 번갈아 받아왔으나 1967~69년도에 실시된 경지정리와 방축천의 제방정비공사 및 양수장 설치로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었고 1982년도에 실시한 방축천의 2차 보수공사 및 1984년도의 배수장 설치공사로 이 지역은 50년 빈도의 큰 홍수에도 견딜만한 배수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마을 내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1967~68년도의 경지정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1972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에 의해서도 현저히 영향을 받았다. 새마을운동의 결과로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 농로 등이 확장 또는 개설됐고 정부가 지원한 창고 등을 건립하였으며 하수도 등을 정비하였다.

표 5 - 1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년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	지원	자력
1972	소 계		1,734	302	1,432
	마을회관	15평	668	182	486
	안길확장	800 m	245	-	245
	농로개설	1,000 m	456	110	346
	우물보수	1개소	40	10	30
	담장개량	300 m	325	-	325
1973	소 계		614	144	470
	하수구설치	300 m	424	104	320
	하수구복개	100 m	190	40	150
1974	소 계		500	150	350
	마을창고	20평	300	100	200
	공동구판장	5평	200	50	150
1975	소 계		1,466	-	1,466
	지붕개량	8동	480	-	480
	농로보수	1,000 m	316	-	316
	담장개량	100 m	485	-	485
	하수구보수	250 m	185	-	185
1976	소 계		499	228	271
	하수구보수	650 m	499	228	271
1977	소 계		480	80	400
	공동작업장	50평	480	80	400
1978	소 계		173	-	173
	농로보수	890 m	173	-	173
1981	소 계		1,500	1,000	500
	하수구덮개	150 m	1,500	1,000	500

1. 주민생활권

야화 2리 주민들의 주 생활중심지는 논산읍이다. 논산읍은 논산군청 소재지로서 군청과 세무서, 보건소, 농촌지도소,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있고 중·고등학교와 종합병원 등 교육 및 의료기관이 있어 공공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결혼식, 계모임 등 사회, 문화적 행사들도 논산읍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강경읍은 황산나루를 통한 물산의 집산으로 논산읍보다 인구 및 시장세가 컸다. 따라서 야화2리 주민들에게 강경읍은 논산읍 보다 중심성이 컸다. 그러나 내륙교통이 발달되어 논산읍이 주변 도시들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충청남도의 남부지역 중심도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의 변화로 논산읍은 1970년대 초반부터 강경읍을 앞질러 성장하게 되었고 야화2리 주민들의 생활중심지도 강경읍에서 논산읍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강경읍은 야화2리 주민들에게 아직도 하나의 작은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경읍이 인구와 시장세에서 쇠퇴하는 추세에 있지만 과거 변영의 영향으로 야화2리 주민들의 생활은 여러 면에서 강경읍과 연결되어 있다. 강경읍에는 지방법원지원, 검찰청지청, 경찰서 등 공안기관들이 있어 이 분야의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강경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강경상고, 강경여상 등 학원, 지연 등의 친목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면소재지인 화산리 메꽃은 면사무소가 있어 주민등록 등 제 증명의 발급과 정부정책의 전달 등 일상적인 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경찰지서 등 기관이 있어 일상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시장기능이 없고 논산읍 및 강경읍이 불과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미약하다.

대전은 논산읍에서 직행버스로 약 40분이 소요된다. 야화2리 주민들의 생활필수품과 기초수요가 대부분 논산읍과 강경읍에서 충족되고 있으므로 대전은 논산읍이나 강경읍만큼 중요한 중심지는 아니다. 다만 대전은 자녀들의 대학진학,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획득, 취업 등의 장소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연무읍과 은진면도 5일시장이 서기 때문에 과거에는 야화2리 주민들에게 중요한 장소였다. 그러나 논산읍의 성장과 이에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논산읍과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접촉이 증가하면서 연무읍과 은진면의 5일시장은 야화2리 주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한편 야화2리 주민들의 통혼은 비교적 근거리에서 이루어져 왔다. 논산군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한 경우가 전체 가구의 67.5%로 나타나며 논산군 이외에 충청남도 내의 지역에서 선택한 경우가 10.0%, 도외 지역에서의 배우자를 선택한 경우가 22.5%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권의 변화추세를 연대별로 살펴볼 때 1960년대 이전에는 도외 지역에서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었으나 인구이동이 잦아지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도외지역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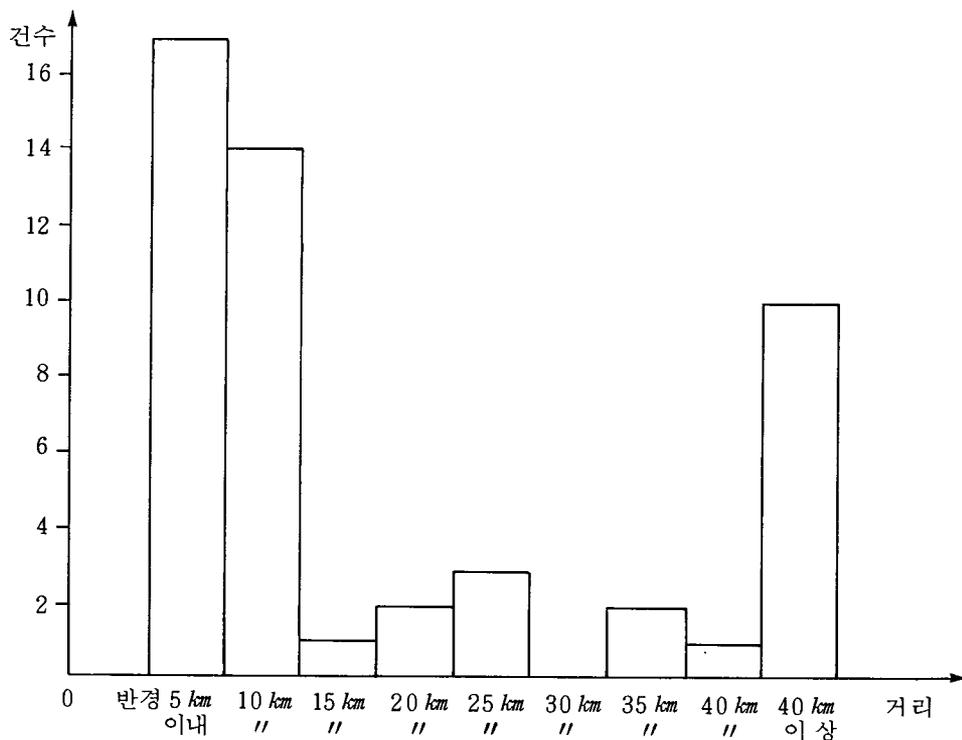
표 5 - 2 주민 생활중심지의 주요시설

구 분	공공기관및시설	시장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문화시설
논산읍	군청, 세무서, 교육청, 농촌지도소, 우체국, 농협, 농산물검사소 지소, 축협, 농지개발조합, 산림조합, 은행,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 공영버스터미널	백화점, 수퍼마켓, 상설시장, 5일시장	보건소, 종합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의원, 약국, 약방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도서관, 공연장(극장), 음식점, 숙박업소, 다방, 이·미용업소, 목욕탕, 유기장
강경읍	지방법원지원, 검찰청 지청, 경찰서, 은행, 농협, 우체국, 공영버스터미널, 전매지청, 기차역, 포구	상설시장, 5일시장	보건지소, 의원, 한의원, 치과 의원, 약국, 약방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공연장(극장), 음식점, 숙박업소, 다방, 이·미용업소, 목욕탕, 유기장
화산리	면사무소, 단위농협, 우체국, 농촌지도소 지소	-	보건지소	-	음식점, 다방, 유기장

표 5 - 3 통혼권의 변화, 1945~85

구 분	1950년이전	1950-'60	1970년이후	계	
본 마을	-	2	-	2 (5.0)	
면 내	3	1	1	5 (12.5)	
군내	연무	1	2	2	5 (12.5)
	은진	2	1	2	5 (12.5)
	성동	1	1	2	4 (10.0)
	기타	2	4	-	6 (15.0)
도 내	2	1	1	4 (10.0)	
도 외	1	2	6	9 (22.5)	
계	12	14	14	40 (100.0)	

그림 5 - 1 통혼거리별 혼인건수



2. 마을공간구조

가. 주거공간

① 주택의 분포구조

야화 2리는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밀집된 집촌이다. 마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농경지가 마을 보다 낮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마을의 전체적인 향배는 서향이다. 따라서 마을 안길은 서쪽에 있는 농경지를 향해서 농로와 연결되고 있으나 마을과 농경지와의 접근도는 양호한 편이 아니다. 주택은 전체의 61.5%가 남향을 취하고 있으나 서향 주택도 26.9%에 달하여 마을의 향배와 함께 주택도 서향을 취한 사례가 많다.

1950년대만 해도 이 마을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빈촌 중의 하나였다. 1945년 이전 이 마을 주민들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주

표 5 - 4 주택의 향배, 1987

주택의 향배	호 수	비 율 (%)
동	5	9.6
서	14	26.9
남	32	61.5
북	1	2.0
계	52	100.0

민들의 가옥은 부속사 없는 3칸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1945년까지 이 마을 최대의 지주였던 申氏 가는 한 울타리 안에 본가와 분가한 아들 집 2동, 친척의 주택 1동, 그리고 창고와 부속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1950년대의 농지개혁과 이웃 마을의 또 다른 지주와의 訟事로 농지를 처분하고 재력을 잃자 1987년 현재 그의 집은 8필지의 대지로 분산되어 8호가 분할 주거하고 있다. 그 중 신씨는 1호만이 남아 있다.

이 마을에 주택의 배치에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이후가 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새마을운동에 의해서 이 마을의 도로는 물론 담장, 주택, 변소 등이 개량되었고, 새마을회관과 창고, 구판장 등 공공시설물이 건축되었다.

둘째로는 1970년대 이후 나타난 농가경제의 향상이다. 1972년 이후 도입된 통일계통 신품종의 재배와 1976년 이후 실시된 경지정리 및 양수장, 배수장 설치 등으로 새로운 수도작 재배기술이 도입되었고, 재배환경이 개선되어 단위당 생산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농가잉여이며 농가 경제력의 향상으로, 창고, 부속사, 사랑채 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세째로,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복합경영화 현상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 이 마을은 수도단작 또는 벼 후작으로 논보리 등을 재배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벼 후작으로 딸기 비닐하우스 재배가 도입되었고, 수도단작의 농업유형에 축산과 양송이 등 특작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영농의 합리화 현상은 이에 필한 건물로 축사, 창고, 양송이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축산이다. 1986년 12월말 현

표 5 - 5 마을내 건축물의 증감

()는 1953년 대비 증감된 동수

구 분	1 9 5 3	1954 ~ 1970	1971 ~ 1987
주 택 (안 채)	48	51 (3)	53 (5)
주 택 (사랑채)	5	8 (3)	17 (12)
창 고	1	1	26 (25)
축 사	-	-	18 (18)
양 송 이 제 배 사	-	-	2 (2)
계	55	60 (5)	116 (61)

재로 이 마을에는 한우 43두, 돼지 9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우사육농가 중 20두 이상 사육농가가 1호 있으며, 5~20두 사육농가는 2호가 있다. 축산의 전업농 출현은 야화2리와 같이 주택이 밀집된 집촌마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첫째로, 축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문제다. 가축분뇨는 반드시 축사 근처에서 정화되어 처리되어야 하나 이러한 정화시설 없이 방치됨으로써 하수구는 물론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다.

둘째로, 가축분뇨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보건·위생상의 문제다. 이러한 현상은 야화2리와 같이 밀집된 마을에 있어서 주거환경을 조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현인이 된다.

양송이 재배와 같은 특수농업도 오염의 발생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대형 양송이 재배사가 인가 근처에 있으므로 그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은 주거환경을 조악하게 한다.

향후 이와 같은 축산, 양송이재배가 증가할 때 이 마을의 주거환경은 더욱 조악해 질 우려가 있다. 더욱이 논산읍의 근교에 위치하므로 도시형 공장 등이 유치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주택구조

평야마을 주택의 기본형은 3칸 주택이다. 전통적인 3칸 주택의 구조는 그림에서와 같이 방 들과 부엌 및 쪽마루로 되어 있으며, 가로 8.4m, 세로 3.6m로 건평은 26.64㎡이다. 3칸 주택의 변형으로 3칸 겹집이 있다. 이는 3칸 기본형을 따라서 3칸 겹집은 3칸 기본형의 배에 달하는 건평을 갖는다. 야화2리의 주택은 그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표 5-6>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

그림 5 - 2 주택배치도,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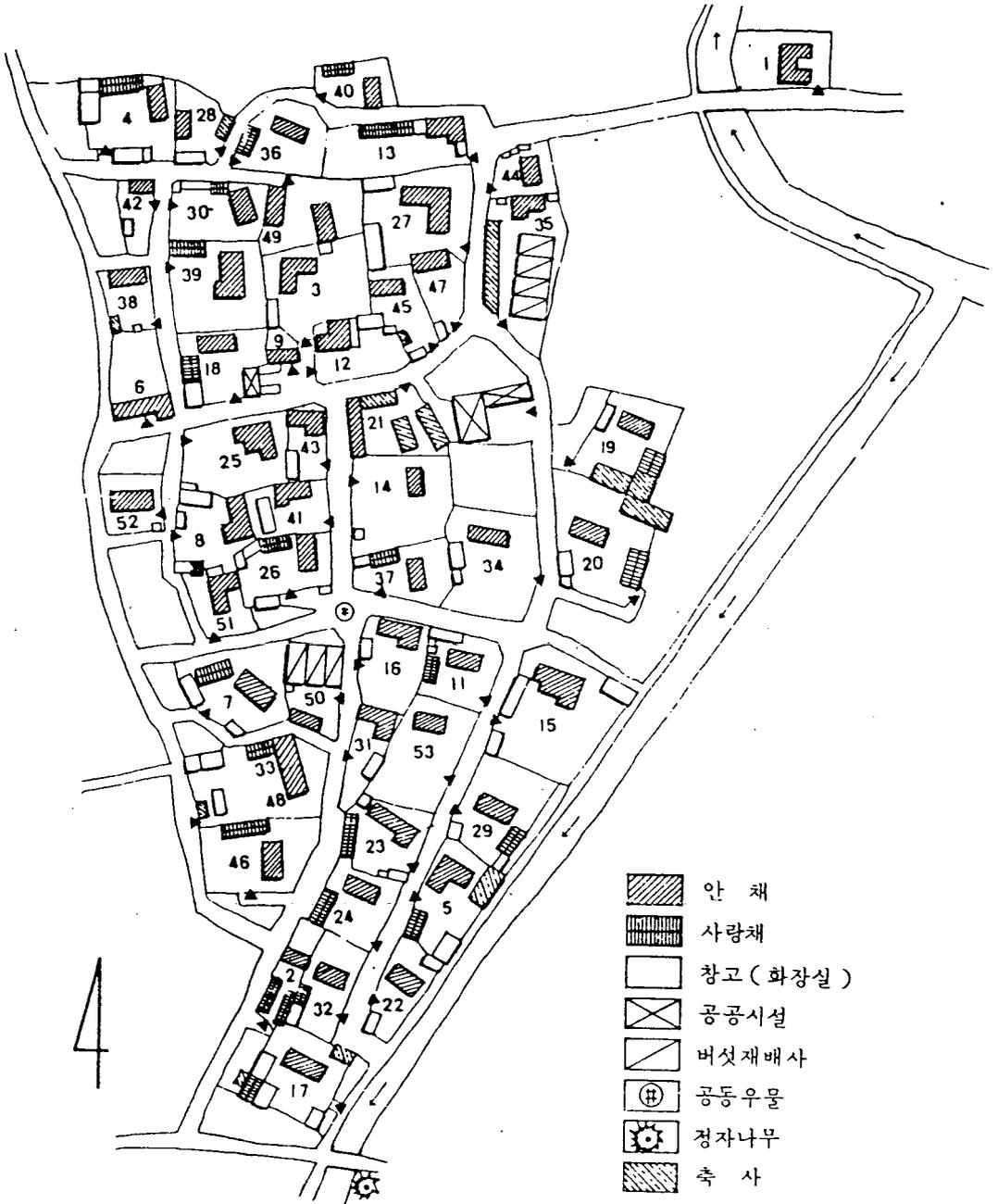


그림 5 - 3 주택배치도,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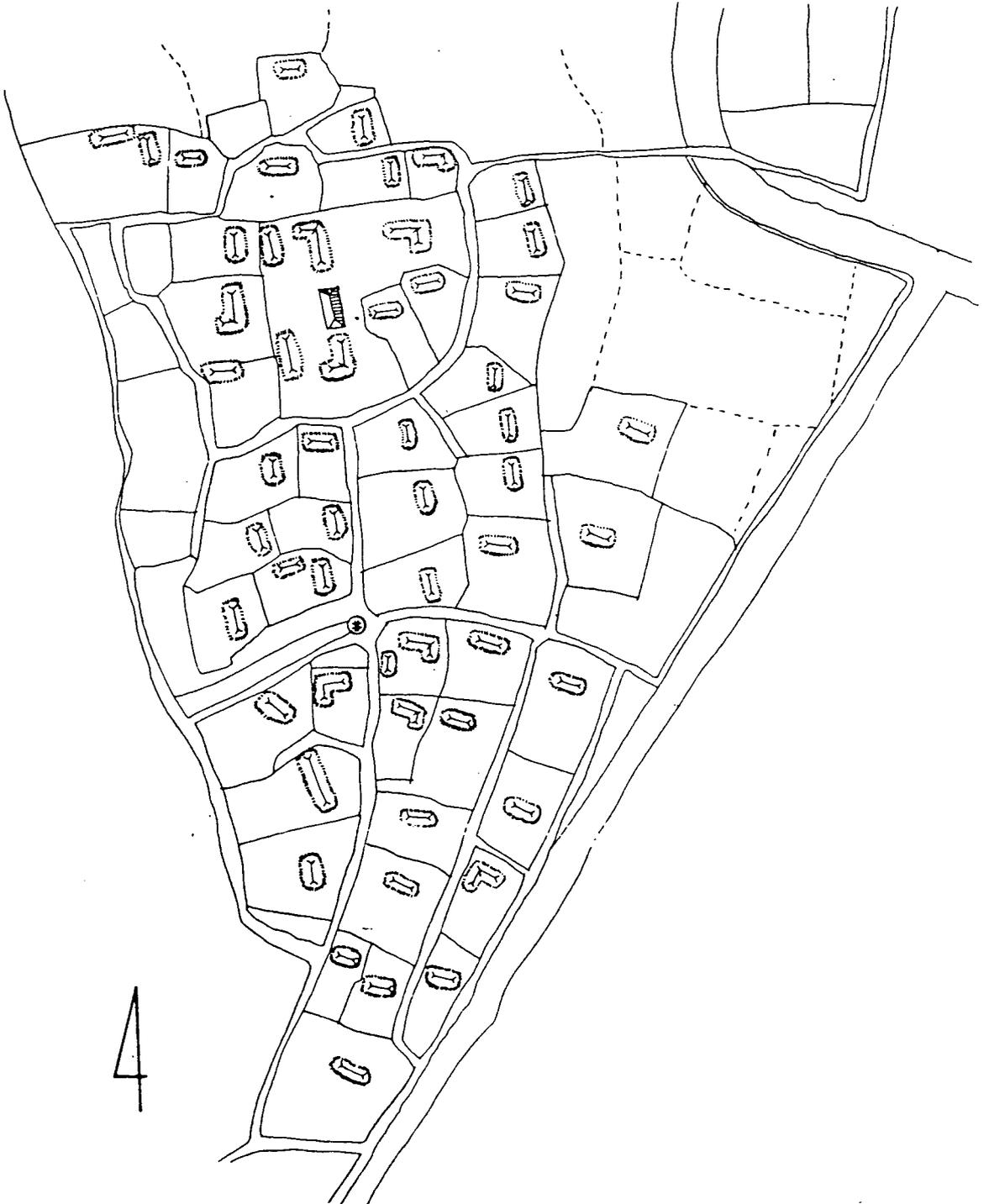


그림 5 - 4 주택배치도,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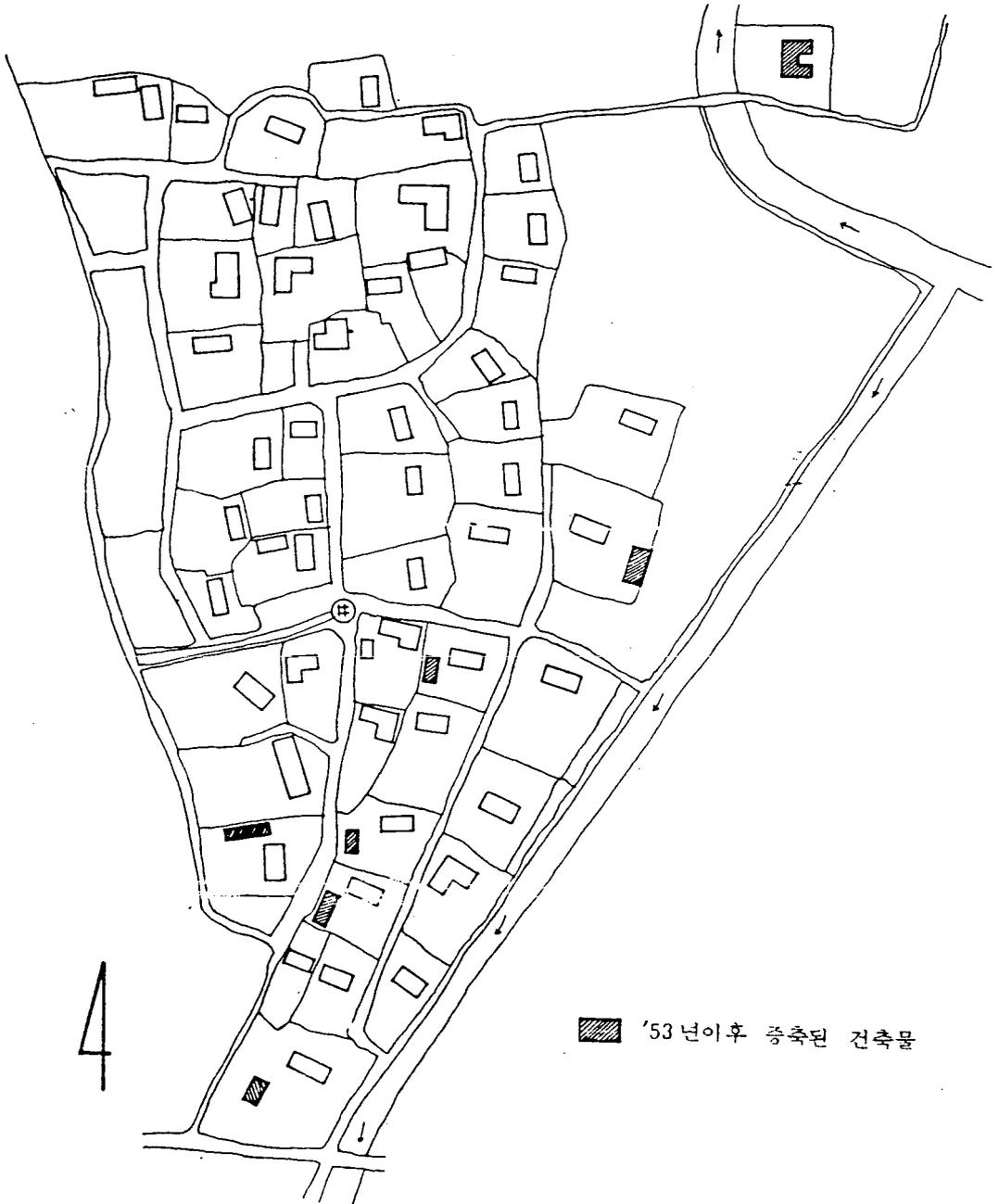


그림 5-5 3칸집의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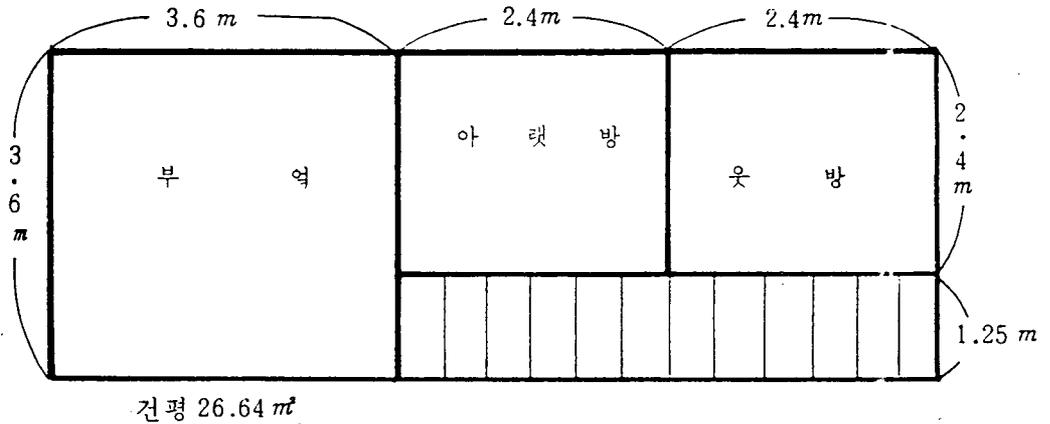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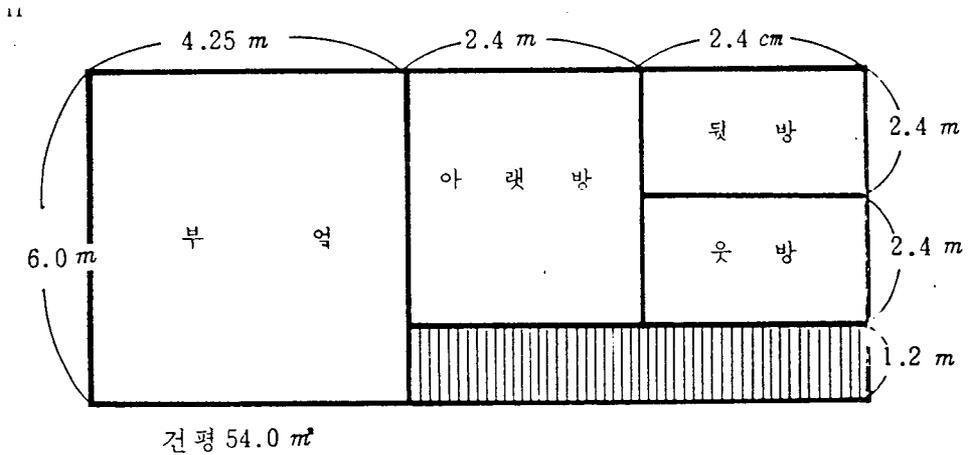


그림 5-6 3칸겹집



이 야화 2리의 주택은 대부분이 3칸 주택의 기본형에다 추가로 사랑채 등 부속건물을 갖춘 B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C형과 공간 구조상으로 큰 차이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C형은 건축단계에서부터 주택의 기능과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진 반면에 B형은 A형의 주택 소유자가 경제적 향상과 공간분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상 공간분화를 이룬 점이 다르다.

가) A형 주택

전통적인 3칸 주택구조로서 방 2, 부엌 1, 마루 1를 갖는 단순한 주택으로 <그림 5-7>과 같다. 이 유형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3칸의 구조물이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수적으로 찻간, 뒷간, 헛간 등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택은 아랫방과 옷방의 고래가 통하여 있어 부엌에서 한 아궁이를 통하여 두 방에 동시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는 부엌에서 취사와 난방연료를 동시에 해결하고, 두 방의 난방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료절약은 물론 노동력의 절약까지도 고려된 에너지절약형 주택설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은 취사장과 조리장 등의 간격이 멀고 항상 외부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므로 주부의 동선이 길고 불편하다. 또한 난방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되었으나 집 자체가 외부로 개방되어 있어 벽, 창문 등을 통한 보온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붕은 흙, 짚 등으로 단열되므로 1970 년대에 개량된 시멘트 블럭에 의한 기와집보다는 보온이 우수하다.

한편 전통적인 3칸 주택은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다. 아랫방과 옷방은 장지문 하나로 분리되어 있어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적 공간이 확보되기 어렵다. 또한 방문은 곧바로 외부로 연결되므로 집 자체가 외부를 향하여 개방적이다. 따라서 개방된 마루는 이웃에 항상 공개되어 있다.

전통적인 가옥 구조에 있어서 아랫방은 민속신앙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마을에 있어서 아랫방은 성주신, 조상신, 산신을 모시는 신역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과 가장의 부인인 주부가 차지한다. 만약 가장이 사망하면 그 집의 대를 잇는 자가 이 방을 차지하게 되고, 가장이 사망하지 않고 안방을 장성한 아들에게 물려 주었다면 부모가 가장권을 아들에게 넘겨 주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된다.

나) B형 주택

전통적인 3칸 구조에 사랑채 등 부속건물이 추가된 형태의 주택이다. 신축한 사랑채(별채)에는 노부모 또는 나이찬 자녀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 이것은 가구원수가 늘었기 때문보다는 경제·사회적 여유가 생기면서 부부, 부모, 성년의 자녀간에 서로 지켜야 할 사생활을 위해서 사적 공간의 분화가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택도 개방적인 구조와 주부의 동선이 길다는 단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또한 주로 70년에 증축된 부속건물들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족당 구성원수가 감소하자 기거용의 방으로 쓰이기 보다는 주로 농작물 등의 수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C형 주택

야화 2리에서 C형의 주택유형은 적게 나타난다. 그것은 이 마을의 주택유형이 기

본적으로 3칸 단독주택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형 주택의 소유자는 1945년을 전후한 자작농 계층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C형에서 안채는 3칸 구조를 가지며, 사랑채는 사랑방과 함께 우사, 창고(헛간) 등을 구비하고 있어 남성들의 생활공간이자 생산 및 수납공간이 된다.

라) D형 주택

D형 주택은 70년대 이후 새로운 주택설계에 따라 새로운 건축자재인 시멘트 및 붉은 벽돌 등을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주택설계에 의한 주택구조는 기본적으로 도시형 주택이다. 이 주택의 설계상 특징의 첫째는 마루가 주택의 중앙에 설계되어 있고, 마루로부터 각 방과 주방, 화장실로의 연계가 이루어지므로 취사, 난방, 조리, 화장실이용 등을 위한 동선을 크게 줄인 점이다. 둘째로는 전통적인 3칸 주택이 갖는 개방적 구조를 폐쇄적이고 사적 공간으로 바꾸어 설계된 점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방문을 열면 이웃집과 마주보던 개방적이었던 일상생활이 대문, 현관문, 방문이라는 3층의 장애물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째로는 주택의 난방 및 취사연료가 기존의 신탄이나 장작 등에서 연탄, 가스, 전기 등 연료로 바뀌는 것을 전제하여 설계된 점이다. 야화2리와 같이 신탄 및 장작 등의 연료가 부족하여 연탄이나 석유, 가스 등을 많이 사용하는 마을에서는 이러한 설계가 연료수급면에서는 무리가 없으나 중산간 마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5 - 6 주택의 기능별 공간구분

구 분	대 지(A) (B/A%)	구 분				
		계(B) (%)	주 거	생 산	수 납	기 타
A형	205.9 m ² (22.1)	45.6 m ² (100.0)	33.6 m ² (73.7)	-	8 m ² (17.5)	4 m ² (8.8)
B형	293.4 (32.9)	104.8 (100.0)	54.8 (52.3)	8.4 m ² (8.0)	36.9 (35.2)	4.8 (4.5)
C형	391.3 (27.0)	105.7 (100.0)	53.4 (50.5)	11.3 (10.7)	35.6 (33.7)	5.4 (5.1)
D형	272.1 (34.7)	94.5 (100.0)	64.5 (68.3)	-	24 (25.4)	6 (6.3)
계	1,162.7 (30.2)	350.6 (100.0)	206.3 (58.8)	19.7 (5.5)	104.5 (29.0)	20.2 (5.7)

표 5-7 난방 및 취사연료 사용현황

연료구분	난방	취사	
		여름	겨울
화목	12	4	19
연탄	37	1	26
석유	1	10	-
가스	-	2	1
전기	-	33	4
계	50	50	50

자료 : 오내원, 김종채, 최양부 (1986, 84)

표 5-8 방수별 주택수

방수	주택수	방총수 (A)	현재사용방수 (B)
1	2	2	2 (100.0)
2	20	40	37 (92.5)
3	22	66	51 (77.2)
4	8	32	25 (78.1)
	52	40(2.69)	115 (82.1)

* 방당인구수 2.0명

마지막으로 D형 주택은 기본적으로 도시형 주택 유형을 따랐기 때문에 농촌주택의 특징의 하나인 생산 및 수납공간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점이다.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D형 주택의 B형, C형 주택보다 생산 및 수납공간이 현저히 적다.

한편 이 마을의 주택은 69%가 1946년 이후에 건축되었으며, 특히 1970년 이후에 건립된 주택이 36.5%에 이른다.

평야마을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해 오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초·중반에 증축된 사랑채 등의 방 시설은 1970년대에 비하여 인구對 비율이 높은 편이다. 1987년 현재 평균 방당 인구는 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방수의 82.1%가 활용되고 있다.

그림 5 - 7 A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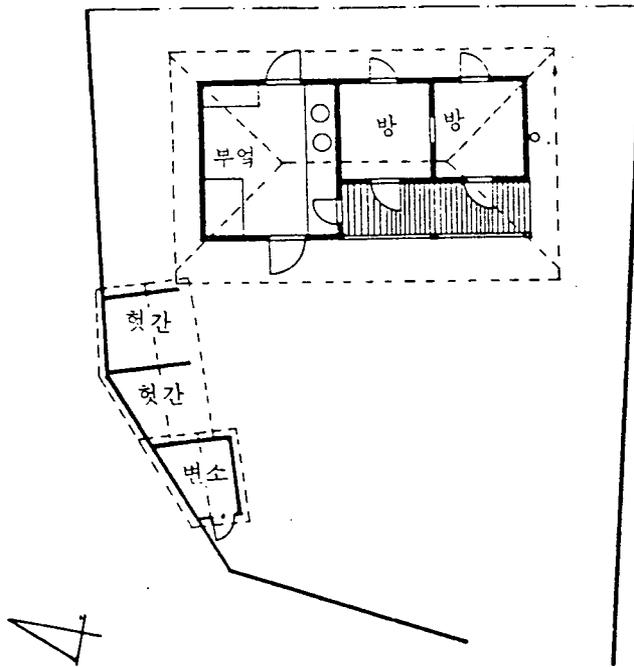


그림 5 - 8 B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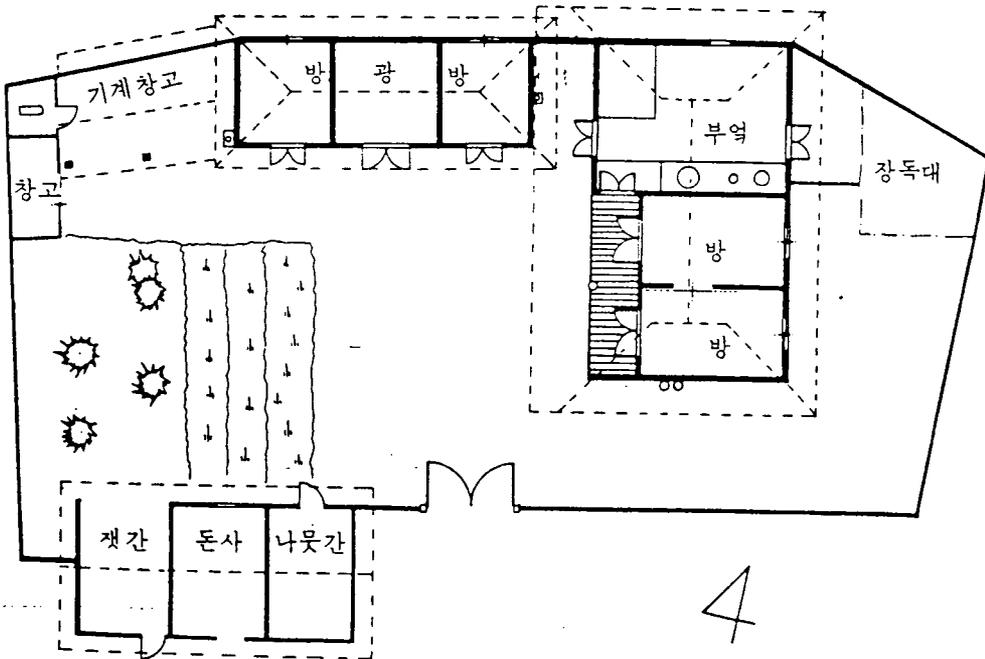


그림 5 - 9 C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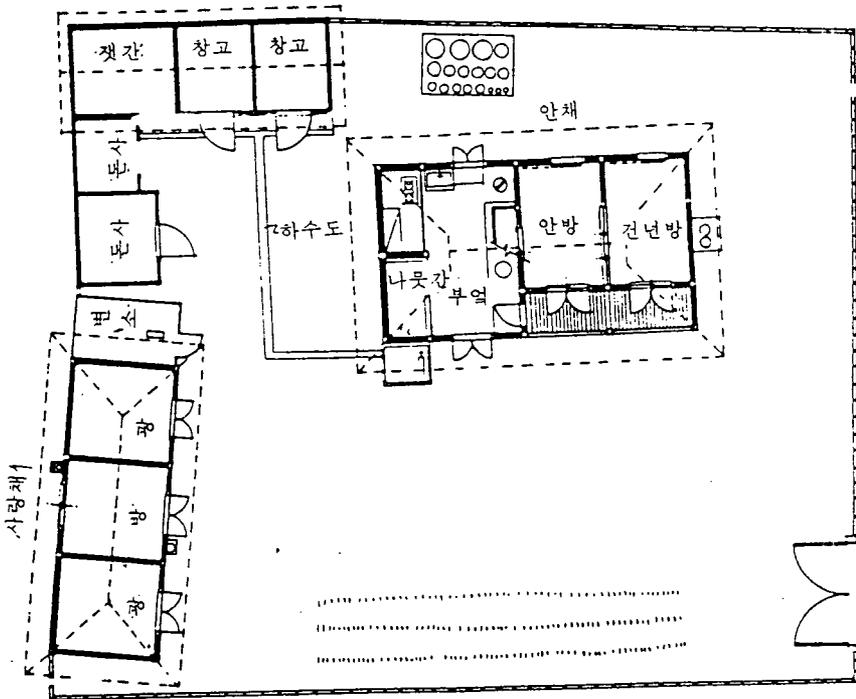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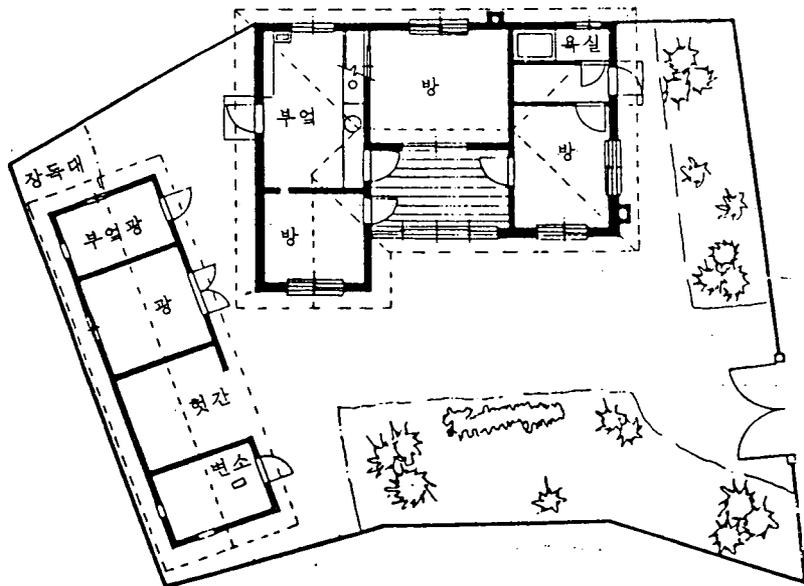


그림 5 - 10 D형 주택



③ 공동시설

야화 2리의 공동시설로는 새마을회관, 새마을창고, 구판장이 있다. 새마을회관과 창고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2년도에 건립된 것으로서 국고의 지원을 받아 마을 주민들의 경비 각출로 건축되었다. 새마을회관은 시멘트 벽돌을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그 규모는 9 평이다. 새마을회관의 건립은 주민들의 반상회나 총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 마을에 관한 회의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건립되었으나 마을회의는 주로 리장 집에서 이루어져 왔고, 1983년 구판장이 건립된 이후로는 구판장에 부속된 방에서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회관은 회의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시설이 유향화되어 오다가 1982년부터 마을 청소년들의 독서실로 개방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실의 이용도 여름 한 철에 불과하고, 시설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이용되고 있지 않다.

새마을창고의 건축자재는 시멘트 블럭이며, 건평은 23 평이다. 당초 이 창고를 건축할 때 마을 주민들의 양곡, 비료 등을 저장·보관할 목적이었으나 사실상 이와 같은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1986년의 경우를 보면 경쟁 입찰을 통하여 논산 대원정미소에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은 1년간이고, 임차자는 도정용 벼를 보관하고 있다. 임대료는 연 30 만원으로 이 수입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판장과 노인정을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이 시설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직영하였으나, 1986년부터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판장에 부속된 방들은 마을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방들중 하나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노인방이고, 다른 하나는 장년들이 사용한다. 따라서 구판장은 마을의 장년층과 노인들이 모이는 집회장 역할을 하며, 마을총회, 반상회 등도 대부분 이곳에서 개최한다.

새마을회관은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판장과 별도로 건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설배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구판장과 새마을회관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이 집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할 수 없도록 하게 한다. 더욱이 새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왕래가 적고 마을내 도로의 결절지가 아닌 지점에 건립되어 있어 집회장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약해진다.

그림 5 - 11 새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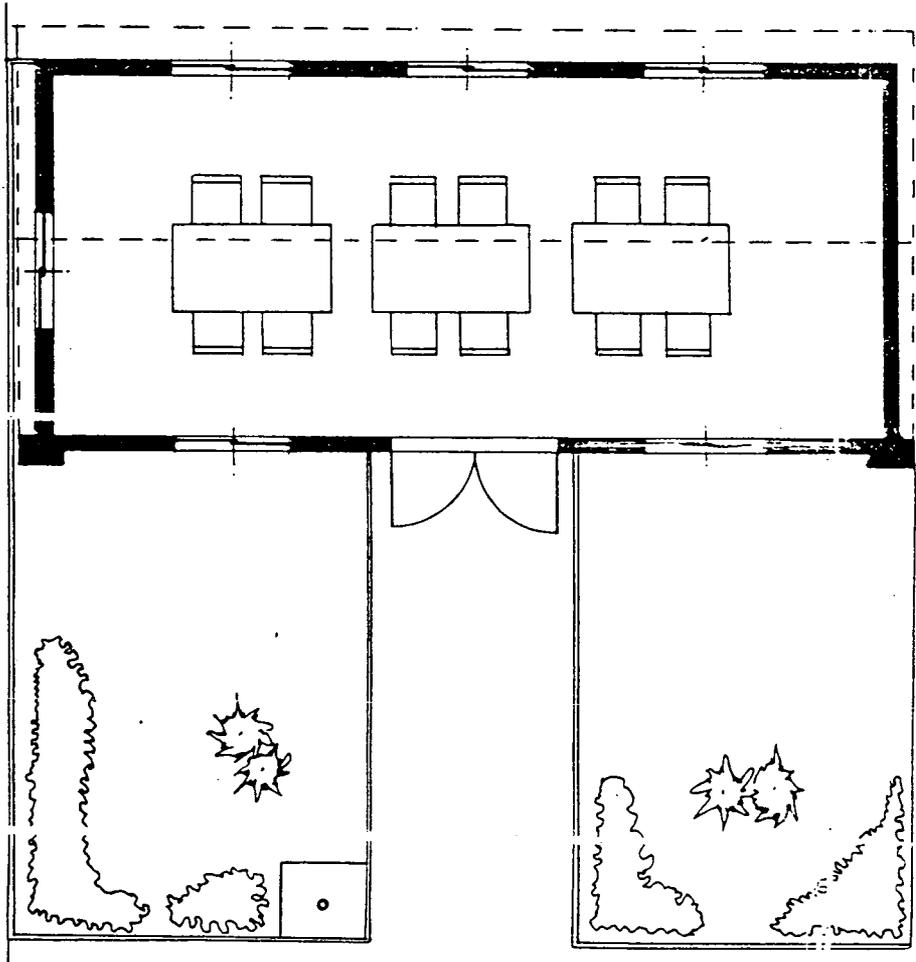


그림 5 - 12 새마을참고 및 구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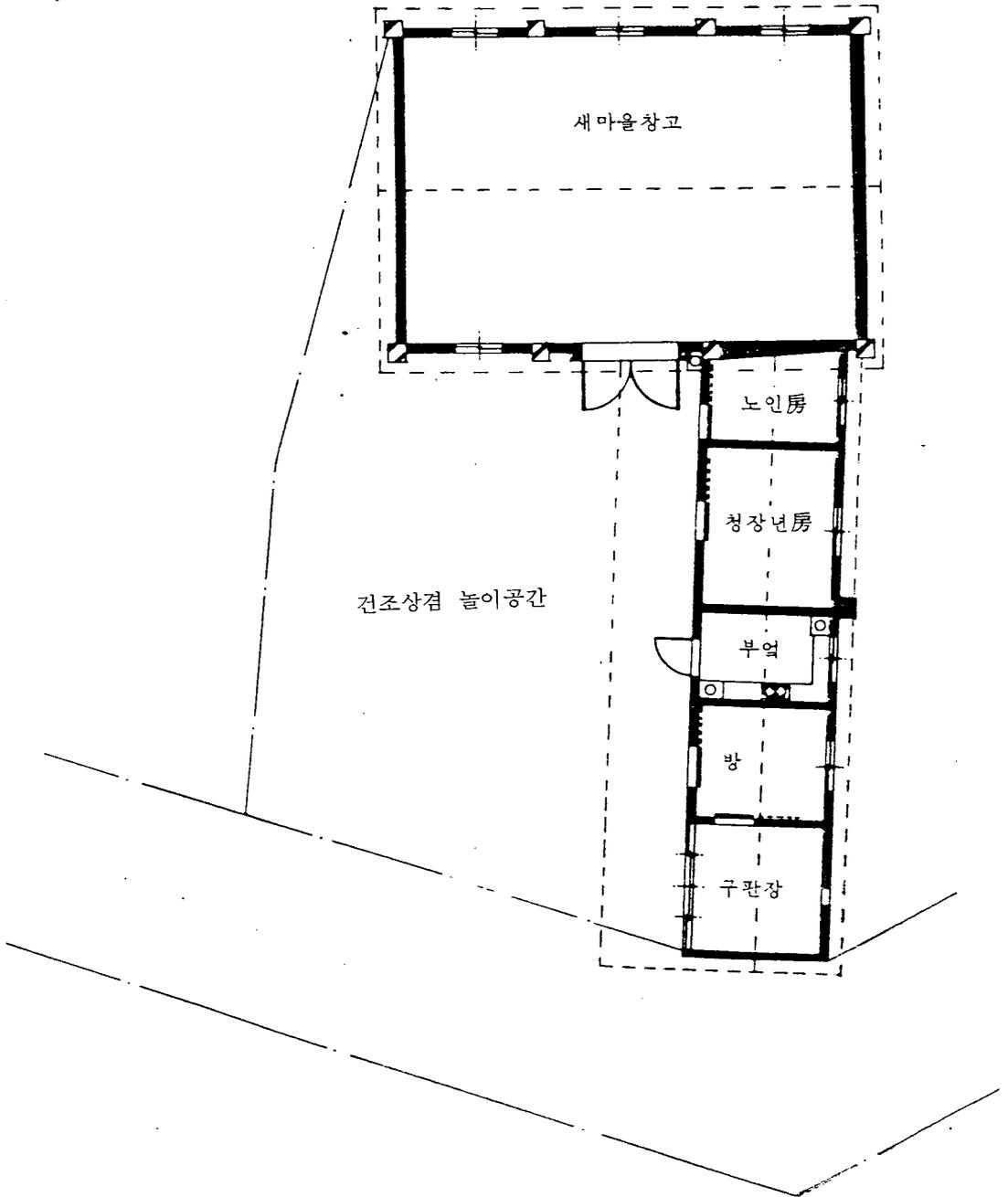


표 5 - 9 마을공동시설

건 축 물	건립년수	건 평	활 용 상 태
새 마을 회 관	1972	9	마을학생들의 도서실로 개방, 시설노후로 사실상 유휴상태임
새 마을 창 고	1972	23	임 대 (논산읍 주민)
구관장겸 마을 방	1983	12	구관장 시설물 임대 (부락주민), 마을방은 마을집 회장으로 활용

④ 도로체계

마을 내의 도로망은 그물형 (net-type)이다. 따라서 마을내 순환도로체계는 비교적 잘 짜여져 있으며, 농가간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야화 2리의 도로체계는 1966~67년의 경지정리사업과 1972년 이후 전개된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크게 바뀌었다.

경지정리사업 결과로 형성된 새로운 농로체계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농로는 마을의 향배와 같이 서향으로 설계되었다.
- ② 간선농로의 폭은 3~3.5m를 유지하여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와 트럭 등 교통수단이 교차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③ 지선농로는 2~2.5m 폭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트랙터와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 ④ 농로와 용수로(도수로)가 함께 병행 설계되어 있으며, 배수로는 농로가 없는 필지의 반대편에 별도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로의 설계는 농지와 농로만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농가 마을도로 및 농로와의 연계성에는 문제가 있다. 즉 농로는 농민들이 농가로부터 포장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마을도로 농로를 통한 포장에의 연계성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그림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의 각 도로에서 농로와 직접 연결되는 주지점은 마을 남쪽 끝에서 마을도로와 간선도로와 만나는 P지점 뿐으로서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할 때 그 접근성이 불량하다. 경운기로 농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 앞 순환도로를 통하여 농로의 각 지선까지 손쉽게 연결되므로 마을도로로부터 각 필지에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트랙터 등 대형 농기

그림 5 - 13 마을도로망,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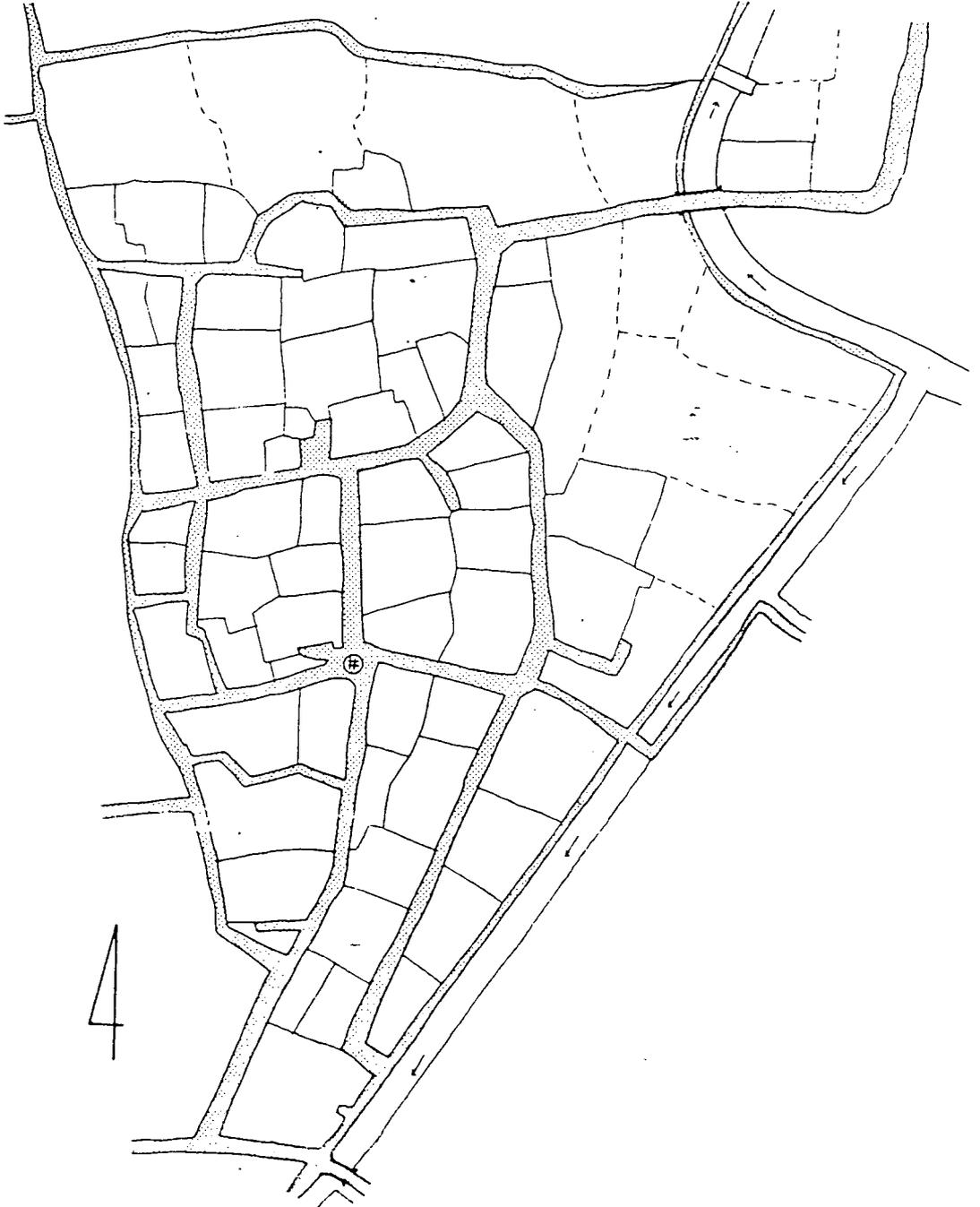


그림 5 - 14 마을도로망,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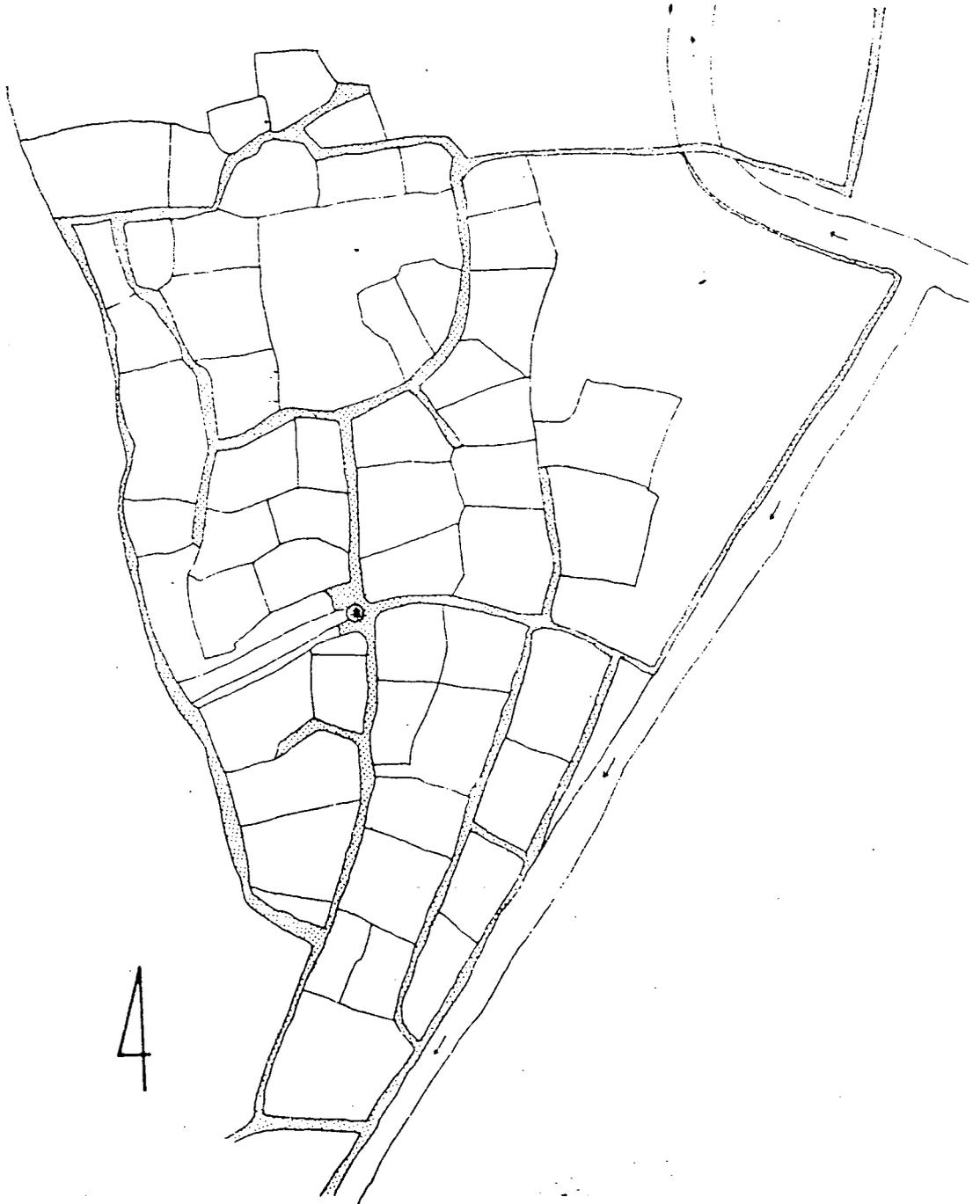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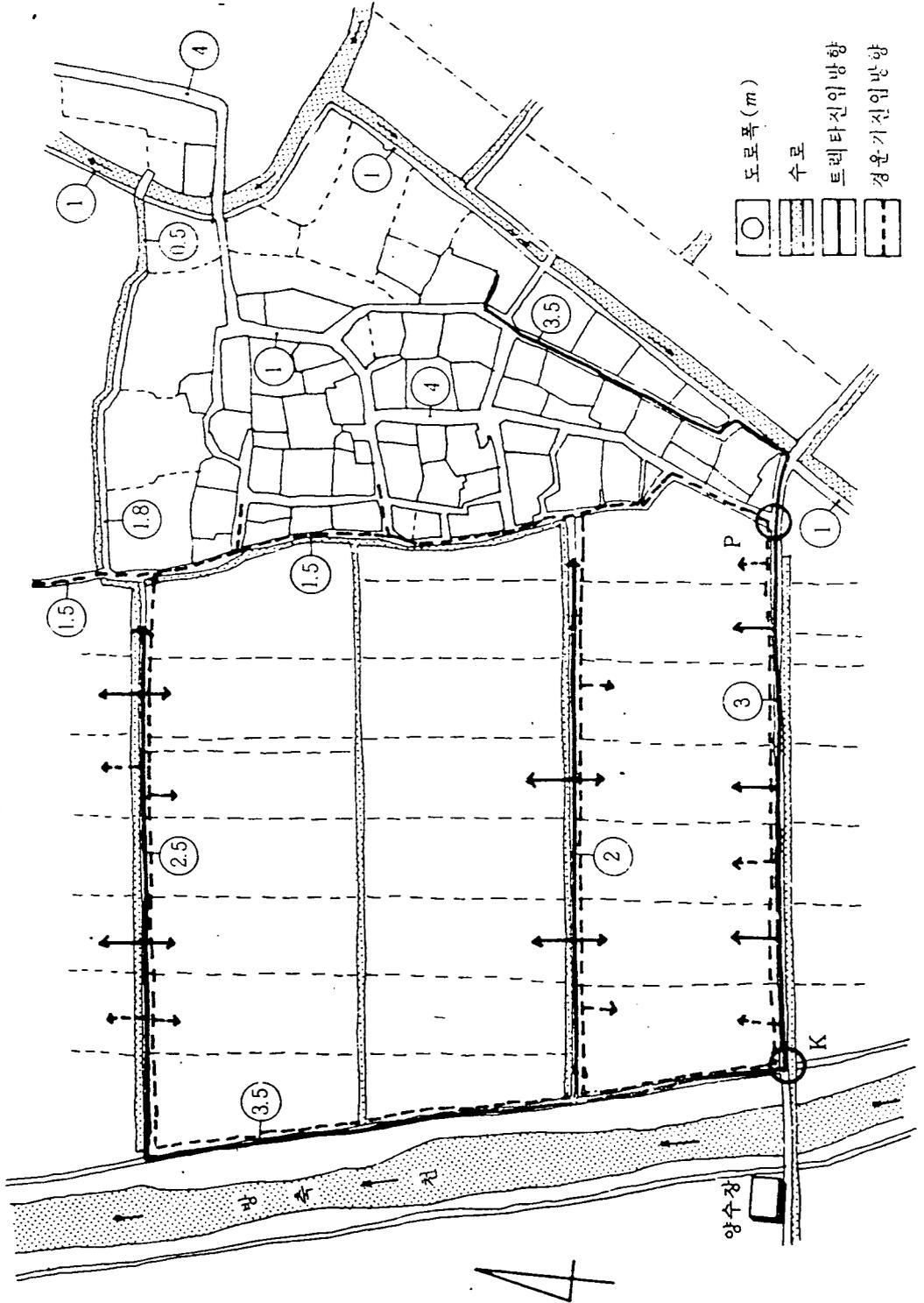


그림 5 - 15 마을도로와 농로와의 연계성



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마을 남쪽 끝의 P지점을 통과하여 K지점에서 방축천의 제방 도로를 지나 각 지선농로를 통과하여야만 각 필지에 도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1966~67년도에 실시한 경지정리사업과 1972년도 이후 실시한 마을도로사업 사이에 연계성 없이 별도의 계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72년도 이후 실시한 새 마을사업은 마을도로의 순환체계 개선과 도로폭 확장에 기여했다. 마을 안길의 순환체계는 첫째로 기존의 마을도로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마을주거지에서 농경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순환도로망 구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이 순환도로는 노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는 각 농가가 마을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을 안길의 도로망을 연결시켰다. 따라서 새로 구축된 마을 안길 도로망에 따라 모든 농가는 쉽게 교호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안길의 도로폭은 1972년까지 1~2m이던 것을 4m 내외의 폭으로 확장하여 마을 진입로와 함께 마을도로에도 현대적 교통수단인 트럭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표 5-10 마을도로 확장사업 내역

년 도	사 업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내 용
1972	마을 안길 확장	200 m	2 m를 4 m 폭으로 확장
1973	농 로 확 장 (마을 순환도로)	300 m	농경지에 접근할 수 있는 마을 순환 도로망으로 1~1.8 m 폭으로 확장
	마을진입로	500 m	3 m를 4 m 폭으로 확장
계		1,000 m	

5 상하수도망

야화 2리 주민이 이용하는 식수는 간이상수도과 자가수도의 두 종류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농가는 10호에 불과하고, 나머지 42호인 80.8%가 각 가정에 장치한 모터를 이용한 자가상수도를 이용한다.

이 마을은 저습한 평야지 저지대에 위치하고 항상 금강과 그 지류하천의 범람 위험성이 있으며, 배수불량한 토양과 낮은 지하수위 등으로 인해서 옛부터 양질의 식

그림 5 - 16 간이상수도망,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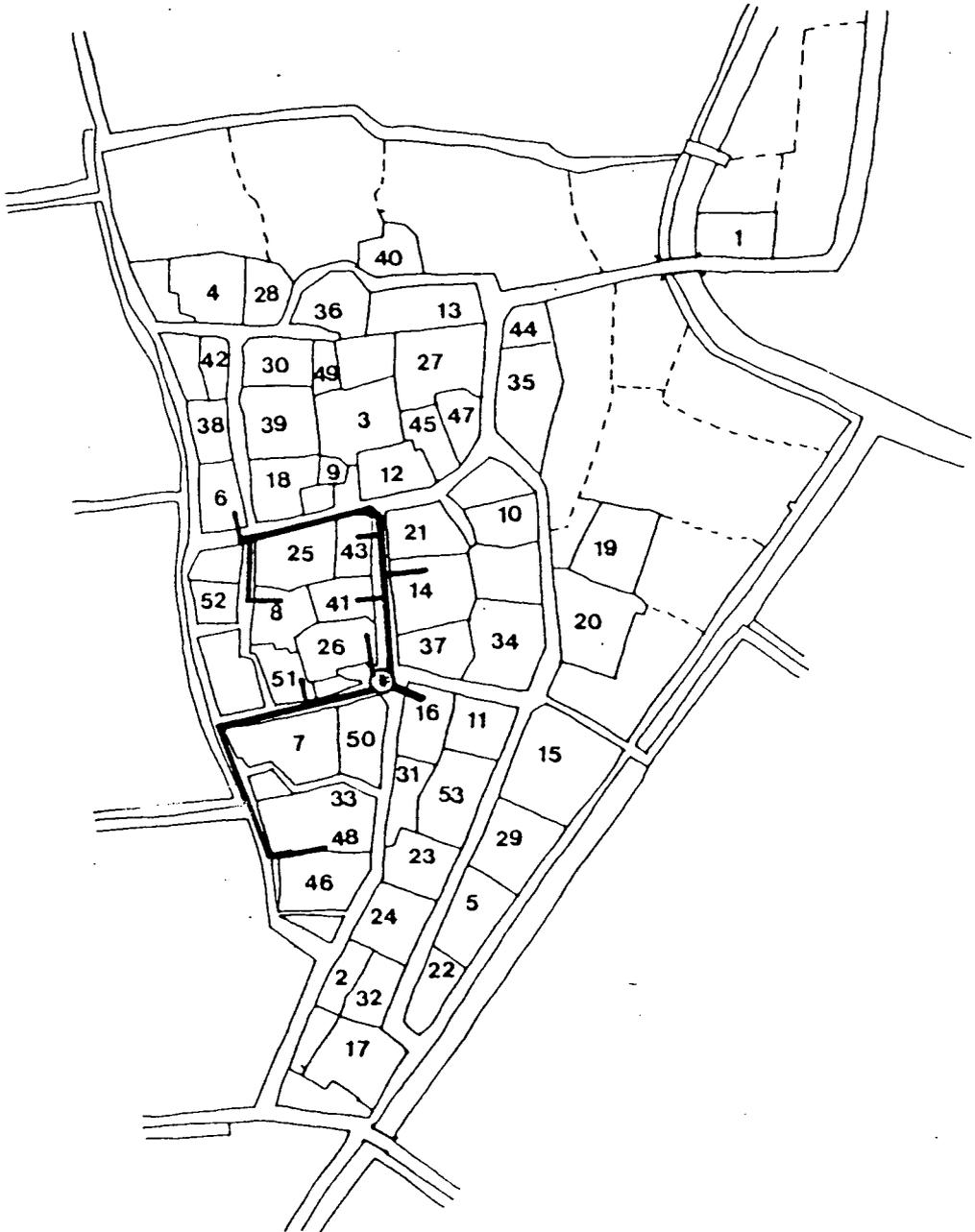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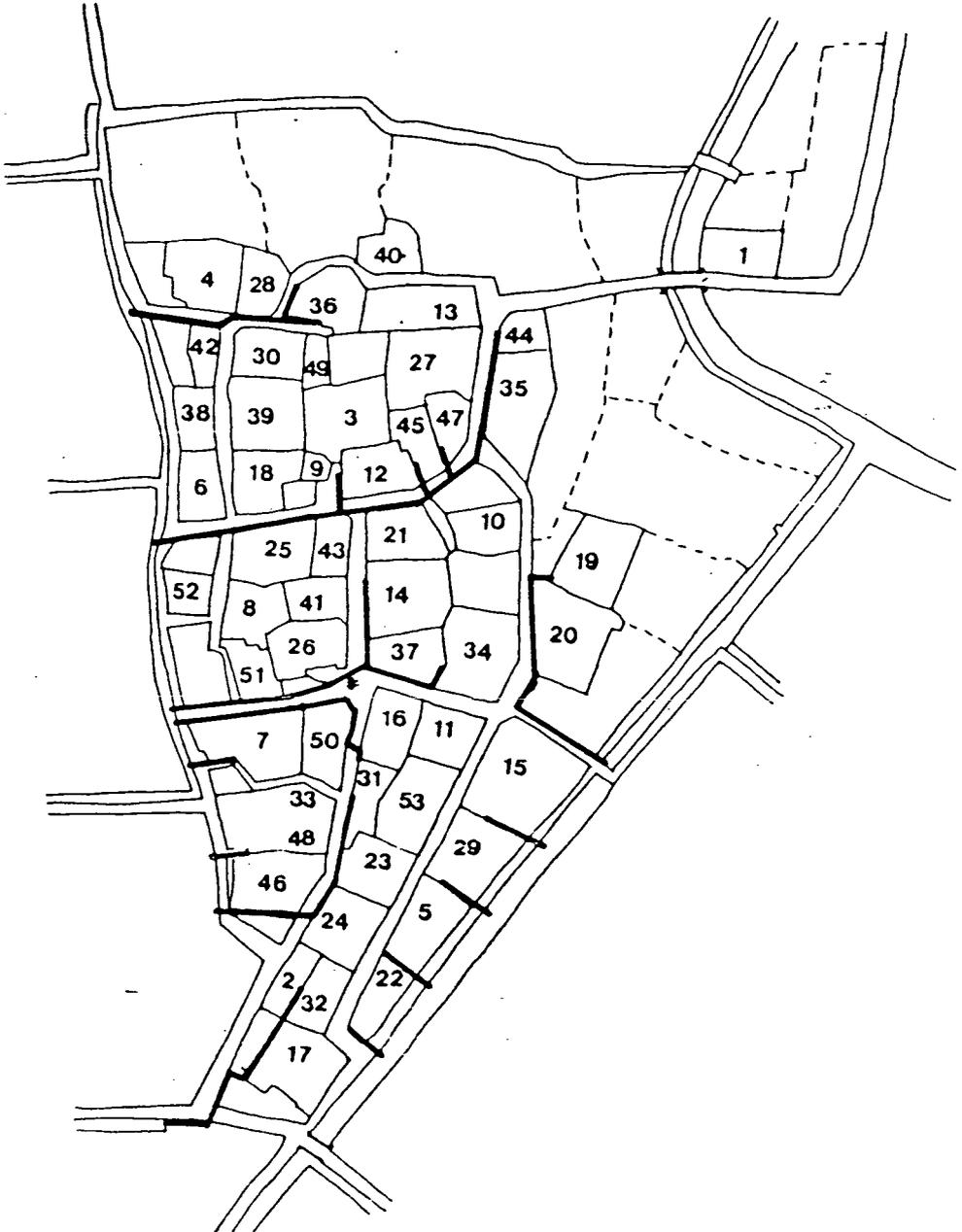


그림 5 - 17 하수도망, 1987



수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1975년대까지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하나 있는 공동우물을 유일한 식수원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1975년도 전기의 가설과 함께 모터 펌프에 의한 자가수도가 확대되자 이 공동우물을 이용하는 가구는 10호로 줄었고, 이들 농가들은 이 우물의 수원을 이용하여 간이상수도시설을 하였다. 이 마을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이상수도 와 자가수도에 의한 식수공급에 부족함은 없다. 그러나 도시근교지로서, 또한 생활하수의 증가와 축산물 배설물, 논산 등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낮은 지하수에 의지하는 이 마을의 식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불안정하다.

야화2리의 하수도망은 총연장 150m로서 1981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축조되었다. 그러나 이 하수도망은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편리한대로 가장 가까운 용배수로에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로 이 하수도망은 13곳의 하수 유출지를 갖는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기타 오염물질이 13곳으로 유출되어 공해를 분산시키고 있으며, 용배수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해방지 및 통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인구의 혼주화와 농업경영의 다각화에 의한 전문축산업의 발전, 농촌공장의 유치, 생활하수의 증가 등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우 이 마을에는 수위가 낮은 지하수의 오염으로 식수원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주거환경은 매우 조악해질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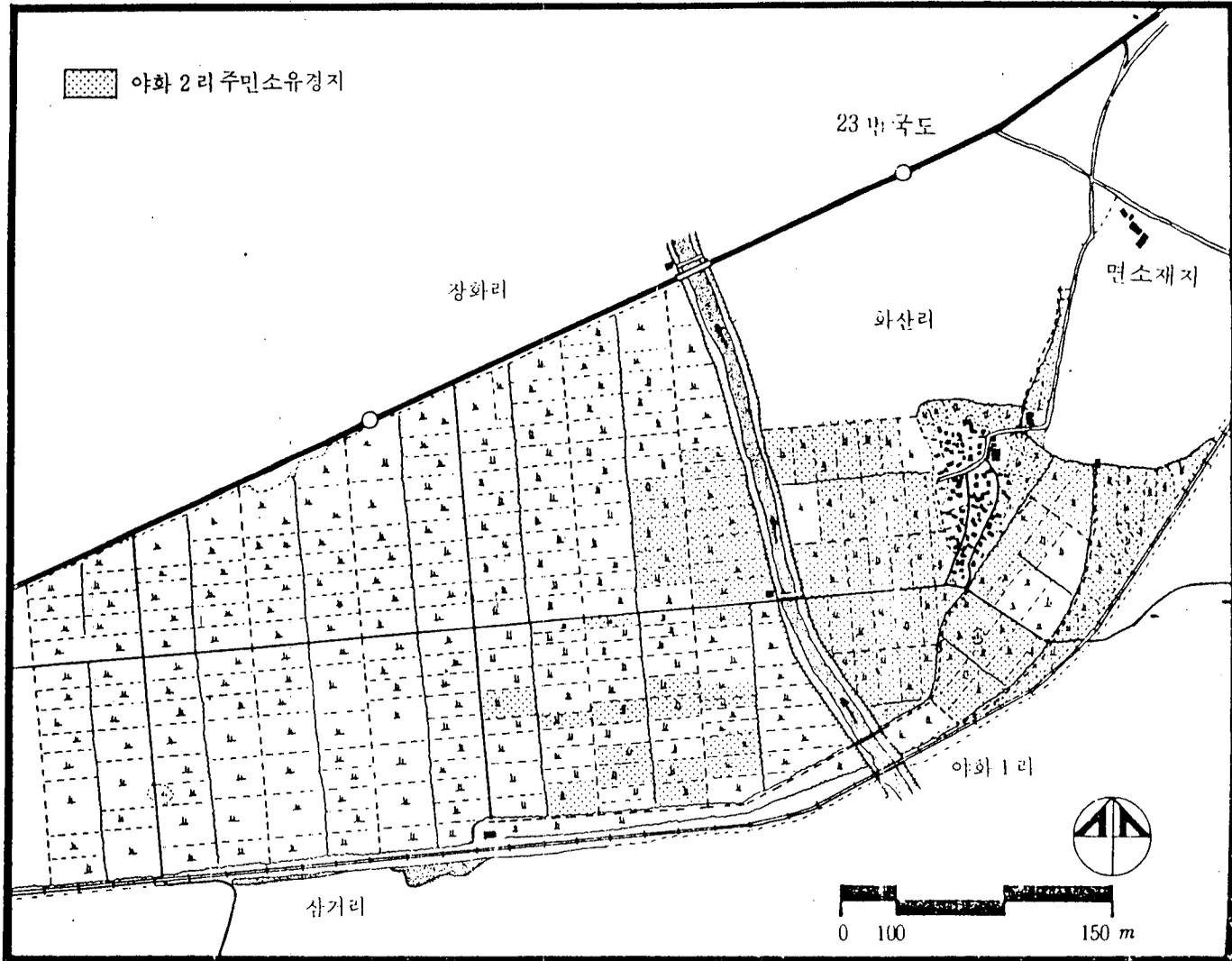
나. 생산공간

야화2리는 논산평야의 채운평야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이 논산천, 방축천, 강경천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저습한 하천범람원이다. 따라서 발면적이 적고, 경지도 98.6%가 논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구역으로서의 야화2리의 농경지는 23번 국도와 호남선 궤도 안에 있으며 동에서 서로 펼쳐져 있다. 그러나 야화2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는 전체 행정구

1) 이러한 사실은 이 마을 형성에 관련된 유래 중의 하나에 “지나가던 승려가 샘물을 찾아 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5 - 18 농경지의 분포와 경지구조



역의 50%가 되지 못한다.

야화 2리의 농경지는 일부 전과 답을 제외하고 모두 경지정리 되었다. 논외 필지별 규모는 가로 100 m, 세로 40 m의 1,200평 크기로 나누어져 있어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한 농기계작업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농경지 구조는 경운기 등 농기계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농경지 구조는 농업의 기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된다.

기후적 특성으로 볼 때 이 마을은 벼 뒷그루에 의한 보리 2모작 재배가 가능하나 보리 등은 재배되지 않고 일부 필지에 딸기의 답리작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답리작재배지 중의 일부는 참외, 수박, 호박 등 고등채소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육성 재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답리작이 이루어지는 면적은 1986년말 현재 6.5 ha에 달하며, 그 공간적 범위는 방축천 以東의 주거지 부근에 한정된다. 1986년도 토지이용율은 115%에 이른다.

다. 종교문화공간

야화 2리는 1970년대 초까지 마을 민속신앙으로 마을주민 전체가 모여서 지내는 용신제가 있었다. 매년 칠월칠석날 공동우물을 깨끗이 정화하고 제물²⁾을 차려 놓고 제를 드렸다. 특히 야화 2리는 산이 없는 평야지이고, 물론 농업은 물론 식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용신제는 이들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러나 방축천을 비롯한 제 하천이 정비되고 경지정리가 되어 물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었고, 1970년대 이후 밀어 닦친 기계문명에 의해 물을 숭배하던 민속신앙은 점차 빛을 잃어 왔다. 1975년 전기 가설로 대부분의 가정이 자가수도를 놓고 공동우물 주변의 10호만이 이를 사용하게 되자 이 용신제는 10호만이 참석하여 지내는 단순화된 용신제가 되었다.

야화 2리에는 충남 지방문화재 10호인 원목다리(원향교)가 있다. 이 다리는 조선조 영조 6년에 건립된 다리로 추측되는 아취형 석교로서 길이 16m, 너비 2.5m, 높이 3m에 이른다. 그러나 전해오는 전설로는 백제 성왕 때 놓여진 다리라고 하며,

2) 이들이 준비하는 제물은 과일 3종류(포도, 수박, 참외), 명태포, 조, 고기류 1종, 나물 3종류(도라지, 고사리, 기타 채소), 시루떡, 국밥 등이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다리는 신작로의 개통으로 구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다리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었다. 현재 이 다리는 1900년 광무 4년 대흥수로 파괴되었던 것을 승려 4인이 각출한 자금과 이 마을 주민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각출한 자금 등을 합하여 당시 4,130양의 거금으로 건립한 민간인들의 건축물이다. 이 다리는 1979년에 정부자금으로 보수공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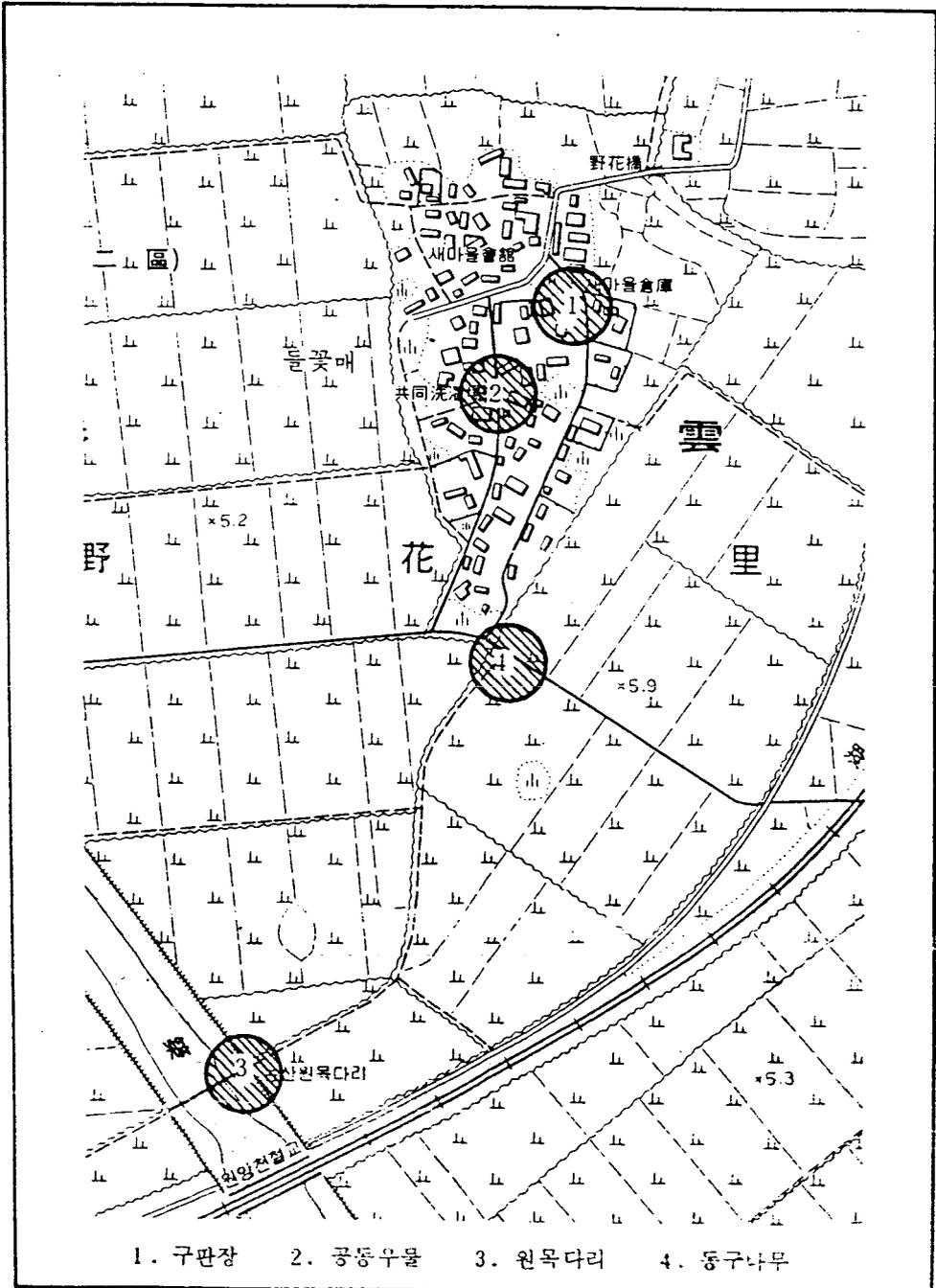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이 다리는 도의 지방문화재로만 남아 있을 뿐 이 마을 주민들의 문화전통과는 무관한 듯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있다.

야화2리 주민들의 공동 문화공간으로 중요한 곳은 구판장이다. 구판장의 노인방과 장년방은 마을회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여유허간이 있을 때 항상 모여서 담소하는 대화의 장이다.

또한 구판장 앞마당도 같은 의미로 중요하다. 여름철이면 이곳이 바로 야외회의장이 되기도 하며 년중 주요 절기에는 율놀이 등 공동놀이가 벌어지는 장소가 된다.

한편 마을 남쪽 끝 부분에 주민들이 조성한 둥구나마가 있다. 넓은 별판에 자라고 있는 이 둥구나마 숲은 주민들이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농사일로 흘린 땀을 식히는 장소로 이용되며, 아이들의 놀이터 이기도 하다.

그림 5-20 종교문화 공간



부록

1. 가구별 주요 변화, 1985~88

가구 번호	가구성격				경 영 주								가 구 원 수				경지소유면적(평)				경 작 면 적(평)							
	85	86	87	88	변 동 내 용				변 동 내 용				85	86	87	88	85	86	87	88	85	86	87	88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남	여	남	여
1	1	1	1	1	1	64	1	65	1	66	1	67	2	2	3	2	1	1	1	2	2,300	2,300	2,300	1,870	2,300	2,300	2,300	1,870
2	1	1	1	1	1	64	1	65	1	66	1	67	1	3	1	2	1	2	1	1	5,150	6,350	6,350	6,350	5,150	6,350	6,350	6,350
3	1	1	1	1	1	62	1	63	1	64	1	65	1	1	1	1	1	1	1	1	4,485	4,485	4,485	4,025	4,485	4,485	3,285	4,025
4	1	1	1	1	1	46	1	47	1	48	1	49	3	4	3	4	3	3	4	2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7,000	5,200
5	1	1	1	1	1	58	1	59	1	60	1	61	1	1	1	1	1	1	1	1	5,970	5,970	7,210	7,210	5,970	5,970	7,210	7,210
6	1	1	1	1	1	48	1	49	2	50	2	51	2	1	1	1	1	1	1	1	0	0	0	0	1,200	1,200	1,200	1,200
7	1	1	1	1	1	38	1	39	1	40	2	70	2	5	2	5	2	5	0	1	3,800	3,800	3,800	1,600	6,900	5,800	4,900	3,400
8	1	1	1	1	1	42	1	43	1	44	1	45	3	2	3	2	3	2	2	2	0	0	0	0	4,000	3,200	2,600	6,600
9	1	1	4	3	87년 영농중단	49	1	50	1	51	1	52	5	1	6	1	5	1	3	1	0	0	0	0	800	1,000	0	0
10	1	*	*	*	86년 이혼	45							2	1							0				1,200			
11	1	1	1	1	1	58	1	59	1	60	1	61	1	1	1	1	1	1	1	1	8,157	8,157	8,157	6,757	8,157	8,157	7,957	6,757
12	1	1	2	2	87년 영농중단	66	1	67	2	60	2	61	1	1	1	1	0	1	0	1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0	0
13	1	1	2	2	87년 영농중단	59	1	60	1	61	1	62	2	3	1	1	1	1	1	1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0	0
14	1	1	1	1	1	53	1	54	1	55	1	56	3	1	3	1	2	1	2	1	1,600	1,600	1,600	1,600	2,000	2,200	3,200	1,600
15	1	1	1	1	1	68	1	69	1	70	1	71	1	1	1	1	1	1	1	1	7,216	7,216	5,896	5,896	7,216	7,216	5,896	5,896
16	1	1	1	1	1	29	1	30	1	31	1	32	1	1	1	1	1	1	1	1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17	1	1	1	1	1	52	1	53	1	54	1	55	3	3	3	3	3	3	3	3	3,214	3,214	3,214	3,246	5,414	5,414	5,414	4,514
18	1	1	1	1	1	48	1	49	1	50	1	51	2	1	2	1	2	1	2	1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5,400	5,200
19	1	1	1	1	1	34	1	38	1	39	1	40	5	5	2	3	2	3	2	3	3,200	2,000	2,000	2,000	4,700	2,000	500	500
20	1	1	1	1	1	60	1	61	1	62	1	63	5	5	3	4	3	4	3	4	5,343	5,343	5,343	4,143	6,743	6,743	6,756	6,756
21	1	1	1	4	88년 영농중단	33	1	34	2	33	2	34	2	3	2	3	1	3	1	3	0	0	0	0	0	2,100	1,200	0
22	1	1	1	1	1	63	1	64	1	65	1	66	3	3	3	3	4	3	3	3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23	1	1	1	1	1	48	1	49	1	50	1	51	2	4	2	4	2	4	2	2	3,200	3,200	3,600	3,600	3,000	3,200	3,600	4,300
24	1	1	1	*	88년 이혼	57	1	58	1	59			4	2	4	2	3	1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25	1	1	1	1	1	39	1	40	1	41	1	42	2	3	1	3	2	3	2	2	800	800	800	800	2,000	2,000	2,000	2,000
26	1	1	1	1	1	56	1	57	1	58	1	59	2	2	3	1	2	1	2	1	780	780	780	1,990	3,600	4,080	2,880	4,790
27	1	1	1	1	1	48	1	49	1	50	1	51	1	6	1	6	1	6	1	5	6,710	7,910	7,910	7,910	6,710	10,810	7,910	7,910
28	1	1	1	1	1	40	1	41	1	42	1	43	2	4	2	4	2	4	2	4	1,000	1,000	1,000	1,000	3,000	3,000	1,000	1,800
29	1	1	1	1	1	57	1	58	1	59	1	29	3	1	2	1	2	1	1	1	0	0	0	0	2,200	2,800	2,800	2,800
30	1	1	1	1	1	48	1	49	1	50	1	51	2	4	2	5	2	4	2	4	1,575	1,575	2,775	3,600	3,975	4,175	6,375	7,200

가구 번호	가구 성 적				변 동 내 용	경 영 주				변 동 내 용	가 구 원 수				경 지 소 유 면 적 (평)				경 작 면 적 (평)														
	85	86	87	88		성	연 령	인	연 령		성	연 령	85	86	87	88	85	86	87	88	85	86	87	88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1	1	1	1	1		1	63	1	64	1	65	1	66		1	1	1	1	1	1	1	1	1	1	947	947	947	947	947	2,347	2,347	2,347	2,347
32	1	1	1	1		1	47	1	48	1	49	1	50		1	6	2	5	2	4	1	4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2,130	2,130	2,130	
33	1	1	1	1		1	64	1	65	1	66	1	67		2	1	1	1	1	1	1	1		0	0	0	0	0	3,000	3,000	3,000	5,000	
34	1	1	1	1		1	39	1	40	1	41	1	42		2	3	2	3	2	3	2	3		5,300	4,650	4,650	5,650	5,300	4,350	4,350	6,250		
35	1	1	1	1		1	56	1	57	1	58	1	59		2	1	2	2	3	2	3	2		1,700	500	500	500	2,900	2,300	500	500		
36	1	1	1	1		1	49	1	50	1	51	1	52		1	1	1	1	1	1	2	1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3,200		
37	1	1	1	1		1	64	1	65	1	66	1	67		1	6	1	1	1	0	1	1		710	710	710	710	710	710	710	710		
38	1	1	1	1		1	31	1	32	1	33	1	34		2	2	2	2	2	2	2	2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39	2	4	1	1	87년 영농참여	2	30	1	38	1	39	1	40	85년 경영주원시출타	3	2	3	2	2	2	2	2		1,600	1,600	1,600	1,600	0	0	1,600	1,600		
40	2	1	2	2		1	65	1	66	1	67	1	68		1	1	1	1	1	1	1	1		770	770	770	770	0	770	0	0		
41	4	4	4	4		1	72	1	73	1	74	1	75		1	2	1	1	1	1	1	1		0	0	0	0	0	0	0	0		
42	4	1	1	1	86년부터 영농참여	1	31	1	32	1	33	1	34		1	5	1	6	1	6	1	6		0	0	0	0	0	2,000	2,000	3,000		
43	2	2	2	2		2	60	2	61	2	62	2	63		0	1	0	1	0	1	0	1		1,200	1,200	1,200	1,200	0	0	0	0		
44	3	1	4	4		1	44	1	45	1	46	1	47		4	2	3	2	2	2	1	2		0	0	0	0	0	1,200	0	0		
45	3	3	3	3		1	41	1	42	1	43	1	44		3	4	3	5	2	4	2	4		0	0	0	0	0	0	0	0		
46	4	4	6	1		1	55	1	56	1	57	1	58		1	2	1	2	1	2	2	2		0	0	0	0	0	0	0	1,800		
47	4	4	4	4		2	51	2	52	2	53	2	54		1	1	1	1	1	1	1	1		0	0	0	0	0	0	0	0		
48	4	1	1	1		1	34	1	35	1	36	1	37		5	4	5	4	5	4	5	4		0	0	0	0	0	600	300	900		
49	3	3	1	1		1	62	1	63	1	64	1	65		1	2	2	2	2	2	2	2		0	0	0	0	0	0	550	400		
50	4	4	4	1		1	31	1	32	1	33	1	34		2	2	2	2	2	2	2	2		0	0	0	0	0	0	0	0		
51	4	4	1	1		2	64	2	65	2	66	2	67		1	4	1	5	1	5	1	5		0	0	0	0	0	0	0	900		
52	*	1	1	1	86년 전입			1	29	1	30	1	31		0	0	3	2	3	2	3	2			700	700	700		3,700	3,000	3,900		
53	*	1	4	4	"			1	51	1	52	1	53		0	0	2	3	2	3	2	3			0	0	0		0	0	0		
54	*	*	*	4	88년 전입						1	32			0	0	0	0	0	0	0	2	1								0		

가구성적 : 1. 농가 2. 지주 3. 농업노동자가구 4. 비농업가구 6. 기타 가구 경영주 성 : 1. 남자 2. 여자

2. 가구별 승계, 분가, 전출입 내용

가구주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비	고
윤창수	-----									1954	이혼
박태준	-----									1964	이혼
진상옥	-----									1972	이혼
오윤옥	-----									1965	이혼
김봉옥	-----									1962	사망, 단절
양순태	-----									1980	이혼
신태진	-----									1972	이혼
박창길	-----									1979	이혼
이기봉	-----									1965	이혼
이길동	-----									1980	이혼
	-----									1955	분가 (40)
김범수	-----									1972	이혼
최봉화	-----									1967	이혼
서동문	-----									1953	이혼
소문숙	-----									1954	이혼
이갑천	-----									1980년	이혼
현경래	-----									1947년	사망, 단절
신태울	-----									1982년	이혼
조성문	-----									1947년	이혼
최봉기	-----									1967년	이혼
전용환	-----									1958년	이혼
김판길	-----									1967년	이혼
백원기	-----									1982년	이혼
	-----									1947년	분가
	-----									1963년	승계
	-----									1982년	이혼
	-----									1977년	분가, 이혼
	-----									1986년	전입 (33)
	-----									1982년	분가 (50)
	-----									1950년	분가
	-----									1963년	승계 (19)
	-----									1986년	분가 (52)

가구주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비	고
김영주										1947년	이촌
유별만										1975년	이촌
이해범										1978년	이촌
성상만										1955년	이촌
장세은										1980년	이촌
배기홍										1946년	이촌
○○○										1946년	이촌
김인용										1973년	이촌
김판세										1947년	승계(③)
										1956년	분가(⑪)
										1963년	분가(⑳)
전기풍										1969년	승계(⑳)
강응상										1960년	승계
										1980년	승계(⑥)
신석순										1960년	승계(㉗)
										1971년	분가(㉘)
신태선										1987년	승계(㉙)
표재천										1980년	승계(④)
박남효										1975년	승계(⑱)
신태욱										1964년	처승계
										1972년	자 분가이촌
										1980년	귀향(㉚)
최동금										1962년	승계(⑭)
김완수										계속(㉛)	
										1986년	분가이촌
										1988년	전입(㉜)
송순룡										1976년	승계(㉝)
김종수										계속(㉞)	
최병규										1972년	승계
										1988년	모 승계(⑦)
										1952년	분가(①)
박양만										1952년	승계(㉟)
노갑동										1949년	승계(⑤)
신태순										1979년	승계(㊱)

가구주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비	고
이준경						○			●	1954년 분가	
										1967년 합산	
										1987년 처 승계(12)	
이근숙		○								1948년 승계(46)	
문천수						○			○	1969년, 1986년 승계(29)	
김경배										1946년 전입(22)	
이재만										1965년 전입(30)	
이재원										1968년 전입(8)	
박의재			○			○				1956년 전입	
										1968년 승계(25)	
박길봉										1970년 전입(2)	
임재호										1970년 전입(17)	
김응섭										1971년 전입(44)	
윤이권										1975년 전입(9)	
이삼술										1972년 전입(13)	
김재원										1977년 전입(26)	
천종배										1980년 전입(42)	
백보현										1958년 전입	
										1988년 이촌(24)	
										1963년 분가(32)	
손인식										1966년 전입(23)	
지병목										1982년 전입(30)	
황규삼										1983년 전입(38)	
김일남										1975년 전입(45)	
신인중										1953년 전입	
										1971년 처 승계(47)	
박창진										1975년 전입(49)	
김용성										1981년 전입	
										1988년 처 승계(21)	
김상윤										1946년 전입(15)	
이재근										1969년 전입(16)	
이천귀										1980년 전입(37)	

가 구 주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비	고
천 ○ ○								●		1970년 전입	
임 한 선								---		1979년 처 승계(㉓)	
이 두 호									---	1978년 전입	
										1980년 이촌	
										1976년 전입	
										1986년 이촌(㉑)	

M15-12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1985~2001) 12

平野마을의 社會經濟構造

- 論山郡 彩雲面 野花2里 事例 -

1989年 12月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刷 株式會社 文 花 社

電話 739-3911~5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